

제주PEN문학 통권 제21집

THE PEN LITERATURE

ISSN 2586-2391

제주 PEN문학

추모특집 서귀포의 서정, 한기팔 시인

시 강병철 강중훈 김광춘 김병택 김성수 김승범
김용길 김원욱 김종호 김창화 나기철 문무병
문상금 서정문 양금희 양문정 양전형 윤봉택
이명혜 이소영 한천민 홍창국

시조 오영호

동시 김섬 김정희 양순진 장승련

수필 고길지 고연숙 김순신 정영자 조옥순

동화 김란 박재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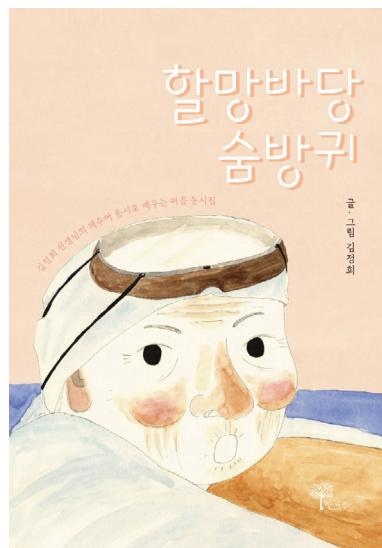
소설 박미윤

기획1 작가조명 | 강방영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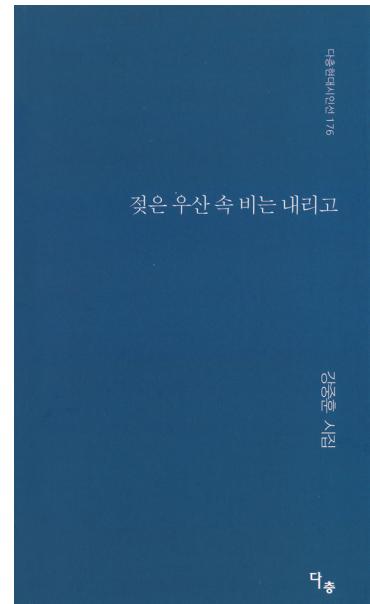
기획2 예술의 향기 | 강법선

기획특집 교포문인을 찾아서 오사카 김길호 소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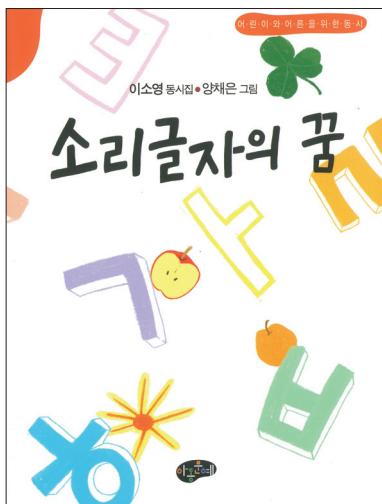
국제PEN한국본부 제주지역위원회



김정희 동시집
『할망바당 숨방귀』(한그루, 2024)



강중훈 시집
『젖은 우산 속 비는 내리고』(다총,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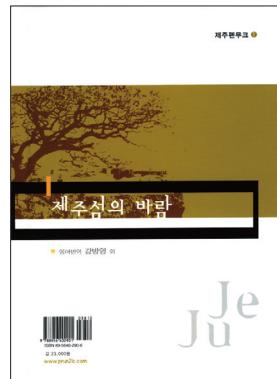


이소영 동시집
『소리글자의 꿈』(아동문예,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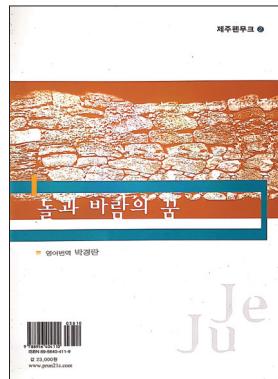


김가영 수필집
『신호와 전설이 만날 때』(열림문화,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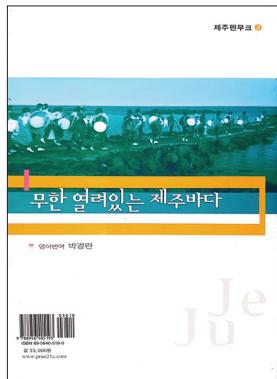
제주 PEN 문학(창간호~제20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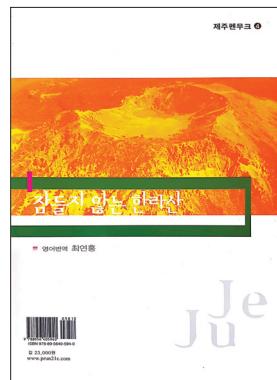
창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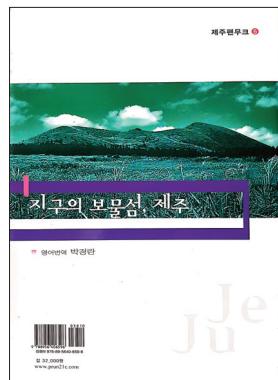
제2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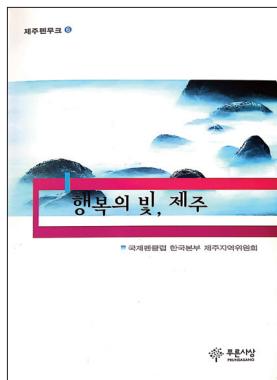
제3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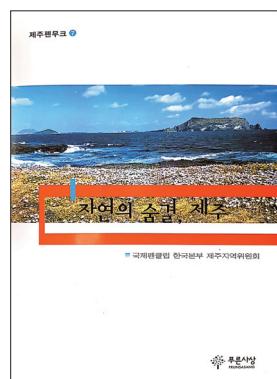
제4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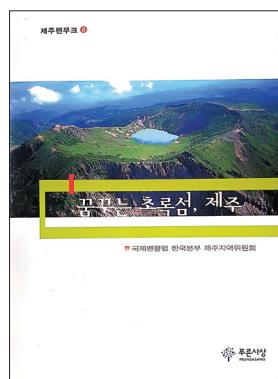
제5집



제6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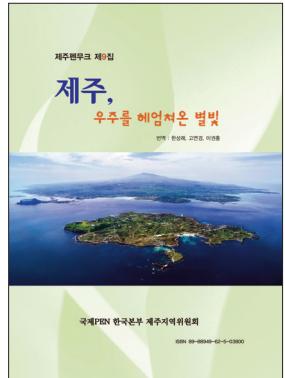


제7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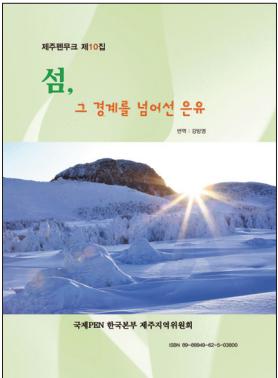


제8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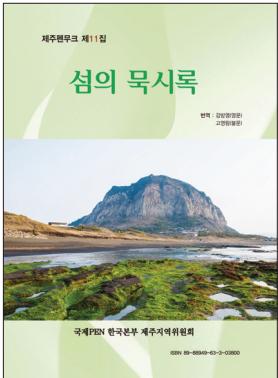
제주 PEN 문학(창간호~제20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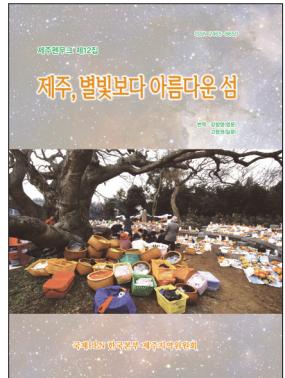
제9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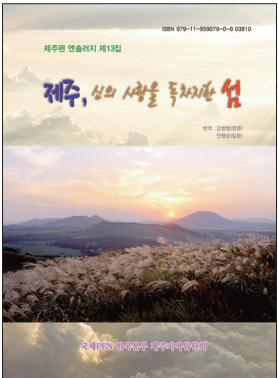
제10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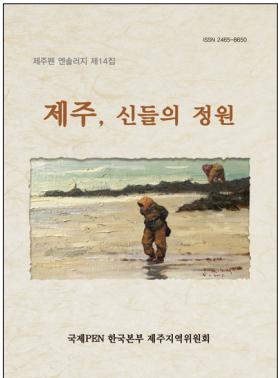
제11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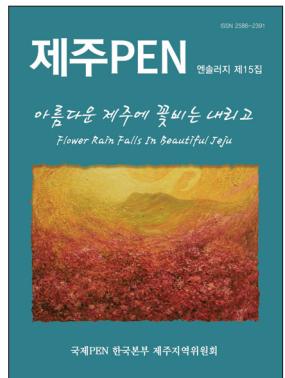
제12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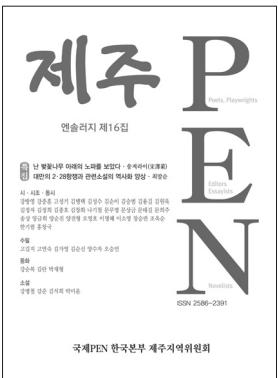
제13집



제14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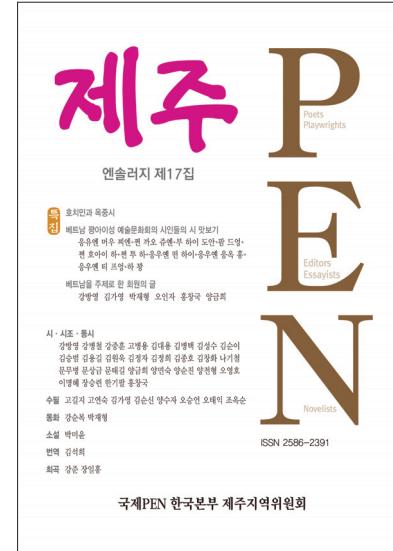


제15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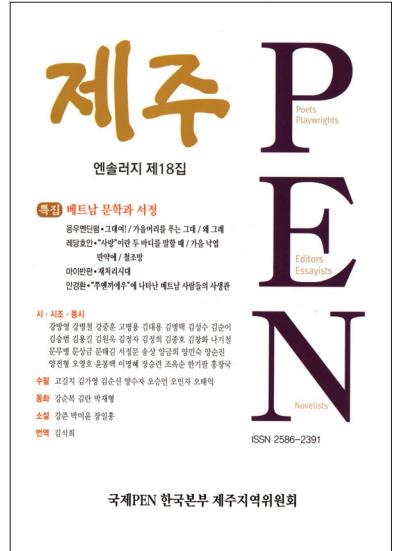


제16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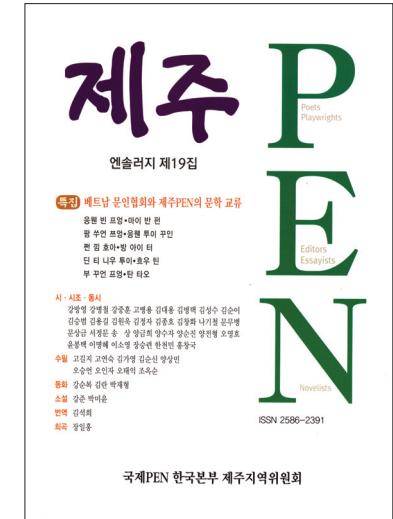
제주 PEN 문학(창간호~제20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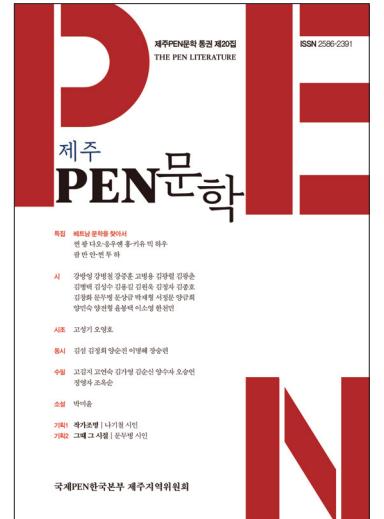
제17집



제18집



제19집



제20집

제주

제주PEN문학 통권 제21집
THE PEN LITERATURE

추모특집 서귀포의 서정, 한기팔 시인

시 강병철 강중훈 김광춘 김병택 김성수 김승범
김용길 김원욱 김종호 김창화 나기칠 문무병
문상금 서정문 양금희 양문정 양전형 윤봉택
이명혜 이소영 한천민 홍장국

시조 오영호

동시 김섬 김정희 양순진 장승련

수필 고길지 고연숙 김순신 정영자 조옥순

동화 김란 박재형

소설 박미윤

기획1 작가조명 | 강방영 시인

기획2 예술의 향기 | 강법선

기획특집 교포문인을 찾아서 오사카 김길호 소설가

문학



국제PEN한국본부 제주지역위원회



제주PEN문학(제20집) 출판기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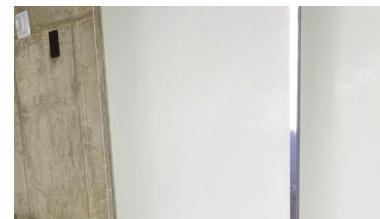
사무감사

담소

편집회의



총회, 그리고…



상실의 시대, 왜 문학인가

김원옥
제주PEN 회장

책
머
리
에

공허한 담론이 넘쳐나는 시대, 문득 돌아보니 스승도 떠나고 친구도 떠났다.

그리운 것, 소중한 것, 첨단 과학의 그늘에 묻혀버릴 것만 같은 위태로운 인류와 그 자유의지까지 의미를 잃어버리면 어찌나 하는 조바심이 있다.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상실의 시대(원작 ‘노르웨이의 숲’)”에서 주인공 와타나베와 그의 친구들이 경험하는 죽음과 이별, 그리고 인한 고통 등 그 시대 청춘들과 함께 겪었던 상실감이 왜 칠순을 눈앞에 둔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 다가오는 것일까.

사유의 방식이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떠나, 문학이라는 끈 하나로 기쁨과 슬픔을 함께해 왔던 소중한 인연의 부재가 주는 여백이 너무나 큰 탓이리라.

지난해 가을 한기팔 시인이 우리 곁을 떠났다. 잠시 멀어져 있던 때라 황망하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하지만, 문학에 입문했던 70년대 중반 서귀포 솔동산 입구 주점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다가, 문학을 하려면 ‘이것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각오로 하라는 따끔한 가르침을 기억한다.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고 시대상까지 변했지만, 그래도 나를 지켜온 힘은 결연한 문학정신일 터. 누군가 남긴 발자국

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새삼 깨닫는다.

이번 책에는 서귀포의 서정을 대표하는 한기팔 시인의 작품세계를 추모특집으로 꾸몄다. 또한 예술융합의 하나로 ‘예술의 향기’ 코너를 신설하였고, 기획특집 ‘교포 문인을 찾아서’에서는 재일 작가인 김길호 소설가를 다뤘다. 특히 베트남 등 10개국 16명의 외국 작가의 작품을 선보이고, 회원 작품을 번역하여 신는 등 문학의 세계화와 국제교류라는 국제PEN의 이념에 충실했을 뿐 아니라, 국제문학단체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였음을 밝힌다.

요즘 시중에는 ‘문인 과잉시대’란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설익은 문인들이 쏟아내는 정제되지 않은 언어들이 문학판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원로분의 어두운 눈빛이 마음에 남는다. ‘전 국민의 문인화’란 말도 들리고, 문인이란 간판을 자기 포장을 위한 스펙쯤으로 여기는 현상을 마주하면서 편치 않은 게 사실이다.

문학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그러나 깊은 사유와 통찰을 통해 뽑아낸 수정처럼 맑은 언어를 독자들은 기대하지 않을까. 가볍고 화려함을 추구하는 시류에 힘들되지 않은 올곧은 문인을 기대하는 것은 치졸한 노욕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불감과 결핍으로 점철된 혼돈의 시대, 왜 문학인가.

어려울 때일수록 문학을 비롯한 예술은 빛을 발하는 법. 그래도 이렇느 어느 구석에선가는 서늘한 시대정신이 시퍼렇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위안으로 삼으면서, 문학과 역사의 관계를 탐구하고 텍스트가 이데올로기나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는 신역사주의적 관점에서 문학의 시대적 역할을 바라보고자 한다.

책머리에	10	상실의 시대, 왜 문학인가 김원욱(제주PEN 회장)	한기팔 시인을 추억한다 65 김원욱 바람 부는 곳에 그가 있다 68 나기철 그가 있는 남쪽 80 문상금 겨울삽화, 그 그리움의 끝 90 강정만 구두미 바다의 달빛과 시인
추모특집	26	한기팔 시인 연보	
서귀포의 서정,			
한기팔 시인		주요 작품	해외문학 소개
	28	서귀포2	세계의 시인 96 리쿠이센 성산 일출봉
	29	제주 억새꽃	104 린성빈 단수이 강의 반영
	30	마라도1	108 스캇 토머스 아웃러 정의(定義)를 초월하는
	31	그린 날1	113 파비오 데스칼지 불빛의 흔적
	32	춘설(春雪)	117 안젤라 코스타 뺑 한 조각
	33	목련꽃 그늘에 앉으니	124 앤리슨 그레이하ース트 무엇인가
	34	흰구름 아득한 날	132 마리엘라 코르데로 아무것도 네 몸을 알지 못했어
	35	제주 유도화(柳桃花) 2	140 에바 페트로포울로우 리아누 그는 성공할지니
	36	서으로 가는 초저녁 눈썹달처럼은	148 마키 스타필드 환영의 그림자
	38	그 꽃 진 자리	156 타그흐리드 보우메르히 밤의 언저리에서 혼자
		논문	
	39	김지연 한기팔 시의 생태적 지향	베트남 시인 163 쯔엉 티 눈 그리고 나는 꿈을 꾼다 166 쩐 티 르우 리 햇살이 부르는 이름

해외문학 소개	169	옹우옌 딘 띠엠 밤새 달이 뜨길 기다리다	나의 문학을 말한다
	171	부 쫑 타이 박항서	212 강방영 안개마을과 어머님의 마당
	174	선 투이 남이섬	
	177	쩐 쫑 또안 제주도(濟州道)	강방영의 문학
			217 허상문 생명과 사랑의 서정 시학
번역 작품	182	강방영 네가 불이라면	
회원 詩	184	강병철 바다가 잔잔하면	회원 작품 238 강병철 숲이 사라지네 외 1편
	188	양금희 봄의 여신의 꿈	시. 241 강중훈 작달비 외 1편
기획1 작가조명	192	강방영 시인 연보	245 김광춘 관계의 추억 외 1편
강방영 시인			248 김병택 도브 코티지 외 1편
		주요 작품	252 김성수 제주서부두에서, 그 4월 외 1편
	203	천지연의 밤	254 김승범 가시버시 외 1편
	204	마음에서 뽑아내는 실	256 김용길 거울 앞에서 외 1편
	205	숲을 지나며	260 김원욱 지문 외 1편
	206	이승도 잘 모르고	263 김종호 너와 나 외 1편
	207	말없이	268 김창화 모슬포 들판 길을 가며 외 1편
	208	아름다운 순간	270 나기철 만나다 외 1편
	209	작은 네가	272 문무병 제주 칠석(七夕)날 외 1편
	210	은빛 목소리	276 문상금 목월과 자장면 외 1편
	211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	279 서정문 하논 외 1편
			282 양금희 그대 마음속의 평화 외 1편
			285 양문정 추사 적거지에 피다 외 1편

회원 작품	289	양전형 행원리의 봄 외 1편	소설.	355	박미윤 가까운 나무들
시.	292	윤봉택 눈 쌓이는 저녁 외 1편			
	294	이명혜 미늘 1 외 1편	기획2 예술의 향기	380	강법선 난(蘭)과 문학의 여정
	296	이소영 삼양 포구에서 외 1편			
	298	한천민 말오줌때 외 1편	작품집	406	영혼 깊은 곳에서 길어올린 그리움…
	302	홍창국 새벽 하늘에 외 1편	리뷰(Review)		나기철 시집『답록빛 물방울』/ 강정만
시조.	305	오영호 능소화 외 1편		410	동심에 제주 무지개를 띄워주는 작가
					김정희 동시집『할망바당 숨방귀』외 / 양전형
동시.	307	김섬 벨레기똥 외 1편	기획특집		오사카/ 김길호 소설가
	309	김정희 꽃자왈 외 1편	교포 문인을	430	작가 연보
	311	양순진 돌담 외 1편	찾아서		
	315	장승련 애기뿔소똥구리 알아가는 일 1 외 1편		434	대담
수필.	318	고길지 어머니			
	322	고연숙 숨 그네			
	327	김순신 보라색의 시간			
	331	정영자 돌아오지 않는 강			
	335	조옥순 무소유의 기쁨			
동화.	338	김란 눈사람 아빠			
	347	박재형 눈 내리는 날			

추모특집

서귀포의 서정, 한기팔 시인

한기팔 시인 연보

주요 작품

논문

김지연 한기팔 시의 생태적 지향

한기팔 시인을 추억한다

김원옥 바람 부는 곳에 그가 있다

나기철 그가 있는 남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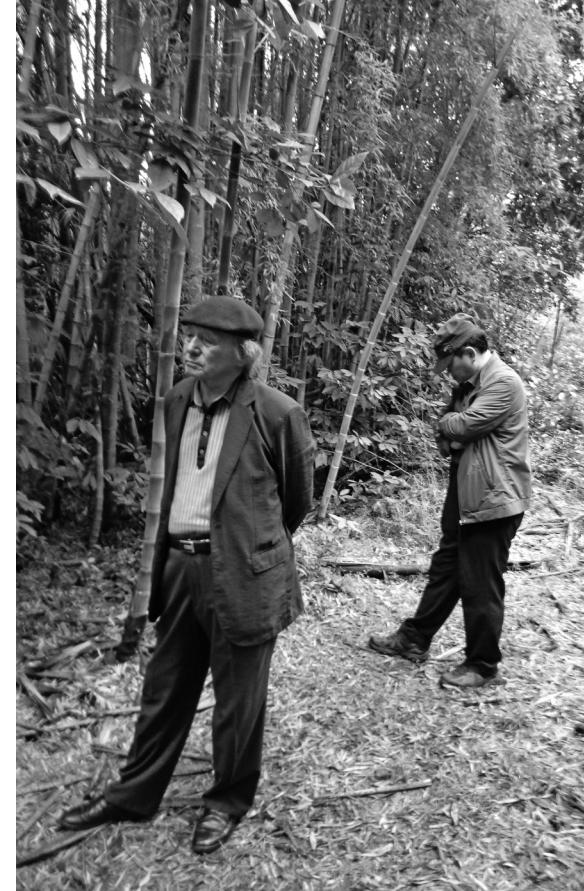
문상금 겨울삽화, 그 그리움의 끝

강정만 구두미 바다의 달빛과 시인









생애

1937. 6. 03. 서귀포시 보목마을에서 출생
 2023. 10. 03 영면

경력

1956. 서귀농림고등학교 졸업
 1957~1958. 서라벌예술대학 문예창작과 수학
 1975.1. 월간 시 전문지 『심상(心象)』으로 등단
 1975~1981. 예총 서귀포지부장
 1985~1989. (사)한국문인협회 제주도지회장
 1988~1991. 서귀포문학회 초대회장
 1992~1995. 한국예총 서귀포분회장
 1994~1997. (사)한국문인협회 서귀포지부 회장
 1996~2000. (사)한국예총 서귀포지부 회장
 2005~2010. (사)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이사
 2008~2009. (사)한국시인협회 이사

작품집

제1시집 『서귀포』 (1975, 심상)
 제2시집 『불을 지피며』 (1983, 심상)
 제3시집 『마라도』 (1988, 문학세계)
 제4시집 『풀잎소리 서러운 날』 (1994, 시와시학)
 제5시집 『바람의 초상』 (1999, 시와시학)
 제6시집 『말과 침묵 사이』 (2002, 모아드림)
 제7시집 『별의 방목』 (2008, 서정시학)
 제8시집 『순비기꽃』 (2013, 서정시학)
 제9시집 『섬 우화』 (2019, 황금알)
 제10시집 『겨울 삽화』 (2022, 황금알)
 시선집 『그 바다 숨비소리』 (2018, 제주문화예술재단)

수상

1984. 제주도문화상 예술부문 (제주도)
 1992. 서귀포시민상 문화예술부문 (서귀포시)
 2003. 제주문학상(제주문인협회)
 2014. 시인들이 뽑는 시인상(문학아카데미)

마당귀에

바람을 놓고

굴꽃

흐드러져

하얀 날

파도소리 들으며

긴 편지를 쓴다.

어떤 날은

들녘에서

먼바다의 물결소리

귀를 모우고 살았네라

나이가 들수록

온몸에 잔물결이 일어

헤아릴 일 헤아리지 못함으로

하나를 배워

열 개를 알아도

머리칼 하나 허공에 날려

마음만 아득하다.

우는 듯
웃는 들크
멀고 먼 바다
바람 앞에서
아침을 나는 새처럼
깨끗하게 날기 위하여

나는 나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그물을
바다에 펼친다.

해는 아직 머물러 있고
긴 그림자를 펴고 앉으면
멀리 희디흰 뼈 같은 울음 같은
팻말이 있는
공원묘지
항상 준비하는 그것만으로
이 지루한 세상에
위안처럼 구름이 떠 있는 날
그런 날

지상에는

몸 따로 마음 따로

내리는 눈

그 눈발 속을

부리가 고운

어린 새 한 마리가 포르르 날아와

양지쪽에 앉아

하얀 눈을 쪼고 있다.

입가에

아침 햇살이 물어 있다.

햇빛 고운 날

목련꽃 그늘에

늙은 아내와 앉으니

아내가 늙어서 예쁘다.

목련꽃 그늘 속

햇빛과 함께

간맹간댕 바람의 그네를 타는

늙은 아내가

더 꽂답다.

늘 서서 바라보고

다시 생각하고

흰구름

아득한 날

먼 지평地坪의 나무들은

원종일 바람을 안고 술렁이는데

한 생애生涯의 나른한

울림 같은 것

꽃잎 같은 것

그런 몸짓의 그리움으로

구름 몇 송이 지켜보며

오늘은

문득 당신에게 떠올

시 한 편을 생각해 봅니다.

나는 밤마다

바다 쪽으로 머리를 두고 잡니다.

그 아득한 곳에

수평선水平線 하나 그어 놓고

고요한 밤의 물소리 들릴 때까지

그대 잠속에 부서지는

물이 되어, 차오름이 되어

보다 깊은 곳의 소용돌이를 위해

나는 밤마다 꿈을 꾸듯

수평선 배고 잡니다.

서으로 가는 초저녁 눈썹달처럼은

추모특집 | 주요 작품

길 위에
물끄러미 서 있는
늙은 화나무 한 그루
바위 틈을 비집고
그 뿌리들이 하얗게 드러나 있다.

노을진 바람 쪽으로
더 깊게 뿌리내린
늙은 화나무는
그 쓸쓸함에
수평선 하나를 목에 걸고 있었다.

노을이 붉어지면서
그림자 길어지면
멀리 보이는 바다가 그리운지
가끔 불어오는 바람에
자기들을 치켜들어 보지만

서으로 가는 초저녁 눈썹달처럼은
가지 못하고
세상 밖으로 나았기에는
너무나 하이얀

흔들린다고

모두 바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꽃잎이 되는 것은 아니다

너와 나

너와 나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만한 거리

그 꽃 진 자리

만 갈래 흔들림으로

가 닿을 수 없는

바람결 하나

그 황홀한 흔들림만 남겨 놓았다.

김지연

1. 머리말

‘시’의 의미를 명확하게 단언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시’뿐만 아니라 ‘시인’ 역시 그러하다. 시의 의미를 어떻게 가늠하느냐에 따라 시인의 역할이 달라지고, 시인의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시의 해석이 달라지기도 한다. 그들은 고정된 프레임 속에 갇혀 있길 거부한 채, 명료치 않은 실체에 대해 집요하게 천착한다. 이런 의미에서 시와 시인은 집요한 천착의 대상으로서 서로를 완성시켜 나가는 상보적 존재들이기도 하다.

정적인 동시에 동적인 존재들. 시의 고요함은 언제나 들끓는 시인의 열정 위에 피어나기 마련이다. 한기팔은 이 정중동의 현현을 잘 보여준 시인 중 한 사람이다. 그는 1975년 1월 『심상』지에 「원경(遠景)」, 「노을1」, 「꽃」 등의 작품이 추천 완료되어 등단하였다. 그는 2023년 타

계하기까지 시집 9권과 시선집 1권을 출간하며 왕성한 창작활동을 하였다.¹⁾ 뿐만 아니라, 불모지와 다름없는 1970년대 서귀포 문단 개척과 후배 문학인 양성에 선형적 역할을 하였고, 1975년 예총 서귀포 지부장에서 2008년 (사)한국시인협회 이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직책을 역임하였다. 이 결과, 예술발전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1984년 제주도문화상(예술부문)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근래 들어 그에 대한 학문적 조명이 조금씩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그 시세계의 본격적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제주 문단에서의 상징적 위치와 공헌에도 불구하고 선행 논의들은 시집 해설을 통해 이루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다.²⁾ 그것들은 주로 그의 시에 드러나는 자연친화적 감수성과 시적 언어, 자연 대상에 대한 직관적 인식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다. 그 논의들에서는 그의 시세계가 자연을 작품 소재로 하여 자연친화적 정서를 드러낸다는 데 대해 대체로 공통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1) 그의 저서는 첫시집『서귀포』(심상사, 1978), 제2시집『불을 지피며』(심상사, 1983), 제3시집『마라도』(문학세계사, 1988), 제4시집『풀잎소리 서러운 날』(시와시학사, 1994), 제5시집『바람의 초상』(시와시학사, 1999), 제6시집『말과 침묵 사이』(모아드림, 2002), 제7시집『별의 방목』(서정시학, 2008), 제8시집『순비기꽃』(서정시학, 2013), 제9시집『섬, 우화』(황금알, 2019), 시선집『그 바다 숨비소리』(제주문화예술재단, 2019) 등이 있다.

2) 지금까지 발표된 한기팔 시의 논고는 다음과 같다.

김병택, 「직관 대상으로서의 자연」, 『제주 현대문학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5, 152~155쪽; 김신정, 「어둠에서 길어 올린 빛의 언어」, 한기팔, 『말과 침묵 사이』, 모아드림, 2002, 111~122쪽; 김용길, 「詩心 하나로 세상을 가는-한기팔 시인론」, 『제주문학』71집, 2017. 여름, 21~29쪽; 송상일, 「銀錢 한 니의 詩的 무게-한기팔론」, 한기팔, 『불을 지피

이러한 기존 논의들을 전제로 하여 본고에서는 한기팔 시의 자연 친화적 정서를 생태적 측면에서 살펴본 뒤 그 의의를 찾아나갈 것이다. 많은 저작물들 중 이글에서는『그 바다 숨비소리』(제주문화예술재단, 2019)로 연구 범위를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본문에서 논의될 내용은 첫째, 전일적 자연관, 둘째, 공(空)의 인식과 무집착, 셋째, 상생과 조화 등이다.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 한기팔 시에 드러난 생태적 지향을 조명하고자 한다.

2. 전일적(holistic) 자연관

작품 속에 등장하는 자연 존재들은 시인의 상상력을 유추케 하는 주요 단서가 된다. 한기팔 시에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가 자연을 소재로 하여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하였다는 점 또한 그 사실

며』, 심상사, 1983, 91~98쪽; 유시우, 「적막한 旅程'에 편 꽃의 의미」, 한기팔, 『풀잎소리 서러운 날』, 시와시학사, 1994, 105~114쪽; 윤재근, 「物心의 照應-한기팔 시인의 시세계」, 한기팔, 『서귀포』, 심상사, 1978, 95~101쪽; 이건청, 「감성적 언어와 화해의 정신-한기팔의 시세계」, 한기팔, 『마라도』, 문학세계사, 1988, 106~113쪽; 정한용, 「벽과 별 사이」, 한기팔, 『바람의 초상』, 시와시학사, 1999, 115~122쪽; 김지연, 「적확한 시어와 감각적 이미지의 혼합」, 『그 바다 숨비소리』, 제주문화예술재단, 2019, 420~437쪽; 김지연, 「한기팔 시의 화자양상과 그 의의」, 『영주어문』제41집, 영주어문화회, 2019. 2, 369~390쪽; 김지연, 「풍경 너머의 고즈넉한 말줄임표」, 『문학과창작』, 2020.봄호, 141~148쪽; 김지연, 「한기팔 시의 불교생태학적 특징 및 의의」, 『한국문학연구』제64집, 한국문학연구소, 2020. 12, 403~426쪽.

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작품에 형상화된 자연 이미지들은 시인의 내적 지향을 담지하고 있는 텍스트인 셈이다.

그런데 그의 시세계에서 시적 대상이 되는 자연은 인간중심적 세계관을 반영하는 ‘환경’ 개념과는 다르다. 그것은 오히려 박이문이 주장하는 ‘생태계’ 개념으로서 관계적 세계관을 반영한다.³⁾ 이 점에 주목하여 자연 이미지들에 투영된 시인의 관계론적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너와 나

나와 너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만한 거리

틈 사이에서 피어나는

꽃이거나 하고

그리움이거나 한다면

작파하고

이제 막 세상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몇 번이고 두리번거리는
애기사슴 눈빛 같은…

- 「한라산 설앵초」 전문

어려서는
파도소리 들으며 자랐다.
나이 들어서는
파도 소리 들으며 너를 생각했다.

나 이제

그 파도 소리 통째로 걷어
쓸쓸한 그리움 하나
피륙을 짜며 사느니
어느 바닷가 모래톱
순비기꽃 넝쿨 아래 혼자 늙는 바람처럼
살다 갈 것을 생각는다.

- 「순비기꽃 넝쿨 아래 혼자 늙는 바람처럼」 전문

3) ‘환경’이라는 개념이 구심적(centripetal)하거나 원심적(centrifugal)인 중심주의적 세계관을 나타낸다면, ‘생태계’라는 개념은 ‘관계적’이라고 이름붙일 수 있는 세계관을 반영한다.
(박이문, 『문명의 미래와 생태학적 세계관』, 당대, 1997, 72쪽)

인간중심적 세계관 속에서 자연 존재들은 ‘환경’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다. 그들은 타자화된 채 인간과의 상호적 관계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현대의 생태적 문제와 위기 상황들이란 본질적으로 ‘관계’의 문제로 수렴되는 성격을 지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라산 설앵초」에서 시인은 인간과 자연 대상의 관계성에 주목하

고 있다. 첫행에서 ‘나’와 ‘너’를 분리하는 가름의 의식은 ‘나’와 ‘나 아닌 것’을 구분하는 자기의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다.⁴⁾ 존재의 상호 관계성을 무시한 인간 중심의 근대문명은 자연 대상을 타자화할 뿐만 아니라 배제하고 차별하였다. 근대문명의 기계론적 가치관에 의해 그들은 내재적 가치를 잃어버린 채 도구적 가치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만다. 즉, “너와 나/ 나와 너/ 그렇게 생각했을 때”라는 의미는 타자화되고 분리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가리킨다. 이로 인해 그 사이에는 “그만한 거리”가 생겨나는 것이다. 하지만 시인은 그 ‘틈 사이’에서 ‘그리움’을 찾아내고 교감을 이어나간다. 그리움의 감정적 교감을 통해 ‘너와 나’의 거리는 줄어들고 타자화됐던 설胤초가 얘기사슴의 눈빛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생태의 위기는 곧 관계의 위기다. 타자화된 자연에서 관계의 위기를 직시한 시인은 위기 극복의 방안으로서 감정적 교감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곧 관계 개선의 새로운 성찰이다. 이 성찰은 「순비기꽃 넝쿨 아래 혼자 늙는 바람처럼」에 이르러 한층 더 진전된 방식으로 드러난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자연은 화자로부터 분리되고 타자화된 대상이 아니다. 화자는 파도소리를 들으며 성장했으며, 나이 들어서는 그것을 통해 사유한다. 뿐만 아니라 늙은 뒤 화자의 모습은 “순비기꽃 넝쿨 아래 혼자 늙는 바람”으로 묘사된다. 이렇게 모든 자연 대상들은 타자화된 거리를 버리고 화자와 일체화되어 간다. 그들 모두

분리된 타자가 아니라 상호의존하는 관계적 존재라는 인식이 내포돼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관에 바탕을 둔 인간과 자연의 관계성은 다음 작품들에서 새로운 관계 질서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산상(山上)의 나무들은
모두 산사를 향해 굽어 있다.
법당의 독경 소리에
귀가 자라
창공의 푸른 말씀도 다 겉우나니
나는 새가 그걸 알고
저만치 비껴가네.

- 「산사에서」 전문

삶은
경이로운 것

하늘이
너무 적막해서
꽃피는 일
하나가
온 섬을 밟힌다.

- 「원추리」 전문

4) 자기의식이란 ‘가름’의 의식, 나와 나 아닌 것의 구분을 함축한다(『주체란 무엇인가』, 17쪽)

어느 날 문득

방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하나 바라보다가

손바닥 골 진 데 올려놓으니

땅을 떠난

민들레 훌씨처럼 가벼워져서

내 영혼의 그림자로

이승을 건너는 백발.

나이를 먹으니

시간이 보인다.

시간의 잔뿌리가 보인다.

-「시간의 뿌리」전문

위에서 드러난 자연 존재들의 관계성은 심층생태학의 전일적(holistic) 자연관과 일맥상통한다. 전일적 자연관에서는 자연의 개별 요소들과 생명체들이 서로 유기적 관계를 이룬다 보고, 그들 모두가 내면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있는 '전체 장(total-field)'이라 파악한다.⁵⁾

「산사에서」에 등장하는 자연존재들 역시 생명체와 비생명체를 아우르며 서로 교감하는 유기적 존재들로 묘사된다. 그러기에 '산상의 나무들'은 '산사'를 향해 굽어 있다. '나무'라는 생명체와 '산사'라는 비

생명체의 교감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 나무들은 '법당의 독경 소리'에도 귀가 자라나 창공의 푸른 말ansom을 다 거둬들인다. 이렇게 '나무'와 '산사'와 '독경소리'로 이어지는 유기적 연대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나는 새'가 비껴가는 연쇄적 반동을 불러일으킨다. 이들은 생명체와 비생명체의 분별 없이 모두 전일적 세계 속에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인 셈이다.

「원추리」에서는 전일적 존재들의 상호 연관고리가 인연화합의 연기(緣起) 현상으로 표현된다.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들은 법계 연기의 그물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끊임없이 이어진다. 이것은 마치 화엄(華嚴)의 그물(인드라망) 원리와도 상통하는 것이다.⁶⁾ 그물 원리에 따라 "하늘이 너무 적막해서" 꽃을 피워내는 원추리꽃의 인연은 온 섬을 밝히는 생기(生起)를 초래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상호의존적 연기는 「시간의 뿌리」에 이르러 그 시공간적 범위가 무한대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화자의 시선에 들어온 '머리카락 하나'가 '민들레 훌씨'와의 상호조응 속에 그가벼움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여 '영혼의 그림자'를 이끌어낸다. 그리고 영혼의 그림자는 화자의 손바닥에 놓인 백발 한 가닥을 통해 이승을 건너는 시공간적 연계를 선보이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백발 한 가닥이 이승을 지나 피안으로 넘나드는 촉매이자 시간의 잔뿌리인 셈이다.

5) 프리초프 카프라, 김용정·김동광 옮김, 『생명의 그물』, 범양사, 2004, 20쪽 참고.

6) 화엄사상은 주체와 주체, 존재와 존재가 서로 개방되고(周遍) 서로 머금고(含容) 있는 세계의 실상을 인드라의 그물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법성, 『화엄경 보현행원품』, 큰수례, 1992, 93쪽 참고)

살펴본 것처럼, 시인이 바라보는 세계의 유기적 구조 속에는 인간과 자연, 생명체와 비생명체가 망라되어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확장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 유기적 구조의 바탕에는 전일적 자연관이 자리 잡고 있다. 그는 이 전일적 자연관을 통해 근대문명의 기계론적 가치관으로 인해 해체된 상호의존적 존재의 가치를 복원하고자 하였다. 전일적 자연관이야말로 생태 위기 극복의 근본적 해결책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3. 공(空)의 인식과 무집착

인간은 근대문명의 이성적 주체로서 ‘인간’과 ‘자연’의 이원론적 세계를 구축하여 자연존재들을 물질적 객체화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인식체계에 기반을 둘으로써 이의 추구를 목적으로 자연의 파괴와 착취를 정당화하였다. 자본주의의 가치 속에서 물질을 향한 인간의 탐욕이 끝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해 온 것이다. 이 때문에 선행 연구들에서는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야말로 세계가 당면한 생태 위기의 원인이라고 적시하곤 하였다.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볼 때, 한기팔이 작품 속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의 인식은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다. 인간 욕망의 문제를 진단하는 시인의 새로운 관점을 살펴보기로 하자.

버릴 것은
죄다 버리고 왔다.

물굽이를 건너며
바다에 두고 왔다.

여기는
솔동산 입구
알 것만 같은 사람들이 바람결처럼
무심히 지나간다.

고향이 아니어도
한 번은
오고 싶던 고향

눈을 감으면
기억에도 없는 한 사나이가
노을처럼 서서
바다를 보고 있다.

-「서귀포1」전문

이쯤에서 내려놓겠네.

너에게 보낸

마지막 엽서의 소인 같은

지는 해 바라보며

저만큼의 빛과

고요 속

그림자만을 세워두고

이쯤에서

나는 나를

가만히 하직하겠네.

-「방하심(放下心)」전문

주지하듯이 근대 물질문명의 기저가 된 철학은 주체 중심의 철학이다. ‘나’라는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모든 대상에 대한 분별(分別)이 생겨난다. 그리고 이것은 자아의 집착과 소유욕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불교사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삼라만상은 늘 변화하며 그 모든 것에는 ‘나’라고 할만한 실체성이 없다. 모든 존재에 실체가 없다는 것이 공의 인식이다. 이렇게 “공사상은 일종의 부정적 논리로서 인생의 문제는 우리 인식의 오류에서 발생”⁷⁾한다는 메시지를 내포하기도 한다.

「서귀포1」의 화자는 첫행에서 ‘버릴 것’을 화두로 제시하고 있다. 소유하거나 집착하고 싶은 것 대신, ‘버릴 것’을 전면에 부각시킨 화자에게서 무소유의 정신을 짐작게 된다. 그는 “버릴 것은 죄다 버리고 왔다”고 말한다. 그런데 ‘버릴 것’을 두고 온 장소가 다름 아닌 바다이다. 바다는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서 창조를 받쳐줄 뿐만 아니라 존재 이전의 회귀를 의미하므로 죽음과 재생을 모두 내포하는 상징성을 띤다.⁸⁾ 연기의 원리에 의해 생겨나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의 원천인 셈이다. 바다에 버릴 것을 모두 버리고 온 화자 앞에 “알 것만 같은 사람들이 바람결처럼” 지나간다. 상호의존적인 영향 관계 속에서 변화해가는 존재들, 그러기에 그들은 모두 ‘알 것만 같은 사람들’이며 ‘바람결처럼’ 한때의 인연화합에 의해 스쳐 지나가는 존재들이다. 이러한 연기의 실상으로 인해 공의 비실체성을 인식하게 된 화자는 “기억에도 없이” 사라져갈 한 사나이로서 저물어 바스라지는 노을 이미지로 변환되는 것이다.

노을로 묘상되는 화자의 이미지는 「방하심(放下心)」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방하심이란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는다는 의미다. 2연에서 화자는 지는 해 바라보며 빛과 고요 속에 그림자만 세워둔 채 스스로를 하직하겠다고 선언한다. 햇빛 아래서 모습을 드러냈다가 해가 지면 사라지는 그림자는 공의 비실체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자에 오

7) 최일범,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동양사상의 인간관」, 『양명학』 제27호, 2010.12, 51쪽.

8)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미지와 상징』, 까치, 2000, 165쪽 참조.

버랩되는 자신을 발견한 화자는 존재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된다. 또 한, 존재의 집착을 버림으로써 대상에 대한 집착과 욕망도 내려놓게 된다.

우는 듯

웃는 듯

멀고 먼 바다

바람 앞에서

아침을 나는 새처럼

깨끗하게 살기 위하여

나는 나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그물을

바다에 펼친다.

- 「마라도(馬羅道)」 전문

새가 날아가고

어느 일각(一角)에서

나뭇잎이 흔들렸다

모든 것은

세상을 향해 매달려 있다

현신(現身)하옵는

육신의 손도 하얗다.

- 「어느 일각(一角)에서」 전문

이마를 짚으니

앞산이 문득 가까워 보인다.

겨울 창가에서

내가 마시는 물

내가 마시는

한 모금의 청빈(淸貧)

비스듬히 앉아

자꾸 감기는 눈으로

창 밖을 본다.

인생은 일장춘몽이라는데

겨울 창가에서 내가 꾸는 꿈.

한 모금의 각혈(咯血).

- 「겨울 창가에서」 전문

「마라도(馬羅道)」에서는 방하심이 구체화되어 드러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첫행과 둘째 행에 표현된 바다의 모습이 흥미롭다. ‘멀고 먼 바다’에서 짐작되는 건 바다에 대한 거리감이다. 이것은 바다라는 대상이 타자화되어 있을 때 느껴지던 거리감이다. 하지만 공의 비실체성을 자각한 뒤, 화자는 멀고 먼 실제적 거리감 대신 바다로부터 정서적 동화를 경험하기에 이른다. 우는 듯 웃는 듯한 바다의 감정을 포착하고 교감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상호교감하는 자연 존재들을 욕망의 대상으로 삼거나 그들을 착취·파괴하지 않으려는 마음 자체로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화자가 바다에 펼치기 위해 스스로에게서 꺼내든 그물은 촘촘하고 튼튼한 그물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그물’이다. 이때, 아름답다는 형용사는 상호교감에서 비롯된 연기적 실상에 대한 깨달음을 내포한다. 이 깨달음 위에서 “깨끗하게 살기 위하여”라고 명명되는 무소유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깨끗한 무소유의 삶은 「어느 일각(一角)에서」에서도 잘 묘사되고 있다. 첫 행의 장면, 새가 날아가자 뒤이어 어느 일각에서 나뭇잎이 흔들린다는 것은 연기적 상호조응의 현상을 의미한다. 그 연기적 인연화합으로 인해 “현신(現身)하옵는 육신”이란 단지 화자 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현신하는 육신은 어느 일각마다 연기하는 모든 존재들을 가리킨다. 그들 모두가 인연화합하는 연기 속에 명멸하는 존재들이다. 이러한 비실체성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는 탐욕이 없으므로 그 육신의 손이 하얗게 비워지는 것이다.

「겨울 창가에서」화자는 삶을 반추하며 존재의 의미를 직시하고 있다. “이마를 짚으니 앞산이 문득 가까워 보인다”라는 철학적 성찰

과정을 통하여, “내가 마시는 물”마저 식탐의 대상이 아니라 “한 모금의 청빈”으로 전환된다. 여기서 그가 바라본 것은 ‘무한성으로서의 공’⁹⁾의 세계다. 단순한 무(無)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은 배태한 무, “실체 없음(空)은 의존적으로 있음(色)이며, 의존적으로 있음(色)이 곧 실체 없음(空)”¹⁰⁾이기 때문이다. 화자는 공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실체적 자아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린다. 그것은 비록 겨울 창가에서 꾸는 한 때의 꿈이지만, 한 모금의 각혈처럼 선명한 깨달음을 환기시킨다.

한기팔의 시는 인간의 과도한 욕망이 자아의 실체성을 믿는 인식 오류로부터 비롯된다는 걸 보여준다. 이 인식의 오류에서 탐진치(貪瞋癡)가 생겨나 환경파괴와 생태위기의 문제들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공의 세계를 마주함으로써 그가 얻은 무집착의 지혜는 당면한 환경과 생태의 문제를 바라보는 가치관의 근본적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4. 상생과 조화

사회생태론자들의 견해를 빌리면, 환경파괴와 생태위기는 인간사회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인간이 주체로서 객체를 지배해온

9) 석지현, 「선시의 세계」, 『석림』 제9집, 동국대 석림회, 1975.2, 411쪽.

10) 윤영해, 「자아 개념의 해체와 불교의 생태윤리」, 『환경철학』 6권, 한국환경철학회, 2007, 200쪽 참조.

구조적 문제로 인해, 고도의 위계사회일수록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착취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연 지배의 의미
속에는 인간 지배가 내포되어 있다.¹¹⁾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 방안으로 새로운 생태적 패러다임 전환을 이
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즉 과거의 인간중심적 가치로부터
생태중심적인 가치로의 전환, 생태적 윤리의 정립 등이 그것이다.¹²⁾

이 장에서는 현 시대에 요구되는 생태적 패러다임의 모습을 한기
팔 시세계를 통해 살펴보려 한다. 그의 작품에는 인간과 자연의 이분
화되고 불평등한 구조 대신 모든 자연 존재들이 적절히 어우러져 조
화를 이룬 유기적 세계가 형상화되고 있다. 그의 시세계에 드러나는
자연 존재들과의 상호의존적 관계성 회복과 상생의 조화를 통해 생태
적 칭사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눈썹달이 떠 있는

창문 밖에서

휙 바람이 불었다.

꽃잎이 날아왔다.

문밖은 온통 어두웠지만
펼쳐놓은 책상 위에서
활자보다 더 작은
달빛이
시끄럽게 초인종을 눌러댄다.
비양도에서 만난 바람이
갯매꽃 몇 송이 데리고 와서
여기저기 또
비양도를 만들고 있다.

-「비양도 그 갯매꽃」전문

마음 같으면 돌 하나에
이마를 고이고
면 세상 불빛이나 바라고 싶어라.

잘 보아라.
한 생명의 모든 근원과
모든 아픔이

돌 하나에 이마를 맞대고
면 하늘 별빛을 거두나니

어르고 다시 어르는 빛의
깨끗함

11) “자연 지배는 인간 지배를 포함한다. 모든 주체는 외적 자연, 즉 인간적이거나 비인간적인
외적 자연을 지배하는 데 가담할 뿐만 아니라, 이를 수행하기 위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자
연을 지배한다.”(막스 호르크하이머, 박규용 옮김, 『도구적 이성 비판』, 문예출판사, 2013,
126쪽)

12) 프리초프 카프라, 앞의 책, 25~30쪽 참조.

오늘 밤에

가장 밝은 별이 나를 다스린다.

-「불을 지피며1」전문

마당귀에

바람을 놓고

굴꽃

흐드러져

하얀 날

파도소리 들으며

긴 편지를 쓴다.

-「서귀포2」전문

‘지배’라는 인간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틀어보려면, 무엇보다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자연 존재의 가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거기에는 근대문명의 기계론적 환원주의에 따라 자연을 수단으로만 취급하는 도구적 가치가 내재돼 있다. 그러나 이것은 생태적 세계관 속에서 점차 내재적 가치 개념으로 대체되고 있다. 내재적 가치란 인간의 가치 평가와 상관없이 자연 그 자체에 들어 있는 고유한 가치를 말한다. 자연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그 내재적 가치에 의해 존중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견해다.

「비양도 그 갯메꽃」첫행, 눈썹달이 눈에 떴다. 초승달이나 그믐달 대신 ‘눈썹달’이라고 의인화된 묘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짐작할 수 있다. 인간중심적 세계관에서 평가 절하되었던 자연존재들에 대해 인간과 대등한 자격을 부여하려는 시도인 셈이다.¹³⁾ 눈썹달 외에도 이 작품에는 창문, 바람, 꽃잎, 책상, 달빛, 갯메꽃, 비양도 등이 등장한다. 그들은 모두 자연의 유기적 시스템 속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각각 저마다의 고유한 내재적 가치가 부여돼 있다. 흥미로운 것은 유기적 시스템 속의 구성원들이 ‘꽃잎, 갯메꽃’처럼 생명체에 국한되지 않고 ‘창문, 바람, 책상, 달빛, 비양도’ 등 비생명체까지 망라돼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개별적 행위의 주체로서 서로 행위의 영향을 주고받으며 ‘비양도’로 상징되는 생태적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다.

자연이 만들어낸 생태적 세계 속에 화자가 뛰어들어 상호조응하고 있는 모습이 「불을 지피며1」와 「서귀포2」에서 드러난다. 「비양도 그 갯메꽃」의 경우, 화자가 다소 관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면, 이 작품들에 이르러서는 화자가 직접 세계의 일부로서 자연 대상들과 호흡하고 있다. “가장 밝은 별이 나를 다스린다”라는 말은 화자 역시 그들로부터 벗어나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그들과 서로 영향관계 속에 놓여 있음을 천명하는 것이다.

「서귀포2」에 이르면 화자는 자연존재들과 어우러져 일체화된 풍경

13) 김지연, 「한국 현대 생태주의 시 연구」, 제주대박사학위논문, 2002, 48~49쪽 참조.

을 보여준다. 마당귀에 바람이 불어 굴꽃 흐드러지고, 굴꽃처럼 하얀
낮에 파도소리를 배경 삼아 화자는 편지를 쓴다. 바람과 굴꽃, 파도소
리, 편지 쓰는 화자 등 이들 모든 행위의 연기(緣起)가 물 흐르듯 자연
스럽게 연결되어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화자와 자연 존재들의
조화로운 어울림은 다음 작품들에서 능동적 생태윤리의 장으로 한 발
짝 더 나아가게 된다.

햇빛은 날마다
풀잎의 주위를 맴돌며
토양의 자궁에 씨앗을 묻어
봄을 경작하고

천 개의 낮과 밤을 지나
울림이 없는 발자국들이
밟고 오는 소리의 형적(形跡)으로
꽃은 피나니

세상이 온통 푸른 빛으로 되기까지
푸른 바람으로 되기까지
없는 사람 없는 대로
죄 안 짓고 살기에
너무 바쁘다.

-「봄의 경작(耕作)」전문

바람이 분다.
내가 겸허하게 바늘로 서서
이 세상 혜진 데를 입고 싶구나

-「바람이 부는 창1」전문

전일적 사고에 바탕을 둔 시인의 자연관은 그의 작품 속에서 생태
윤리로 자연스럽게 발현된다. 이것은 심층생태론의 ‘자아실현’과 유
사하다.¹⁴⁾ 네스(Arne Naess)는 개체적 인간이 우주만물과 하나 되는
생태의식에 다다르는 것을 가리켜 자아실현(Self-realization)이라 말했
다. 자아실현은 “유기적 전체(wholeness)로서의 자연에 자아가 자리 잡
는 과정이며, 자연과 하나가 됨으로써 우주와 호흡을 함께 하는 ‘큰 자
아’로 나아가는”¹⁵⁾ 길이기도 하다. 이 새로운 생태적 패러다임은 자연
과 조화를 이루는 우주만물의 상생을 소극적으로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전일적 세계의 구성원으로서 생태윤리적 측면의 적극적 대응을
보여준다. 이 적극적 대응의 주체가 곧 심층생태학의 ‘생태학적 자
아’¹⁶⁾인 셈이다. 위 작품들에서 생태학적 자아의 역할과 그 생태윤리

14) 자아실현은 생태적 윤리의 목적론적 방향을 인간 상호간의 관계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
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요나스(Hans Jonas)의 책임윤리와 유사하다(이진우,『녹색 사
유와 에코토피아』, 문예출판사, 1998, 23~45쪽 참고).

15) 박준건, 「생태적 세계관, 생명의 철학」, 조규익·정연정 엮음,『한국 생태문학 연구총서1』, 학
고방, 2011, 56쪽.

16) 생태학적 자아는 심층생태학의 자아개념으로서 이기적·개인적·인격적 자아 개념을 초월한
탈개체적 자아이다(프리초프 카프라, 앞의 책, 29~30쪽 참조)

를 살펴볼 수 있다.

「봄의 경작(耕作)」에 등장하는 모든 우주만물들은 모두가 전일적 세계의 주체적인 구성원으로서 활발히 경작에 참여하고 있다. 햇빛은 토양의 자궁에 씨앗을 묻어 밭아를 돌려하는 능동적인 주체이다. 햇빛 외에도 '울림이 없는 밭자국들'이 꽃의 개화 과정에 조력자로 참여 한다. 울림 없는 밭자국들이란 바람, 비, 꿀벌과 나비들일 것이다. 마지막 연에 이르면 화자의 역할도 드러난다. “세상이 온통 푸른 빛”으로 원시의 생명력을 되찾은 자연 속에서 화자는 자신의 능동적 역할이 “죄 안 짓고 살기”라고 말한다. 세계에 공존하는 자연 존재들은 도구적 가치의 대상이 아니라 내재적 가치의 동등한 구성원이다. 그들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구성원이므로 파괴와 착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죄 안 짓고 살기”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상호존중과 배려의 능동적 윤리다.

이어서 화자는 「바람이 부는 창1」에서 “바늘로 서서 이 세상 헤진 데를 입고 싶다”라고 강조한다. 파괴된 자연환경과 수단으로 전락한 자연 존재들을 진정한 상생의 동료로서 받아들이는 것. 화자는 자연생태계 속 ‘생태학적 자아’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다. 이 생태학적 자아는 대자연과 적극적으로 하나 되는 자아실현의 주체이다. 스스로 “바늘이 되어 헤진 세상을 기워나가는” 자아 실현의 자세야말로 조화로운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능동적 생태윤리인 것이다.

5. 맷음말

한기팔이 남긴 창작의 궤적보다 아름다운 건 오롯이 시를 향한 그의 열정이다. 그의 시는 언제나 고요하다. 그러나 그 고요함의 기저에는 끓는 열정이 들어 있다. 그러기에 그의 시를 가리켜 정중동의 현현’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그 바다 숨비소리』(제주문화예술재단, 2019)를 텍스트로 하여 한기팔 시의 자연친화적 정서를 생태적 측면에서 살피고 그 의의를 찾아보았다. 본문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인이 바라보는 세계의 유기적 구조 속에는 인간과 자연, 생명체와 비생명체가 망라되어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확장되는 특징을 보인다. 그 유기적 구조의 바탕에는 전일적 자연관이 자리 잡고 있다. 그는 이 전일적 자연관을 통해 근대문명의 기계론적 가치관으로 인해 해체된 상호의존적 존재의 가치를 복원하고자 하였다. 전일적 자연관이야말로 생태 위기 극복의 근본적 해결책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그의 시는 인간의 과도한 욕망이 자아의 실체성을 믿는 인식 오류로부터 비롯된다는 걸 보여준다. 이 인식의 오류에서 탐진치(貪瞋癡)가 생겨나 환경파괴와 생태위기의 문제들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공의 세계를 마주함으로써 그가 얻은 무집착의 지혜는 당면한 환경과 생태의 문제를 바라보는 가치관의 근본적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셋째, 시인은 자연생태계 속 ‘생태학적 자아’의 역할에 대해서도 작품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이 생태학적 자아는 대자연과 적극적으

로 하나되는 자아실현의 주체이다. 작품에 구현되듯, 화자 스스로 “바늘이 되어 해진 세상을 기워나가는” 자아실현의 자세가 바로 조화로운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능동적 생태윤리인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이 선행 연구들과 더불어 그의 시세계를 밝히는 데 일조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바람 부는 곳에 그가 있다

추모특집 | 한기팔 시인을 추억한다

- 한기팔

김원옥

2018년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제주원로예술가 회고 사업에 참여한 적 있다. 약 6개월, 길다고도 짧다고도 말하기 어려운 시간이었다. 그 기간 동안 처음으로 사석의 대화를 나누며 시인의 진면목을 목도하였다. 그는 투명했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드러내는 데 숨김없었다. 어쩌면, 내 인생의 ‘어른’을 만났다 여겼고 그 인연을 오래 이어갈 수 있을 거라 여겼었다.
총총히 떠나버린 시간의 아쉬움으로 그와 그의 시를 추억한다. 어른의 명복을 빈다.

김지연

서귀포 출생. 시인, 문학박사. 한라일보와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 필명 김규린으로 시집 『나는 식물성이다』, 『열꽃공희』를, 본명으로 『내가 키운 검은 나비도 아름다웠다』를 펴냄. 학술 서 『현대시의 생태론』, 논문 「이성선 “山詩”的 세계인식과 불교생태학적 의미」, 「젠더관점에서 바라본 강은교의 여성적 시쓰기」, 「에코페미니즘 시 연구」 외 다수.

1

까마귀만 깍 깍 울어대는

섶섶 앞

초가지봉 타고 흐르는 히어득 혼* 바람

바람 타고 왔으니 바람의 나라로 가는

미여지뱅뒤 건너 서천꽃밭

방목된 별 하나 깜박 놓치고 나서
여기 어딘고, 이…

김 시인, 자리물회나 먹으레* 가게!

2

바람 부는 곳에 그가 있다

흔들림과 흔들림 사이

송송 뚫린 돌담 사이

오름과 오름 사이 물감 번지듯

팔랑대는 억새,

서천꽃밭 오색꽃잎 흘날리듯

볼래낭개*가 무엇이라고

제지기오름이 무엇이라고

구두미포구

잘 우려낸 오뎅국물이 무엇이라고

소주잔 가득

텅 빈 달덩이, 한입에 들이켜고 나서

쉿삼 한 번 쳐다보고

입술 한 번 다시고

돛단배 넘실대는 물굽이 사이

수목화 그윽한 묵향처럼

탈탈거리는 무성영화 필름처럼

흔들림의 저쪽

한결음에 달려올 것만 같은,

휑한 시선이

자꾸만

서천 서역으로 기우는

하늬바람 타고 흘연히

바람의 나라로 떠난 그가 있다

* '히어狎흔'은 '잠깐 정신이 평 돌아 어지럽고 몽롱한'의 제주어

* '먹으레'는 '먹으러'의 제주어

* '볼래낭개'는 서귀포시 보목마을

김원숙

1993년 『예술세계』로 작품활동 시작. 시집 『노을에 들다』, 『누군가의 누군가는』, 『푸른 밭이 사라졌네』 외.

그가 있는 남쪽

추모특집 | 한기팔 시인을 추억한다

나기철

꽃

술에 젖어 다니던 스물세 살 어느 날, 서점에서 본『心象』지에 한기팔과 이진호라는 신인이 소개돼 있었다. 특히 한기팔 시인은 서귀포에 거주하고 있었다.

장순인 그는 어렸을 때부터 외롭게 자랐다. 혹 다칠까봐 집안 어른들이 어울려 놀지 못하게 했다. 자연히 혼자 있게 되었고 책을 가까이하게 됐다. 서라벌예대를 다니다 그만 두고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하기도 했는데 얼마 있다 제주로 내려온다. 그 후 줄곧 서귀포 부근에서 중학교 미술 교사로 지내다 정년퇴임을 한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오직 시에 가 있었다.

그와 함께 하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 그는 내가 아는 한 가장 시인다운 풍모의 시인이다. 그의 뜰의 꿀꽃 향 같은. 그의 시 ‘꽃’은 내

게 눈물을 준다. ‘-다’의 어미로 끝나는 이 짧은 시의 울림은 크다. ‘떨어져 다시는 오지 않는 것이 있다’의 반복은 나를 아득한 곳으로 데려간다. 슬프다.

한 열흘 쯤 서로 소식이 없으면 누구랄 것도 없이 전화다. 시인과는 십육 년 차이다. 스승도 형도 아닌 애매한 사이. 그러나 내겐 가친家親 같기도 하고 스승 같기도 하고 형 같기도 하다.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의논할 것 같다.

한 시인이 없는 서귀포는 생각할 수 없다. 아니, 그가 없는 ‘남쪽’은 생각할 수 없다. 아니, 그가 없는 ‘제주 섬’은 생각할 수 없다

바람처럼 햇살처럼

– 한기팔 시집 『섬, 우화寓話』

어느 산자락에서
몸을 풀던 바람이었을까.

어느 산골짜
옹달샘 가에서
몸을 말리던
눈 시린 햇살이었을까

한란寒蘭은
한라산의 꽃,

완당阮堂이 유배 와서
북창北窓에 두고 세한歲寒을 견디던 꽃.

물로 씻은 듯
깊고 고요하니
난蘭잎은
먼 허공에 휘어져
일필휘지筆揮一之 완당체阮堂體로
은한銀漢의 물소리를 그려내고 있다.

벙긋이 벙그는
아침 햇살에
몸을 기댄 채
꽃망울 먼저 부피
향기 그윽하니
오늘은
북천北天의 물소리
저 혼자 듣고 있다.

- 「한란寒蘭」 전문

‘제주산간에 대설경보’ 문자가 왔다. 4월에 웬 대설경보인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보니 한라산 머리가 갑자기 새하얘졌다.

다음 날 산 너머 한기팔 시인의 전화가 왔다. “4월인데, 한라산 이마가 훤헌하네….”

섬을 남북으로 가르는 한라산 너머 서귀포 시내에서 동쪽으로 조금 간 섬섬 앞 보목동에 그가 산다.

내가 제주대학 국문과 3학년이었던 1975년 가을, 미당未堂의 화갑 기념 전국순회 시화전이 제주관광호텔에서 열렸을 때, 처음 시인을 보았다. 박목월 시인이 창간한 『心象』에 신인 작품으로 소개된 시 ‘꽃’, ‘遠景’, ‘노을’은 깊고 아름다웠다.

‘둑 위에서/바람이/나뭇가지를 흔들고 있다.///흔들리는 가지 사이로/炎天의 바다가/갈대꽃을 날리고 있다.///갈대꽃/날아간/자리/보다 남은 불티 하나/꺼질 듯이/서쪽 하늘로/날고 있다.’(‘遠景’)

첫 작품에 나오는 ‘바람’이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출곧 나오고 있다. 바람 많은 섬의 시인이다. 젊었을 때 그의 역정도 바람 같았다. 80이 훌쩍 넘은 시인은 이제 ‘물로 씻은 듯 깊고 고요하니 먼 허공에 휘어져 일필휘지—筆揮之 기팔체箕八體로 은한銀漢의 물소리를 그려내고 있다.

제주에서 서귀포는 차로 한 시간이지만 이 섬에서는 먼 곳이다. 시인을 자주 못 봄다. 가끔 전화는 오가지만. 그러나 내 마음 속에는 늘 서정시인 한기팔 선생이 계신다. 이 섬, 산 너머 시인이 계시다는 게 내게는 큰 위안이자 힘이다. 다음의 출시.

못 넘는 산

구름 퍼지고

연립주택 창가

먼 불빛

돌아오지 않는

꽃

노을빛

遠景

그대,

西歸浦에서

불을 지피며

바라보는

마라도

- 「빈터, 그 노을- 한기풀 님께」

유복자로 태어났고 해녀인 어머니의 외아들로 자라서인지 그의 시
는 모성적이다. 간결하고 따듯하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원로 예술인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그의 시선

집이 나왔다, 첫시집 『西歸浦』(1978)에서 제9시집 『섬, 우화寓話』(2020)
까지 320편을 추렸다. 필자도 함께 참여했다.

시인은 한 달에 한 편쯤 시를 쓰는데, 시 한 편을 가지고 내내 머릿
속에서 굴린다. 그래서 일 년에 10여 편, 5년 내외로 시집을 내왔다.
그는 평생을 이렇게 늘 시를 머릿속에 굴리며 살아왔다. 그래 얼굴도
늘 평온하고 맑다. 40년 동안 나는 시인이 한 번도 크게 화를 내거나
자신을 내세우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는 늘 저 한란처럼, ‘어느 산자
락에서 몸을 풀던 바람’처럼, ‘어느 산골짜 옹달샘 가에서 몸을 말리던
눈 시린 햇살’처럼 서귀포 보목동 쇠섬 앞 파도 소리를 들으며 산다.

시인은 가끔 “시를 썼는데 어느 구절이 좀 걸린다”며 컴퓨터로 시
를 보내오기도 한다. 태어나서 줄곳 살아온 보목동의 밀감밭은 아들
에게 주고 내외가 이 마을 자그만 아파트로 옮겨온 지도 10년이 훨씬
넘었다. 이 전염병의 와중에서 시인은 어렸을 때가 생각났을 것이다.

‘창백한 눈썹달이/팽나무 가지 사이로/얼굴을 내밀면//상여가 떠
나가를 기다려/어머니는/몽당벗자루로/마당을 쓸었다//역병疫病
이 돌았다는 소문이었다./한무덤골 난실이/처녀귀신 되었다는/소
문이었다//상엿소리 아득히/마을을 떠나면/나 아프지 않아/동구
洞口 밖에 나가/장다리꽃만 분질러 놓고/애고 애고 울었더니라//
찔레꽃 따 먹으며/하얗게 하얗게 울었더니라’(‘역병疫病’ 전문)

시인을 뵤 지 꽤 됐다. 원욱 시인과 산 너머 시인 댁에 가서 오랜만
에 한잔해야겠다.

그가 있다

산 남쪽에서 이따금 오던 전화가 이젠 오지 않는다. 20대의 서울 살이만 빼곤 서귀포를 떠나지 않던 시인. 산북의 제주지도 낯설어 오면 서둘러 돌아가곤 했고, 서울은 그 후 서너 번이나 갔을까. 그의 첫 시집『西歸浦』(1978)를 펼친다. 시들이 다 짧다.

떨어져 다시는

오지 않는 것이 있다.

허구한 날

바람은 불고

모든 흔들리는 것들이

흔들리는 동안은

떨어져 다시는

오지 않는 것이 있다.

– 「꽃」전문

떨어져 다시는 오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그 꽃처럼 그도 가서 이젠 안 돌아온다. 산 너머 그가 꼭 있을 것만 같은데 그의 목소리는 안온다. 떨어져 다시는 오지 않는 것이 그인가. 2022년 4월 20일 이후

그의 목소리가 오지 않는다. 화구를 사리 차를 몰고 서귀포 시내를 가다 버스에 부딪혀 의식이 끊긴 후 1년 반 동안 누워 있다 훌연 가버린.

이제 그가 평생을 줄곧 살아온, 셋섬이 앞에 있고 제재기오름이 정겨운 서귀포시 보목동의, 오래 살던 감귤밭이 있는 집에서 내외가 옮겨와 살던 단출한 장안아파트 그 집은 사라졌다. 그가 가기 전 아내도 가 버렸다.

이제 구정 다음 날 30여 년을 출창 다니며 맛나게 먹던 사모님의 그 ‘떡국’도 사라졌다.

그리우면 훌로 와서

생각에 잠기던 날이

어제 같은데

너의 모습이

아른 아른 물그림자로 번져온다

외로우면

이 호숫가로 훌로 와서

무심히 굽어보던 날이

어제 같은데

작은 그리움 하나 나뭇잎 되어

물 위에 떠 있다

물에 비치다

떠가는 구름처럼
내 영혼의 물그림자
까닭도 없이 혼들릴 때

너로 하여
내 생각 맑아지듯
너로 하여
내 생각 차오르듯
고여서 흐르는 물빛이 난 좋아
너만을 생각하는 시간이 난 좋아

무심히 찾아와선
슬픔에 잠기던 날이
어제 같은데
오래 잊고 지내던 너의 모습이
흰 구름 되어 여럿여럿 내게로 온다.

– 「그리우면 홀로 와서」 전문

그가 그리도 그리워했던 건 무얼까. 누구일까. 무엇이 그리 그리워
그는 평생 거기서 시를 써 왔을까. 셋째 시집『마라도』(1988)는 오래 돼
곳곳에 면이 벌어진다. 그 후 나도 여기 자주 들어가 내 그리움을 삭
이곤 했다. 그의 시의 정점이다.

이제 그가 없다. 그런데 산 남쪽을 바라보니 그가 있다.

산등성이 남쪽
– 한기풀 시인을 보내며

마흔 여덟 해 전
가을
미당 화갑 시화전 때
제주관광호텔 로비에
바바리 휘날리며
시인과 나란히 들어서던
서른아홉
멋진 당신

그 후 당신은
제 시십의 한 견에
오롯이 자리했습니다

첫 시집 ‘서귀포’를 펼치며
왜 시가 이리 짧냐고
푸념도 했지만
제 시도 이제
짧아졌습니다

한라산 영실

전라도	여기 오랜
충청도	서정의
몽골 들판	커단 물길이셨습니다
오키나와	
러시아로	늘 바라보는
함께 한 시간마다	남쪽 창 앞
늘 시인의 향훈	광나무가 세차게
흠뻑 했습니다	흔들립니다

구정 다음 날	산등성이 남쪽
늘 가던 인사	어둑해졌다가
점점 사모님의 떡국 맛보러	다시 환해졌습니다
가는 듯도 하더니	환해졌습니다

덜컥,
서른여섯 번 후로
멈춰버렸습니다

팔십 넘어서도
자주 쓴 시를 보내시며
이 부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느냐며
고심하셨습니다

나기철

1987년 『시문학』으로 등단. 시집 『젤라의 꽃』『지금도 낭낭히』『담록빛 물방울』 외.

겨울삽화, 그 그리움의 끝

추모특집 | 한기팔 시인을 추억한다

문상금

프롤로그

흰 물새가 날고 집어등 불빛 환히 켜진 서귀포 칠십리, 그리움이 덕지덕지 걸린 바닷길이 눈부시게 펼쳐진다. 한기팔 시인은 아름답고 평화로운 바닷가 작은 마을 보목동에서 태어나 한평생 시를 쓰다가 작년 가을 깊고 푸른 하늘로 소풍을 떠나셨다.

만남과 등단

나는 1989년 한라문화제의 일환으로 시화전이 열린 서귀포 일호광장 찻집에서 선생님을 처음 뵙게 되었다. 이때 수필가인 전혜린의 작품에 흠뻑 심취해 있을 때 차를 마시며 노트에 시와 소설과 동화를

쓰기도 하고 편지나 일기 따위 글을 빼곡하게 채우기도 하였는데, 우연히 이를 본 선생님이 ‘시를 쓰는가?’라 물더니 시 다섯 편씩 묶어 보내라며 집 주소를 건네주셨다. 이후 몇 번의 답신이 오갔고, ‘시를 쓸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에 운명처럼 시쓰기를 하게 되었다. 매일 한 권의 시집을 정독하고 한 편의 습작시를 써나갔다.

“불안해하지 말고 마음껏 시를 쓰라. 기꺼이 맨 처음 독자가 되어 주겠다.”라고 하시는 선생님 말씀은 큰 격려가 되었다.

이후 제주문화협의 ‘제주신인문학상’을 수상하였고, 1992년 시 전문지 『심상』 신인상으로 등단하였을 때 “문 시인!”하고 부르며 제일 먼저 기뻐해 주시는 모습을 잊을 수 없다.

자리물회와 자장면

종종 몇몇 제자들과 섶섬이 바라다보이는 보목마을 초입에 앉아 채피잎 듬뿍 넣은 자리물회를 아주 삼아 소주를 마시면서, 때로는 소남머리 근처 박목월 시인이 좋아하셨던 자장면을 드시면서 “시퍼런 이십 대 초반 서울 생활, 뭐 수중에 돈이 있었겠나. 늘 배가 고팠지. 그래도 시는 꼭 쓰고 싶어서 시 몇 편 메모지에 꼬깃꼬깃 적어 원효로 박목월 시인 댁으로 찾아가면, 한 군! 밥은 먹었는가. 자장면이나 한 그릇 할까?” 하시며 자장면을 사주셨다는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시처럼 따뜻하고 자상한 목월 시인의 한 면을 엿보기도 하였다.

‘나는/흔들리는 저울대/시는/그것을 고누려는 추’ 박목월 시인의 ‘시’라는 작품의 한 부분을 여러 번 들려주시면서 항상 정진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글씨로도 큼지막하게 써주셔서 표구하여 잘 보이는 벽에 걸어두어 일상을 고누고 가늠하는 척도로 삼게 되었다.

마지막 시집 「겨울삽화」

자꾸만 구부정하고 흔들렸다, 굴꽃이 바람에 흔들려 한 잎 한 잎 떨어지듯, 나부끼듯, 마지막 봄을 보내는 것처럼 조바심으로 흔들렸다. 시집 교정을 마치고 출판사로 원고를 보내고 나서 “문 시인, 도와줘서 고맙다. 며칠 후 자장면이나 먹자.”라 하시며 흡족한 미소를 지으셨다. 그런데, 그 약속 지키지 못하고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다. 연락을 받고 응급실로 달려갔을 때 의식을 잃은 창백한 얼굴 위로 흰 굴꽃 잔향이 나풀나풀 떨어지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고 낙엽 지는 가을날 막내 따님의 전화를 받았다. “출판사에 보관되어 있는 원고를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었다. 나는 꼭 시집을 출간해야 한다고 말했고, 선생님의 마지막 시집 ‘겨울 삽화’는 해를 넘기기 전 발간되었다.

평생을 기고 걸어도
거기가 거기

내 비록
사슬에 묶여
하늘을 등지고 살아도
마음만은
하늘타리 꽃

바람 부는 곳을 향해 앓으면
꿈꾸면서
혜적거리기에는
우듬지가 길어서
슬픈 것이냐

물 한 모금
떠 마시고
하늘 한 번 쳐다보고
우는 듯 웃는 듯
어디론가
끊임없이 가고 있다.

- 「하늘타리」 전문

바람 부는 날, 하늘타리꽃은 지상에 뿌리를 둔 채로 마치 하늘을 사모하는 듯 한들한들 혜적거린다. 한평생을 기고 걸어도 거기가 거기인 절망의 상태로 시인은 슬픈 뒷모습을 보이며 어디론가 끊임없이

가고 있는 듯하다. ‘사슬에 묶여’라는 다소 완곡한 표현을 볼 때 시인의 삶은 현실 상황에 많이 억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는 듯 웃는 듯 끊임없이 가고 있다고 하였지만 그것은 오히려 떠나갈 수 없는, 이쪽도 저쪽도 아닌 경계에 서 있는 시인의 깊은 비애를 엿볼 수 있다.

햇빛이 닿으면

반짝 빛나고 마는

딱 한 번만

영원할 수 있다면

이슬로 치자면

아침 이슬

아아,

절망 같은 사랑

해봤으면…

-「이슬」전문

시인은 ‘절망 같은 사랑을 해봤으면’ 하고 노래하고 있다. 햇빛이 닿는 찰나 반짝 빛나며 사라질지라도 가장 빛나는 아침 이슬 같은 그런 순간이면서 또 영원한 사랑을 갈구하고 있다.

선생님은 하나의 소재를 접하게 되면 거의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서로써 마무리되기까지 그것에 매달려 악전고투한다며, 지극히 오랫동

안 신음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 가령 그 소재에 의해서 문득 첫 행이 생각나면 수첩에 적어 두고 오래도록 다음 행을 찾아 시적 에스프리(esprit)에 접근하려고 무단히 애를 쓸 수밖에 없었으며, 시의 소재란 시적 에스프리를 일깨우는 동기유발의 가장 원초적인 대상으로 소재의 빈곤은 시의 빈곤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아,

겨울 삽화로 걸린

얼굴뿐인

어머니

어머니!

-「겨울 삽화·1」부분

시인은 유복자였다, 해녀의 외아들이며 종손이었다, 엄한 할아버지 밑에서 어렸을 적부터 집안 대소사를 도맡아야 했다. 그래서 평생을 고향 보목마을을 떠날 수 없었다. 손수 병풍을 그려 제사와 명절을 지냈고, 심지어 본인 결혼식장도 자신의 그림으로 장식하였다. 훗날 미술교사를 하면서 화가로도 많은 작품을 남겼다.

시집(겨울삽화) 표지 그림에 등장하는 수건을 쓴 여자는 어머니이고, 그 등에 업힌 아기는 바로 시인 자신이다. 구순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어머니의 따뜻한 등에 업힌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며 그림을 그렸을 터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었지. 그 무렵 무슨 행사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제주대학의 문학백일장에서 당당히 우수작으로 내 시가 뽑힌 일이 있었어. 목월 선생께서 심사를 맡아보셨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 시의 길을 걷게 된 것 같아. 그 후 서라벌 예술대학 재학시절 목월 선생님과 미당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며 문학 청년들과 어울리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시에 빠져들었어.”라고 자주 말씀하셨다.

1960년대를 전후해서 청록파 시에 매료되었고, 특히 선이 가늘고 선명한 목월 풍의 가락과 동양적 선비풍인 지훈 시에 상당한 관심을 가졌다며, 목월의 가락이 피리나 단소의 가락이라면 지훈의 가락은 통소나 대금의 가락을 닮았다고 하셨다.

꽃으로 치자면
구절초

마디마다 그리는 마음
꽃으로 하여
꽃 속의
네가 보인다면

나는 이 가을

꽃 마중 나온
만 갈래 바람이리

-「목화」전문

‘겨울 삽화’ 시집뿐만 아니라 시인의 전체적인 시편들은 나름대로 직관적 체험을 시로 형상화하였고, 현상학적인 관념적 사고와 이미지가 잘 드러나 있다. ‘꽃’이라든지 ‘만 갈래의 바람’이라든지 무중력 상태의 서늘한 적막 같은 허무 의식이 보인다.

시신 없는 무덤을
아느냐

물질 갔다 죽어
찾지 못하면

바닷가 별바른 곳에
입던 옷 몇 가지 묻어
꽃이라면
순비기꽃 몇 포기 심어라

까마귀도 모르는
무덤

-「헛무덤」부분

비극적이고 아픈 체험을 바탕으로 한 제주적인 서정을 미적 범주
의 하나인 비장미(悲壯美)로 끌어올려 승화시키고 있는데, 천성 시인
일 수밖에 없는 그 섬세한 감성과 열의에 탄복할 뿐이다.

이 세상에 최초로 입었던 배냇저고리 같은 것
나를 감싸주고 품어주었던
흰 속살을 지닌 꽃들이

- 문상금 시 「흰 도라지꽃 바라보며」부분

에필로그

문병을 두 번 다녀왔다. 한 번은 나기철 시인과 동행하여 몇 장의
사진을 남겼다. 또 한 번은 혼자서 시선집 ‘그 바다 숨비소리’를 들고
가서 몇 편의 시를 읽어드렸다. “선생님은 시인이십니다. 그리고 이
시들은 직접 쓰셨던 시입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시인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눈물은 미처 토해내지 못
한 시흔처럼 흘러내렸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떡거
렸다. 그리곤 별 수 없었다. 코로나 사태로 가족 면회까지 금지되었다.

2023년 10월 3일 새벽, 전화벨이 울렸다. 파님의 전화였다.

“아버지께서 임종하셨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멀리 언덕 위에 흰 것들이 흔들린다

손수건 같은 것

속옷 같은 것

흰 것은

문상금

1992년 『심상』으로 등단. 시집 『겨울나무』, 『꽃에 미친女子』, 『첫사랑』 외.

구두미 바다의 달빛과 시인

추모특집 | 한기팔 시인을 추억한다

장정만

서귀포 볼목리(보목동) 섬섬 앞 ‘구두미’에서 바라본 보름 뒷날의 달도 보름달 못지않게 용자를 드러냈다. 오랜만에 보는 달과의 해우, 잊을만한 때에 슬며시 내민 그 얼굴이 반가웠다. 밤 9시 가까워 구름 사이로 “나를 보라”는 듯 훤히 자태, 바다 한가운데로 모아든 달빛의 신기, 또는 신성한 듯한 밤의 전율이 사방으로 흔든다. 마치 하늘이 가슴에 품었다가 조용하게 내어 뿐는 아우라를 나는 그곳에서 다른 사람이 볼까 가슴 조이며 그 오롯한 풍경을 훔쳐 나의 광에 소리 없이 넣었다.

여기서 내가 가슴 속 깊이 숨긴 그 ‘영혼’을, 이제 총총히 서산을 저만치 둔 두메 길을 지날 무렵이어도, 남아 있는 시간의 꼬리에 매달려 서라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다. ‘노욕 무한’이라고 하더라도 개의치 않겠다. 노추에는 이르지 않도록 애쓰는 자의 피곤하고, 간곡한 상상

이어도 좋다.

‘구두미’ 바닷가 카페에 앉았다. 사람들이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정겨운 풍경이 달빛에 반사된 바다의 물비늘에 앓는다. 여름의 더위를 피해 이곳을 찾은 사람들 일 것이다. 바다와 섬섬, 보름 하루를 지났으나 역시 보름달인 달빛에 사람들의 얼굴이 더위 속에서 오히려 모두 곱게 피어났다. 달빛에만 피는 어떤 꽃처럼 모두 밝다.

생전의 한기팔 시인은 이곳을 두루 찾았다고 한다. 그의 생가와 이곳 구두미는 가까워 생가를 출발해 구두미와 마을의 ‘구뜨라 동네’를 거쳐 집으로 돌아오는 데는 한 시간도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내가 그 옆집에 살았기 때문이다. 나는 유년과 소년 시절을 집 경계를 둘러싼 울담을 허물면 시인의 옆집 건너 옆, 옆집에 살았다.

시인의 지인들의 말을 따라 추상(追想)해 보면, 시인은 이곳을 아침 일찍 산책하면서 시상을 다듬었을 것이었다. 시인이 남긴 수많은 시가 바다와 섬이 줄곧 시인의 ‘세계’였다. 그의 시는 이 세계, 즉 ‘보목리’라는 한촌의 바다를 모태로 섬과 바닷새와 범선들이 고요함 속에서 ‘바삐 움직이는 시간’을 포착해낸 사유의 결정체가 아닐까.

시인의 시를 읽을 때마다 내면으로 들어와 둉지를 트는 고요하고 아득한 정서, 섬과 바다를 물새가 유영하다 그의 어깻죽지에서 날고,

파도가 바위를 치는 그 소리가 시인이 살았던 ‘우잣 있는 집’으로 전달됐던 풍경이 이내 상상된다. 그 질곡의 한 시대를 거치면서도 좋은 시를 써냈던 것은 아무래도 시와 문학에 대한 ‘열정’이라는 무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가 애써 파놓은 시의 우물을 곁눈질하면서 시인의 품을 이제와 돌아보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나의 시선이다.

혼자 걸어서 외롭지 않구나/ 이 바닷가// 흙바람 이는/노을 속/ 벼
려진 풍경(風景)들 속으로/ 아주 면 곳으로// 가물가물 가물가물/
떴다 갈았았다// 하얀 파도위/범선(帆船) 몇 척// 하늘이 너무 멀다
-〈바닷가에서 3〉,『한기팔 시선집』,「그바다 숨비소리」139쪽

시인의 시집을 헤치면서 다급했던 나는 이 시가 ‘구두미’에서 착상한 것일 수도 있다는 혐의를 뒀다. 그 혐의를 증명해 내기 위해 나는 시인의 시집을 몇 번이고 다시 펴면서 ‘구두미’라는 고유명사가 탈락(?)된 이유를 따졌다. 왜 바로 셋섬을 마주한 구두미 포구에 대한 시가 없느냐, 말이다. 이런 나의 단식은 저 시를 찾아내고 비로소 깊은 들숨으로 바뀌었다. ‘구두미’는 행간 속에 시인이 그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보일라, 꼭꼭 숨겨뒀을 것이라는 발견에 이르러서 안도한 것이다.

이런 나의 주장이 허무맹랑한 것이어도, 적어도 나는 저 시가 구두미와는 근친일 수 있다는 장담을 해두는 것이다. 그러고는 저 밤, 내가 본 달과 바다에 비친 달빛, 섬과 선착장을 시인이 봤다면 그의 시

가 어떻게 절창 됐을지를 묵상할 수 있었다.

아마도 말이다. 그 저녁의 달빛을 시인이 봤다면 셋섬을 친구삼아 뜯어 달빛이 비친 바다와 포구의 선착장을 보면서 축언을 남기고, 만년 필과 원고지를 꺼내서 이렇게 썼을 수도 있다. “구두미가 있었구나, 구두미가…” 하고.

시인은 마침내 바다를 삼켜 드리낸 유월 보름을 하루 지난 열엿새의 달빛이 셋섬과 나란히 한채 못 속중(俗衆)의 번뇌를 삭이며 존재하는 저 풍경을 페이소스로 밝혀냈을 것이었다. 시인 생전의 눈빛은 그래서 세상의 슬픔을 빨아들이고 연민을 품어있는 듯했다. 이 여름 밤 틈을 탄 나의 주책없는 상념들이 ‘공허’의 부대를 이끌고 들락거린다.

강정만/기자

서귀포 보목에서 출생하였으며, 1976년부터 40여 년을 언론에 종사하였다. 저서로 에세이집 『만각과 자탄』(2022, 도서출판 좋은땅)이 있다.



해외 문학 소개

세계의 시인

리쿠이센 성산 일출봉
린성빈 단수이 강의 반영
스캇 토머스 아웃러 정의(定義)를 초월하는
파비오 테스칼지 불빛의 혼적
안젤라 코스타 뺑 한 조각
앨리슨 그레이히스트 무엇인가
마리엘라 코르데로 아무것도 네 몸을 알지 못했어
에바 페트로포울로우 리아누 그는 성공할지니
마키 스타필드 환영의 그림자
타그흐리드 보우메르히 밤의 언저리에서 혼자

베트남 시인

쯔엉 티 눈 그리고 나는 꿈을 꾼다
쩐 티 르우 리 헛살이 부르는 이름
옹우옌 딘 땜 밤새 달이 뜨길 기다리다
부 쫑 타이 박항서
선 투이 남이섬
쩐 쫑 또안 제주도(濟州道)

세계의시//원문, 영역, 한역
베트남 시//원문, 한역



리쿠이센(李魁賢; Lee Kuei-shien) 시인은 1937년 타이베이에서 출신으로 대만 ‘국가문화예술기금회이사장(國家文化藝術基金會董事長)’을 역임하였고 현재 2005년 칠레에서 설립된 Movimiento Poetas del Mundo의 부회장이다. 그는 2002년, 2004년, 2006년도에 인도 국제 시인 아카데미 (International Poets Academy of India)의 노벨 문학상 후보로 지명되었다. 그는 대만어로 28권의 시집을 발간하였으며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시집을 포함하여 60권의 시집을 발간하였으며 그의 작품들은 일본, 한국, 캐나다, 뉴질랜드, 네덜란드,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인도, 그리스, 리투아니아, 미국, 스페인, 브라질, 몽고, 러시아, 쿠바, 칠레, 폴란드, 니카라과, 방글라데시,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코소보, 터키, 포르투갈,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멕시코, 콜롬비아 등에서 번역되었다. 영역된 작품들은 “Love is my Faith”(愛是我的信仰), “Beauty of Tenderness”(溫柔的美感), “Between Islands”(島與島之間),

성산 일출봉 한국 제주도

대만, 리쿠이센(李魁賢;Lee Kuei-shien) 시인

“The Hour of Twilight”(黃昏時刻), “20 Love Poems to Chile”(給智利的情詩20首), “Existence or Non-existence”(存在或不存在), “Response”(感應), “Sculpture & Poetry”(彫塑詩集), “Two Strings”(兩弦), “Sunrise and Sunset”(日出日落) and “Selected Poems by Lee Kuei-shien”(李魁賢英詩選集)등이 있으며 한국어 번역본은 2016년에 발간된 “노을이 질 때(黃昏時刻)”와 2024년에 발간된 제16시집 “台灣意象集(대만의 형상)”이 있다. 이 시집의 추천사는 전제주국제대학교 특임교수인 양금희 시인과 한국시문학문인회 회장인 김남권 시인이 썼으며 시계간지 ‘상징학연구소’ 편집발행인인 변의수 평론가가 평설을 썼으며 한국어 번역은 한국평화협력연구원 부원장인 강병철 박사가 맡았다.

리쿠이센 시인은 한국, 몽고, 인도, 방글라데시, 마케도니아, 페루,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등에서 국제문학상을 받았다.

城山日出峰

해외문학소개 | 세계의 시

—韓國濟州島

李魁賢

有一個聲音
在呼喚我
年過半百已經沒有
征服的雄心了吧
我一步一步
往上爬
數著自己的心跳
和計時器一樣
到了半山腰
濟州島的翁仲石
擎天的巨石
佝著背
坐在斜坡望海
沈思著
海女能撿到遠方的戀女
眼淚化成的真珠嗎
儘管
身體逐漸風化
還是要等

等到那一天嗎
我就隨著
呼喚的聲音
一步一步
往上爬
到峰
頂
火山的門關著
一大片牧場
太陽早已出去流浪

1986.09.19

Seongsan Sunrise Peak

- Jeju Island, South Korea

By Lee Kuei-shien

There was a voice
calling for me,
“You are over fifty years old,
haven’t enough ambition to conquer?”

I climbed up
step by step
counting my heartbeats
like a timer.

On the halfway up the mountain
the giant rock statues,
so called noble stone guards,
sit hunchbacked
on the slope looking over the sea
in meditation.

“Can female divers pick up the pearls turned out to be
the tears from distant girls in love?”

Although
their bodies have been gradually weathering,
yet have to wait,

waiting for that day to come?
I followed
the voice of calling
to climb up
step by step
to the mountain
peak.
A large pasture is closed
inside the door of the volcano.
The sun has early gone out to wander.

1986.09.19.

성산 일출봉

- 한국 제주도

리쿠이센(*Lee Kuei-shien*)

목소리가 들렸지
내게 말하는,
“너는 순 살이 넘었지만.
정복할 야망이 충분하지 않아?”
나는 올라갔어.
한 걸음 한 걸음
내 심장박동수를 세는
타이머처럼.
봉우리 중턱에서
거대한 바위 조각상이 있었지,
소위 고귀한 돌 조각상,
구부리고 앉았지!
바다가 보이는 경사면에서
명상 중.
“해녀들이 진주를 주울 수 있을까?
사랑에 빠진 먼 소녀들의 눈물?”
하지만
그들의 몸은 점차 풍화되고
아직 기다려야 한다,

그날이 오기를 기다려야 하나?
나는 귀를 기울였지
내게 들리는 소리에
 올라가라
 한 걸음씩
 봉우리 위로
 정상.
 넓은 목초지가 둘러싸여 있었지.
 분화구의 문 안쪽에.
 태양은 돌아다니기 위해 일찍 나갔지.

한역: 양금희(tr. by Yang Geum-Hee)



린성빈(LIN Sheng-Bin, 林盛彬) 시인은 1957년 대만 원린(雲林/Yunlin)에서 태어났으며 현재 신베이시(新北市) 단수이(淡水)에 거주하고 있다. 그는 스페인 마드리드 국립대학교(Complutense University of Madrid)에서 스페인 문학 박사 학위를, 대만 최고의 사립대학인 담강대학교(Tamkang University)에서 중국 문학으로, 파리소르본대학(Paris IV-Sorbonne University)에서 예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그는 Li Poetry(1964년에 창간된 격월 잡지)의 편집장을 역임하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그는 파리 IV 대학, 파리 소르본 극동 연구 센터(Université de Paris IV, Centre de Recherche sur l'Extrême-Orient de Paris Sorbonne)의 객원 교수로 재직했다. 그는 *The War* (1988), *The Family Genealogy* (1991), *The Wind blows from my deep heart* (2002), *Anthology of Poetry by Lin Sheng-Bin* (2010), *Contemplation and Meditation* (2010), *Blowing wind and Beating heart* (2012) 등의 작품집을 출간했다.

단수이 강의 번역

대만, 린성빈(LIN Sheng-Bin, 林盛彬) 시인

淡水河的倒影

해외문학소개 | 세계의 시

林盛彬

坐在妳的河岸

千萬張的魚嘴巴在河面張口
說捉摸不定的山雲
說只有含糊承諾的水波

走在妳的河岸

千萬隻的眼睛在水中凝視
一住就是千年的相思樹

那些走走坐坐的戀人

一次性的相遇
無止境的遺忘

淡水河的倒影

每天睜開眼睛
每天張開嘴巴
沒有人記得

Reflection of the Tamsui River

By LIN Sheng-Bin

I sit on your bank
Listening to thousands of fish mouths opening on the river
They are discussing the unpredictable mountain clouds
Talking about water waves, as there are only vague promise

I walk on your river bank
Watching thousands of eyes staring at the water
Those acacia trees that have lived here for hundreds of years

Lovers who walk and sit
a one-time encounter with the river
endlessly forget about it

Reflection of the Tamsui River
always opens its eyes
opens his mouth every moment
While no one remember it eventually

단수이 강의 반영

린성빈(LIN Sheng-Bin)

너의 강둑에 앉아
강에서 수천의 물고기 이야기를 듣네
예측할 수 없는 산 구름과
막연한 약속을 하는 파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는 너의 강둑을 걷지
수천 개의 눈이 물을 응시하네
이곳의 아카시아들은 수백 년이 되었지

걷고 앉는 연인
한 번의 만남
끝없는 망각

단수이강의 반영(反映)
매일 눈을 떠
매일 입을 벌려
결국에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네

한역: 강병철(tr. by Kang Byeong-cheol)



스캇 토머스 아웃러(Scott Thomas Outlar) 시인은 미국 조지 아주 애틀랜타 출신으로 현재는 메릴랜드주 프레더릭에 거주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Pushcart Prize와 Best of the Net에 여러 번 후보로 올라갔다. CultureCult Press에서 출판한 Hope Anthology of Poetry와 Setu Mag의 2019-2023 Western Voices 판에서 초빙편집자를 역임했다. 그는 2015년에 출간된 Songs of a Dissident, 2018년에 출간된 Abstract Visions of Light, 2019년에 출간된 Of Sand and Sugar, 그리고 공동 저자 Mihaela Melnic과 함께 쓴 2021년 출간작 Evermore을 비롯해 총 7권의 책을 출판했다. 그의 시 중 일부는 14개 국어로 번역돼 출판됐다. 그는 지난 8년 반 동안 Dissident Voice에 매주 기고하고 있다.

정의(定義)를 초월하는

미국, 스캇 토머스 아웃러(Scott Thomas Outlar) 시인

Transcending Definitions

해외문학소개 | 세계의 시

By Scott Thomas Outlar

Art is not an institution...
it is an inner fire
born out of those
whose eyes pierce deeply
into hidden burning beauty.

Art is not a class taught by Academia...
it is a holy vibration
pulsing through the veins
of those who sense the truth
of this world's perfect purity.

Art is not a transaction...
it is a soulful expression
that has no choice
but to be released
as a reflection of the Source.
Art is not a sales pitch...

정의(定義)를 초월하는

스캇 토머스 아울러(Scott Thomas Outlar)

it is an intense emotion
coupled with a vision
of crystalline transcendence
that ruptures open new dimensions.

예술은 제도가 아니고…
그것은 숨겨진 불타는 아름다움을
깊게 파고드는 이들의
내면의 불길에서 태어난다.

Art is not yet ready for the grave…
it is a raging protest
against the mortal flesh
that sings the sweetest melody
about overcoming life's suffer

예술은 학계에서 가르치는 수업이 아니고…
그것은 이 세상의
완벽한 순수함을 느끼는 이들의
정신적인 공명이다.

예술은 거래가 아니고…
그것은 원천의 반영으로서
분출될 수밖에 없는
감성의 표현이다.

예술은 판매 광고가 아니고…
그것은 결정적인 초월의 이상과 함께하는
새로운 차원을 여는 강렬한 감정 파열이다.

불빛의 흔적



예술은 아직 무덤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그것은 죽어가는 육체에 대한 격렬한 반발로서
인생의 고통을 이겨내는 가장 달콤한 곡조를 불러낸다.

파비오 데스칼지(Fabio Descalzi) 시인은 1968년 몬테비데오에서 출생하였고 번역가, 교사, 블로거, 작가이자 건축가이다. 그는 문화적, 언어적 상호작용의 삶을 살았다. 그는 2010년 소설가 클라우디아 아멘구알(Claudia Amengual)과 함께 글쓰기 수업을 들으면서 문학에 대한 소명을 확인했다. 그는 또한 Seth Michelson과 Martín Otegui의 학생이기도 했다. 그의 텍스트 제작은 문학 간, 사실주의 및 청소년 주제가 특징이다. 그의 시와 이야기 중 일부는 선집으로 출판되었다. 2017년에 그는 그의 첫 번째 소설집인 *Amigos orientales*를 출판했다. 2020년에는 ‘무서운 호랑이 세 마리(Three Terrible Tigers)’를 출간하였다. 그는 문학 집단인 Letras y Poesía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SAU, AUPE, AIPTI의 파트너이자 Yvy Marae'ý 재단의 명예 회원이다.

한역: 강병철(tr. by Kang Byeong-cheol)

By Fabio Descalzi

Una misteriosa luz roja
seduces a los paseantes
que, ante la fachada del bar,
pasean como navegantes.

Maravillosa luz blanca
ilumina a los presentes
que, ante las mesas del bar,
asombran con sus mentes.

Es la magia del crear,
azuzados por una doncella
que cautiva con voz y letras.

En las mesas flota un ser
que deja una estela al hacer
a las letras salir a pasear.

A mysterious red light
seduces passers-by
who stroll like sailors
in front of the façade.

A wonderful white light
illuminates those present
who astonish with their minds
seated at the bar tables.

It is the magic of creating,
spurred on by a maiden
who charms with voice and letters.

On the tables float a being
that leaves a trail when taking
those letters for a stroll.

By Fabio Descalzi

빵 한 조각



불빛의 흔적

파비오 데스칼지(Fabio Descalzi)

신비한 붉은 불빛이

행인을 유혹하네

행인은 선원처럼 걸으며

바 앞을 지나가지

멋진 하얀 빛이

그들의 존재를 밝게 비추고

그들의 마음은 놀라고 있어

바 테이블에 앉아서.

그건 창조의 마법이야,

여자의 자극으로 생긴

그녀의 목소리와 가사의 매력.

테이블 위에 떠다니는 존재

그건 흔적을 남기지

그 가사들이 떠돌 때

한역: 강병철(tr. by Kang Byeong-cheol)

안젤라 코스타(Angela Kosta) 시인은 알바니아의 엘바산(Elbasan)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이탈리아와 모국인 알바니아에서 출판된 다양한 소설, 시집, 동화의 저자이다. 그녀는 1995년부터 이탈리아에서 살고 있다. 그녀는 번역가, 시인, 작가, 홍보 담당자이자 Albania Press 신문의 부편집장이다. 그녀는 칼라브리아 라이브 신문(Calabria Live News-paper)에 기사를 쓰고, 예술과 문화의 세계 국제 비월 잡지 "Le Muse"를 위해 이탈리아 시인들의 시를 알바니아어로 번역하고, 이탈리아 알바니아 신문 "Le Radici-Roots"에서 이탈리아 역사가와 학자 및 알바니아 학자의 다양한 기사를 번역한다. 국제 문학 잡지 "Saturno Magazine"에 글을 쓰고 있으며 알바니아 신문 "Gazeta Destinacioni", Alb - Spirit, Word, Approach과 잡지 "Orfeu - Pristina" 등에 기사와 시를 쓰고 있다.

By Angela Kosta

Një copë kothere për t'u ushqyer
për të shuar urinë e kushedi prej sa orëve
shoqëruese e jetës
që ulërin ekzistencën e mjerë
e ndaluar tek pamja e përhumbur nëpër kohëra
të zhdukura nga fati mizor për të lindur.

Kush e ka fajin për të gjithë këtë?

Çfarë faji kam unë vetë?

Mos vallë nuk ishim të dëshiruar nga Zoti?

Mos vallë kishim ardhur në botën e gabuar?

Uri famëkeqe moskokëcarëse
që zhdukesh në bollëkun e mirazhit
që të gjëzohemi në fukarallëk.

Sa do doja mes reve të isha
me ajrin e universit të tejngopesha.

Të ngrohesha në diellin kaq të largët
për të mos parë gjakun e mpiksur
për të mos ndjerë rrahjet e dobëta
të zemrës së vëllezërve të mi

të zbehtë, me buzë të çara
si tokë nën këmbët e tyre.
Kothere buke mos u shkërmiq!
Ku është Krishti për të të shumuar?
Nuk kam ç'përgjigje vetes t'i jap
përveçse kësaj copë kothereje
që nuk e di nëse kam të drejtë ta kapërdij.

A Piece of Bread

By Angela Kosta

A piece of bread
To fill your stomach
For day and night;
Life Partner,
Who screams miserable existence,
Wait, just wait,
It will end in a short time!
To be born
Defeated by cruel fate
Whose fault is all this?
Am I guilty of myself?
Were we unwanted by God?
Have we come to the wrong world?
I want,
indomitable appetite, carelessness
disappear in abundance
To make us rejoice in Inopia;
I wish,
I live in the clouds and fill yourself with air in the universe,

Till now the heat is rising from the sun
Don't feel the frozen blood,
My brothers' faint heartbeats,
Pale,
Cracked lips,
Like the ground beneath your feet;
Piece of bread,
Don't fall apart!
Where is Jesus who multiplied you?
No answer!
All I have except this piece of bread is
The wealth of my days!

빵 한 조각

안젤라 코스타(Angela Kosta)

낮과 밤 동안;
인생의 동반자,
비참한 존재를 외치는 사람,
잠깐, 잠깐만요
짧은 시간 안에 끝나겠습니다!

태어나
잔혹한 운명에 패배하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나 자신에게 죄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원치 않는 존재였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세상에 온 걸까요?

나는 원해요,
불굴의 식욕, 부주의
풍요 속에서 사라지길
궁핍 속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려고;
나는 원해요,
나는 구름 속에 살며 우주의 공기로 몸을 채우고
지금까지도 태양으로부터 열기가 솟아오르고 있어요
얼어붙은 피를 느끼지 마세요.

형제들의 희미한 심장박동,
창백한,
갈라진 입술,
당신 발밑의 땅처럼;
빵 조각,
무너지지 마세요!
당신을 변성하게 하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대답이 없습니다!
이 빵 한 조각 빼고 내가 가진 건
내 시대의 부유함!

한역: 강병철(tr. by Kang Byeong-cheol)



무엇인가

캐나다, 앤리슨 그레이허스트(Allison Grayhurst)시인

앨리슨 그레이허스트(Allison Grayhurst)시인은 캐나다 시인 연맹의 회원으로 그녀는 가족과 함께 토론토에 거주하고 있다. 그녀의 시 중 4편은 2015/2018년 “Best of the Net” 후보에 올랐으며 ‘Best of the Net’에 5번 지명되었으며 525개 이상의 국제 잡지에 1375편 이상의 시를 발표했다. 그녀는 시집 25권과 챕북 6권을 출간했다. 그녀는 또한 점토 조각 작업도 한다.

2018년 그녀의 저서 *Sight at Zero*는 CBC의 “Your Ultimate Canadian Poetry List”에서 34위에 올랐다. 2020년에는 그녀의 작품이 중국어로 번역되어 『계간국제번역』과 『시의 전당』에 게재되었다.

그녀의 저서 *Somewhere Falling*은 1995년 밴쿠버의 Beach Holme 출판사(Porception Book)에서 출판되었다. 그 이후로 그녀는 Edge Unlimited Publishing에서 21권의 각종 서적과 12권의 시집을 출판했다. *Somewhere Falling*이 출판되기 전에

그녀는 시집 *Common Dream*을 출판했고 The Plowman에서 4권의 챕북을 출판했다. 그녀의 시집 *The River is Blind*는 2012년 12월 Ottawa 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 2014년에 그녀의 챕북 *Surrogate Dharma*는 Kind of a Hurricane Press, Barometric Pressures Author Series에서 출판되었다. 2015년에 그녀의 저서 *No Raft - No Ocean*이 Scars Publications에서 출판되었다. 또한 그녀의 책 *Make the Wind*은 Scars Publications에서 2016년에 출판되었다. 또한 그녀의 저서 *Trial and Witness - 선정된 시는 Creative Talents Unleashed(CTU Publishing Group)*에서 2016년에 출판되었다. 최근에는 그녀의 책 *Tadpoles Find the Sun*이 2020년 8월 Cyberwit에서 출판되었다.

밴쿠버에 기반을 둔 가수/송라이터/뮤지션인 Diane Barbarash는 Allison Grayhurst와 가사 작업을 협력하여 Allison Grayhurst의 시 중 8편을 노래로 개작하여 2017년에 출시된 *River - Songs from the poem of Allison Grayhurst*라는 제목의 전체 앨범을 만들었다.

그녀는 채식주의자로 가족과 함께 토론토에 살고 있으며 집필 작업 외에 점토를 사용하여 조각도 하고 있다.

By Allison Grayhurst

What is the end
but a decision made
on a balcony, in a storm,
in solitude - evoking the
eternal and finite as one, in one
swift movement?

What is peace
but a landscape
with satellite trees and a warm moon
caressing the grasslands and the river
beside the grasslands humming
the electric-nerve sound
of its existence?

What is the beginning
but emptiness
after a flood or a fire, giving back
to God what has always been God's

and then standing, maybe stepping,
free and unprotected from gravity
and from time?

What is it now
to watch my mother changing,
deteriorating, needing more and more,
hurting more and more?
To be privileged to love her, to be
her sun and star and the daughter
her great soul deserves as it readies
to depart, as it takes this journey -

pitching clear one minute and confused
the next, underlining the creases in books,
reading out loud the words of our Jesus -
grace so grand and divine, it is terrifying
for both of us, knowing what is ahead,

무엇인가

앨리슨 그레이하ース트(Allison Grayhurst)

trusting that great love to carry her
mercifully, and even tenderly,
through that final door.

Allison Grayhurst

끌이 무엇인지
결정이 내려진
폭풍 속의 난간에서
고독 속에서 - 영원하고
유한한 존재로 불러일으키는
신속한 움직임 속에서?

평화란 무엇인가?
풍경이겠지
주변 나무들과 초원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달이 있고
초원 옆에서
전율적인 감동이 소리를 내는
강의 존재겠지

시작은 무엇인가?
공허함이겠지
홍수나 화재 이후에
하느님에게 받은 것을 하느님에게 돌려주는 것

그다음에는 중력과 시간으로부터 자유롭고
보호받지 못한 채 걸어가는 것이겠지

자비롭게, 심지어 다정하게,
그 마지막 문을 통해서.

이제 엄마가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무엇일까?
악화하고, 점점 더 많은 것이 필요해지고,
점점 더 아파져
그녀를 사랑하는 특권을 누리고,
그녀의 태양과 별 그리고 땘
그녀의 위대한 영혼은 준비된 만큼 가치가 있다
이 여행을 떠나려면 -

1분 동안 명확하고 혼란스러운 고름
다음은 책의 주름에 밀줄을 긋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라.

그 은혜는 너무나 위대하고 신성해서 두렵다
우리 둘 모두를 위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그녀를 안고 갈 그 큰 사랑을 믿으며

한역: 강병철(tr. by Kang Byeong-cheol)



마리엘라 코르데로(Mariela Cordero) 시인은 베네수엘라 발렌시아에서 1985년 출생하였다. 그녀는 변호사, 시인, 작가, 번역가 및 시각 예술가이며 그녀의 시는 여러 국제 선집에 실렸다.

그녀는 다음과 같은 여러상을 수상했다: Third Prize of Poetry Alejandra Pizarnik Argentina (2014). First Prize of the II Iberoamerican Poetry Contest Euler Granda, Ecuador (2015). Second Prize of Poetry Concorso Letterario Internazionale Bilingüe Tracceperlameta Edizioni, Italy (2015) Award Micropoems in Spanish of the III contest TRANSPalabr@RTE 2015. First Place in Inter-national Poetry Contest #Aniversario Poetas His-panos mention literary quality, Spain (2016). Finalist Aco Karamanow International Poetry Prize, Macedonia (2022) Rahim Karim World Prize for Literature (2022). César Vallejo World Prize for Literary Excellence (2023) Sahitto International

아무것도 네 몸을 알지 못했어

베네수엘라, 마리엘라 코르데로 (Mariela Cordero) 시인

Prize for Literary Excellence (2023).

그녀의 시집으로 시집으로는 : *El cuerpo de la duda* Editorial Publicarte, Caracas, Venezuela(2013) *Transfigurar es un país que amas* (Editorial Dos Islas, Miami, United States (2020). *La larga noche de las jaurías* Editorial Nautilus, Spain (2023) 등이 있다. 그녀는 국제시축제에 초청되어 The Princeton Festival United States), Festival Internacional de Poesía Parque Chas (Argentina), Festival Internacional Bitola Memoria Literaria, Festival Internacional de Poesía Xochimilco (Mexico), X Festival Iberoamericano de Fusagüagá (Colombia) 2023 Kaohsiung World Poetry Festival (Taiwan) 등의 행사에 참가하였다. 그녀의 시는 힌디어, 체코어, 에스토니아어, 세르비아어, 소나어, 우즈베크어, 루마니아어, 마케도니아어, 한국어, 히브리어, 벵골어, 영어, 아랍어, 중국어, 러시아어 및 폴란드어로 번역되었습니다. 현재 스페인의 시 잡지 Poémame에서 #VenezuelanPoetry 및 #WorldPoetry 섹션을 담당하고 있다. 1989년에 설립된 베네수엘라 문인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By Mariela Cordero

La luna emergió en un cielo
apenas divisible
de las oscuras aguas.

y sin embargo,
cambiaba el ritmo
de las olas.

Su aparición
agitó las entrañas del océano.

Un nombre comenzó
a ser murmurado
oculto
en el rumor del oleaje

Nada sabía de esto
tu cuerpo tendido sobre la arena,
cerca de la orilla
siendo rozado por la salobre humedad.

Nada sabía
tu cuerpo

Nothing knew your body

By Mariela Cordero

The moon emerged in a sky
barely divisible
from the dark waters.

and yet,
it changed the rhythm
of the waves.

Its appearance
agitated the bowels of the ocean.

A name began
to be murmured
hidden
in the murmur of the waves

Nothing knew
your body lying on the sand,
near the shore
being brushed by the salty humidity.

Nothing knew
your body

아무것도 네 몸을 알지 못했어

마리엘라 코르데로(Mariela Cordero)

달이 솟아올랐지
거의 분간할 수 없는
어두운 바다에서

그 모습이
바다의 깊은 속을
요동치게 했어.

이름 하나가
속삭여지기 시작했어.
물결의 소리에
숨겨진 채로

아무도 알지 못했지
바다가 모래 위에 누워 있는 네 몸을
해변 가까이
짭조름한 습기가 스치는.

아무것도 몰랐어.

너의 몸을
그런데 별씨,
리듬이 바뀌었지
파도의.

한역: 양금희(tr. by Yang Geum-Hee)



그는 성공할지니

그리스, 에바 페트로포울로우 리아누(EVA Petropoulou Lianou) 시인

에바 페트로포울로우 리아누(EVA Petropoulou Lianou) 시인은 그리스 자일로카스트로(Xylokastro) 출신으로 그리스 예술가와 문인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uthors and artists Greece) 회원이며 시인이자 동화작가이다. 피레우스 예술가와 작가협회(Association artist and authors Pireas) 회원이자 그리스 코린토스 작가협회(Association Authors of Korinthos) 회원이다. Ambassador of Peace WLFPH. Literary Forum for Peace. Ambassador of Peace and Humanity and Creativity for Greece. IFCH Morocco. Representative of Literary Union USA. Representative of 30Birds publishing services Company For foreign countries, UK. 등의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2024년도 노벨평화상후보이다. 그녀는 언론인으로 활동하였는데 1994년 프랑스의 “Le Libre Journal” 잡지사에서 일했으며 2002년 그리스로 돌아가 문학 활동을 하였다. 그녀는 아래와 같은 책들을 출간하였다.

“Me and my other self, my shadow” Saita publications, “Geraldine and the Lake elf” in English - French, as well as “The Daughter of the Moon”, in the 4th edition, in Greek - English, Oselotos publications. Her work has been included in the Greek Encyclopedia Haris Patsis, p. 300. Her books have been approv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of Cyprus, for the Student and Teacher library. Her new books, “The Fairy of the Amazon.

Myrtia “dedicated to Myrto with a disability, and Lefkadios Hearn, Myths and Stories of the Far East”, illustrated by Sumi-e painter Dina Anastasiadou, are released in 2019. She recently published her book, “The Adventures of Samurai Nogas san” in English by the publishing house OntimeBooks, based in England. Colaborates with the Poet, author, translator, journalist from Egypt Honorable Ashraf Aboul-Yazid Ashraf-Dali and create several books, as a project of exchange culture and creativity.

전자문학잡지를 운영하며 다른 문학단체와 협업을 하고 있다. 그리스 문학을 세계에 알리기 위하여 미국의 국제문학연맹(International Literary Union)과 협업하고 있다. Recently she has been selected an advisor and associate editor for web of Chinese literature and electronic journal poetry collection and a guest participant in International poetry festival of peace, Mexico.

By Εύα Πετρόπουλον Λιανού

Θα τά καταφέρει εκείνος, είτε μέρα είτε νύχτα,

Τού λένε όλοι,

Είναι μια φαντασίωση

Ένα αδύνατο όνειρο...

να πάλευει

Κάθε λεπτό ,

Κάθε μήνα,

Κάθε χρόνο ,

Για κάθε κακή λέξη,

Κακή συμβουλή ,

Για κάθε πόνο που ένιωθε, Για κάθε νύχτα που ξαγρυπνούσε με τις
σκέψεις του.

Θα τα καταφέρει

Για κάθε _Άρνηση _

Για κάθε δύσκολη στιγμή. Για κάθε δύσκολη μέρα

Θα τα καταφέρει

Θα βρει τη δύναμη

Βγες έξω στο φως ...

Η καρδιά του θα γεμίσει από χαρά Και EYTYXIA

Θα τα καταφέρει

Θα γιορτάσει ,

Όλα αυτά τα χρόνια Της θλίψης

Όλα αυτά τα δάκρυα Της δυστυχίας ,

που έτρεξαν από τά μάτια του ,

Θα τα ξεχάσει ,

Θα προχωρήσει ,

Θα τα καταφέρει ,

Θα κερδίσει τη μάχη του

Γιατί έχει καρδιά πολεμιστή!!!

He will succeed

By EVA Petropoulou Lianou

He will succeed Any day or night

You tell him

It is a fantasy

An impossible dream...

He was fighting

Every minute

Every month

Every year

For every bad word

Bad advice

For every pain he felt

For every night he spent without sleeping

He will succeed

For every No

For every hard time

For every difficult day

He will succeed

He will find the strength

Come out in the light

His heart full of joy

And happiness

He will succeed

He will celebrate

All those years

Of sadness

All Those tears

Of unhappiness

He will forget

He will move forward

He will succeed

He will win his battle

Because he has a warrior heart.

그는 성공할지니

에바 페트로포울로우 리아누(EVA Petropoulou Lianou)

어떤 날이나 밤에도
당신들은 그에게 말한다
그것은 환상이다
불가능한 꿈이라고…

그는 싸웠으니
매분
매달마다
해마다
나쁜 말 하나하나에
나쁜 조언 하나하나에
그가 느낀 모든 아픔에
잠 못 이루는 밤마다

그는 이겨낼 것이니
각각의 거절에
각각의 힘든 시간에
각각의 어려운 날에

그는 성공할 것이니
그는 힘을 찾아
빛 속으로 나올 것이다

그의 마음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할 것이니
그는 성공할 것이고
그는 축하할 것이다
모든 슬픔의 해를
모든 불행의 눈물을
그는 잊을 것이고
그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는 성공할 것이니
그는 전사의 마음으로 승리할 것이다

한역: 양금희(tr. by Yang Geum-Hee)



환영의 그림자

일본, 마키 스타필드(マキ・スターフィールド) 시인

마키 스타필드(マキ・スターフィールド) 시인은 화가 및 번역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1972년 에히메현(愛媛県, えひめけん, Ehime-ken)에서 태어났으며, 일본국제시인협회(Japan Universal Poets Association) 회원이자 일본하이쿠협회(Japanese haiku associates) 회원이다.

마키 스타필드는 2008년부터 시와 하이쿠 작품을 발표하였으며, 제12회 마이니치 하이쿠 콘테스트에서 입상했다. 또 한 아크릴화를 배워서 동물을 모티브로 한 작품을 전시하여 호평받고 있는데 주로 고양이를 그리고 있다.

그녀는 1999년 도시사 대학(同志社大学, Doshisha University) 문학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조치 대학(上智大学, Sophia University)에서 영미문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013년 캐나다 나이아가라 대학(Niagara College)에서 ‘국제경영관 리자디플로마’와 세인트 조지 국제대학에서 ‘TESOL(국제영어교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녀는 또한 Gabriel Rosenstock에서 Bill Wolak에 이르기까지 여러 영어 작품을 일본어로 번역했다. 그녀는 또한 하이쿠 잡지와 Duet of Fireflies와 같은 이중 언어 책을 출판했다.

그녀의 작품은 15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많은 문예지에 발표되었는데 이탈리아의 Imagine & Poesia vol 5 Anthology, 그리스의 Poeticanet, 중국의 Guandongluming -Voice Overseas, Monthly Poetry, 아제르바이잔의 Parafraz.az, 루마니아의 REVISTA, 영국의 Ephemerae, 인도의 Taj Mahal Review, 한국의 ‘해외문학’, 벨기에의 De Auteur 등에 소개되었다.

그녀는 Guido Gozzano Prize (Honorable Mention) 2018, 2019, JUNPA Prize for a new poet 2020, PushCart prize nomination 2020 등의 상을 받았다.

マキ・スターフィールド

影が生まれてまもない日

その影が人々に影響を与えていたのではないかと
疑問を持ってしまった

テレビや雑誌、映画

他に、写真、絵、漫画、文字さえも影であるのか？
影は平面としての二次元のなかで生きている

(三次元のなかにいる人間が
影を文化だ文明だという方がおかしい)

わたしは驚いてみせるが、他の人々は笑って答えた
「わたしたちの発展は科学の力だよ」

影の文化の代償にロボットのように生活させられている
多くの人々の現実は未来もコントロールされ
物の世界へ落ちていく

文明文化は歴史のなかの蜃気楼

影の暗闇のなかに入ってはいけない
影の光を見なさい

The Phantom's Shadow

By Maki Starfield

The day when shadows are born

I had the question,

“I wonder if that shadow affects people.”

Television, magazines, movies,

Also photographs, pictures, cartoons, even written characters—

Are they all shadows?

Shadows live in a two-dimensional plane

(For human beings in three dimensions,

It is funny to say that shadows are culture and civilization)

I will be surprised

Other people laughed and replied,

“Our development is the power of science”

To compensate for the shadow culture

We are made to live like robots

The reality of many people is controlled in the future as well

They will fall to the world of things

Civilization and culture are a mirage in history

Do not enter into the darkness of the shadow

Look at the shadow's light

환영의 그림자

마키 스타필드(マキ・スターフィールド)

그림자가 태어나는 날

나에겐 질문이 있었지

"그 그림자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

텔레비전, 잡지, 영화,

또한, 사진, 그림, 만화, 소설 속 주인공까지—

그들은 모두 그림자일까?

그림자는 2차원 평면에 살지

(3차원의 인간에게는

그림자가 문화이고 문명이라는 말이 옳기네)

나는 놀랄 거야

다른 사람들은 웃으며 대답했지

"우리의 발전은 과학의 힘이야"

그림자 문화를 보상하기 위해

우리는 로봇처럼 살도록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의 현실은 미래에도 통제되고

그들은 물질의 세계에 떨어질 거야

문명과 문화는 역사의 신기루

그림자의 어두움에 들어가지 마

그림자의 빛을 봐

한역: 양금희(tr. by Yang Geum-Hee)



타그흐리드 보우메르히(Taghrid BouMerhi) 시인은 번역가이며 원어민이 아닌 사람들을 위한 아랍어 교사로 브라질에서 활동하는 레바논 시인이다. 레바논대학교 (Lebanese University)법정대학(Faculty of Law & Political Science)을 졸업하여 법학사 학위를 갖고 있으며 AL-ARABE TODAY 및 RAINBOW Magazine의 편집자이다. 그녀는 아랍어(모국어), 프랑스어, 영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와 스페인어에 능통하다. 그녀의 시는 24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수많은 국제 선집에 소개되었다. 그녀는 *Songs of longing, The Keys of Science: Verses and Manifestations, Philosophies at the Edge of the Soul, FLOWERS OF LOVE, Poesia Y Amor(Under Review)* 등의 작품집이 있다.

2021년 Nizar Sartawi 국제 번역가 창작 부문을 수상했고 제2회 Annual Zhengxin International Poet Awards를 수상했으며 2022년에는 RAHIM KARIM WORLD PRIZE를 받았다.

밤의 언저리에서 혼자

레바논, 타그흐리드 보우메르히(Taghrid BouMerhi) 시인

وحيداً على حافة الليل

해외문학소개 | 세계의 시

By Taghrid BouMerhi

وحيداً يجلسُ على حافةِ الليلِ، يُقلمُ أفكارَهُ من حُزْنٍ وَأَلَمٍ

أَلْوَقْتُ مُثْلَ الْحَيَاةِ،
كَلَاهُما يَقْوَدُنِي إِلَى نَقْطَةٍ فِي بَاطِنِ الْكَفِّ،
يَتَعَانَقُ مَعًا خَوْفًا مِنْ جَلْسَةٍ مُضْجَرَةٍ

كَانَتِ الْأَرْضُ تَوَدُّ لَوْ تَبْتَلُغُ حَزْنَهُ، لَكِنَّهُ صَوِيفٌ أَنَّ الْيَوْمَ عَطْلَهُ، وَالْبَحْرُ فِي إِجَازَةٍ طَوِيلَةٍ

كَانَ عَلَيَّ أَنْ أَنْتَظِرَ وَسْطَ الْكَوَاكِبِ،
لَعَلَّ بَرْجَ الْحَظَّ يَبْتَسُمُ دُونَ أَنْ تَلَاحَقَنَا كَامِيرَاتُ الْمُرَاقِبِينَ

لَمْ يَسْبُقْ أَنْ رَأَيْتُهُ، قَبْلَ أَنْ تَنْهَارَ الْمِثَالِيَّاتُ...

كَانَ قَدْ اخْتَلَقَ عَذْرًا مَزْدُوجًا، وَأَدَارَ ظَلَّةً لِلْعَبْرِ، وَانْحَنَى قَلِيلًا لِيَدْلِفَ إِلَى صُورَةٍ تَرْتَاحُ عَلَى جَدَارٍ

كَانَتِ الْأَمَاكِينُ نَائِمَةً عَلَى طَرْفِ الْدَّهَابِ وَالْإِيَابِ،
وَحْدَهَا انْحَنَاءُهُ، لِقَلْةٍ حِيلَتِهَا

ALONE ON THE EDGE OF THE NIGHT

By Taghrid BouMerhi

مررت بجانبي كئيبة صامتة.

تظاهرة أني أحذق في السماء،
رغبة في أن يطليق الزنان على حبل صمته،
فيصرع وننجو معاً.

تلك الليلة، انتابني بكاءً وعيولٌ.

تلك الليلة،
هجر سطح صورته بعيداً عن صرائح آلامه ووحدته.

ذلك الليلة،
حصلت على سببٍ كيْ أُعشّق الصّور التي يطرّحها الليل للمُشرّدين.

وهي أحد الأماكن الخلفية رأيتها معاً،
نصفه عالق هناك،
ونصفه الآخر مُصيّر على البقاء معاً.

تغريد بو مرعي - لبنان - البرازيل

I have never seen him alone sitting on the edge of the night, reducing his thoughts of sadness and pain.

Time as life, both lead you to a point in the palm of the hand, they hug together for fear of a boring session.

The earth wished that it could swallow his grief, but it happened that today is a holiday, and the sea is on a long vacation.

I had to wait in the midst of the planets, hoping the sign of fortune would smile without the monitor cameras following us.

I have never seen him, before the ideals collapsed...

He fabricated a double excuse, turned his shadow to pass through, and bent down a little to drag a picture resting on a wall.

The places were sleeping on both ends of the road, and only his back bend, for lack of help, passed by me bleakly and silently.

밤의 언저리에서 혼자

타그흐리드 보우메르히(Taghrid BouMerhi)

I pretended to be staring at the sky, wishing he would shoot his rope of silence, so he would die, and we can both survive together.

나는 그가 혼자 밤의 언저리에 앉아 슬픔과 고통에 대한 생각을 줄이 는 것을 본 적이 없지

That night, i was crying and wailing.

삶으로서의 시간, 둘 다 당신을 손바닥의 한 지점으로 이끌고 지루한 시간이 두려워 함께 포옹하네

That night,

대지가 그의 슬픔을 삼킬 수 있기를 바랐지만, 오늘은 휴일이고 바다는 긴 휴가 중이야.

He deserted the surface of his image, far away from the screams of his pain and loneliness.

나는 감시카메라가 우리를 따라오지 않고 행운의 징조가 옷기를 바라며 행성 한가운데서 기다려야 했어.

That night,

나는 그를 본 적이 없지, 이상형이 무너지기 전에는…

I found a reason to love the pictures that night presents for the homeless.

그는 이중적인 변명을 지어내고 자신의 그림자를 통과시키고 몸을 약간 숙여 벽에 걸린 그림을 끌어당겼어.

And in one of these back places, i saw the whole of him,

길 양쪽 끝에는 잠잘 곳이 있었고 도움이 부족한 그는 굽은 허리로 암울하고 조용히 나를 지나쳤어.

Half of it is stuck there and the other half is determined to stay together.

By Nhà văn Dương Thị Nhụn

나는 그가 침묵의 뱃줄을 쏘아 죽기를 바라며 하늘을 보는 척했고, 우리 둘 다 살아남을 수 있었지.

그날 밤 나는 울며 통곡했네.

그날 밤,

그는 고통과 외로움의 비명에서 멀리 떨어진 이미지의 표면을 벼렸지.

그날 밤,

나는 그날 밤에 노숙자들에게 사진을 선물하는 좋은 이유를 찾았지.

그리고 이 뒷자리 중 한 곳에서 나는 그의 모든 것을 보았어.

그것의 절반은 거기에 붙어 있고 나머지 절반은 함께 머물기로 하네.

Mơ một ngày được tới xứ Kim Chi

Trời cuối thu phong đang đỗ lá

Màu đỏ ấy vừa quen vừa lạ

Mênh mông oi! Rực rỡ oi!

Xứ Kim Chi con đường hạnh phúc

Ngân hạnh vàng như mật ong

Tưới xuống đất nâu chờ ngày kết nhuy

Xào xác chuyển mùa hẹn kiếp hồi sinh

Tôi muốn gọi tên nhiều địa danh

Dường như đã thành thân thuộc

Nami, Busan, Gwangju, Seoul,...

Đánh thức cội nguồn

Đến Gwangju tôi là khách mòi

Ra về được là bạn

Ôi những giấc mơ sẽ thành hiện thực

Bởi tình yêu tôi đủ lớn với xứ Kim Chi

한역: 양금희(tr. by Yang Geum-Hee)

그리고 나는 꿈을 꾼다

쯔엉 티 눈(*Nhà văn Dương Thị Nhụn*)

언젠가 김치의 나라에 가는 꿈을 꿨다.
낙엽이 떨어지는 늦가을 날씨,
그 붉은 색은 익숙하면서도 낯설다.

오! 엄청나고도 황홀하도다.
행복한 마음으로 떠나는 김치의 나라
꿀 같은 노란 은행 열매는
갈색 땅에 흘날려 다시 꽃이 맷기를
기다리는구나.
환절기의 서걱서걱 부스러짐을 견디며
부활을 기약하는구나.

나는 친숙한 곳들의 이름을 부르고 싶다.
남이(섬), 부산, 광주, 서울…
광주에 온 나는 손님으로 왔지만
떠날 때는 친구가 되겠지.

오! 꿈들은 이루어질 거야.
내 사랑은 김치의 나라에 충분하기 때문에.



쯔엉 티 눈(*Nhà văn Dương Thị Nhụn*)

하이퐁문인협회 부회장, 베트남문인협회 회원, 출판 작품: 단편소설, 장편소설집 4권, 수상: 국내 6개 수상

한국어 번역: 레 당 환(LE DANG HOAN, 베트남작가협회 회원, 시인·번역문학가)

By Nhà thơ Trần Thị Lưu Ly

전 티 르우 리(Nhà thơ Trần Thị Lưu Ly)

Không phải vì thuở nhỏ chẳng trông trăng

Nay mới thấy một rãm tròn rạng rỡ

Khi hội đèn sao đã thuộc về Trung thu năm cũ

Chợt thấy lạ lùng, trăng sáng thế, trăng ơi!

Ngày ngân nga lóng lánh nắng mặt trời

Gửi đêm tới không gian tràn hoan lạc

Những giọt sáng thấp trong đêm bát ngát

Như ân tình nửa trái đất dồn sang

Đủ yêu thương sẽ xóa đi thù hận bẽ bàng

Sau cuộc chiến, người thắng người thua nhìn nhau hân hoan như lần

đầu mới gặp

Chung điệu thức hòa bình dưới trăng ngàn gọi tên hạnh phúc

Như ngày yêu thương đêm, đêm ánh sáng ngập tràn.

어린 시절에도 달을 보았건만

오늘에야 만월이 이토록 사무치네

호롱등 연회가 묵은 해로 떠나간 후에야

낯설기도 하지, 불현듯 달이 밝다

반짝이는 햇빛이 노래하는 날

밤은 희열의 공간이 되네

빛의 분말들은 지구 절반에 사랑을 뿌리듯

적막한 밤에 타오른다

By Nhà thơ Nguyễn Đình Tâm

사랑이 넉넉하면 원망도 지워지리
전투의 승자와 패자가 초면의 인사처럼 반가이 서로를 보네
낮은 환한 빛으로 사랑의 선물을 밤에게 보내나니
달빛 아래서 ‘행복’이란 이름을 평화로이 부르네.

Có những vầng trăng thức đợi một vầng trăng
Đêm hạ tuần biên trở mình thức giấc
Em thơ mong dầm chân trên cát
Trăng lọt lòng, đỏ ửng giữa bao la

Phút diệu kì của Trời Đất thăng hoa
Yêu mến quá gương mặt người bường sáng
Đêm hào phóng cho tôi cùng con sóng
Võ hồn mình về hai phía trăng lên



전 티 르우 리(*Nhà thơ Trần Thị Lưu Ly*)

하이퐁문인협회 부회장, 베트남 문인협회 회원, 출판 작품: 시집 3권, 수상:
국내 4개 수상

한국어 번역: 당람장(*Dang Lam Giang*)

옹우옌 딘 띠(Nhà thơ Nguyễn Đình Tâm)

한달을 기다리다가 떠오른 달 있어
지난 하순날 밤 바다 위로 갑자기 떠올랐다.
그대 꿈결처럼 모래 사장에 발을 담그니
내 마음에도 광활하게 붉은 달 떠오른다

천지가 승화하는 마법같은 순간
그대의 환한 얼굴이 사랑스럽다
파도와 함께 하는 여유로운 밤
양 하늘에 달 떠올라 영혼을 깨운다.



옹우옌 딘 띠(Nhà thơ Nguyễn Đình Tâm)

하이퐁문인협회 부회장, 베트남 문인협회 회원, 출판 작품: 시집 3권, 수상:
국내 4개 수상

한국어 번역: 당람장(Dang Lam Giang)

By Nhà thơ Vũ Trọng Thái

Mến tặng HLV Park Hang Seo
Khi Park Hang Seo đưa tay lên ngực trái
Lặng nghe Quốc ca Việt Nam trước giờ bóng lăn
Ông đã thành người Việt như triệu triệu người Việt khác
Đứng trang nghiêm trong tư thế kiêu hùng
Ông không ồn ào nói những lời to lớn
Biết dấu mình trong mỗi lần ra sân
Lật thế cờ làm nên chiến thắng
Như một thây phù thủy có tài cầm quân
Tôi lặng nhìn ông ngồi trầm ngâm suy nghĩ
Khi trận cuối cùng, vuột mất huy chương
Dường như ông cảm thấy mình có lỗi
Nhưng chính ông đã làm nên điều kỳ diệu phi thường
Đêm nay gió mùa về, Hà Nội trở rét
Những con đường xào xác lá khua
Hắn ông sẽ ấm lòng hơn khi biết
Trong trái tim người hâm mộ có Park Hang Seo

박항서

부 종 타이(*Nhà thơ Vũ Trọng Thái*)

친애하는 박항서 감독께
박항서가 왼쪽 가슴에 손을 들어 올리며
공이 구르기 전 베트남 국가를 가만히 듣는다.
다른 수 천만 베트남인처럼 베트남 사람이 다 되어
늠름한 자세로 엄숙히 서서
거창한 말로 시끄럽게 하지 않고
경기장에 나갈 때마다 자신을 가릴 줄 알며
패를 훤 재주좋은 마법사처럼
판세를 뒤집어 승리로 만든다.
생각에 잠긴 그를 조용히 살펴보니
마지막 경기에 금메달을 놓치자
마치 자신의 잘못인듯 여기지만
그러나 바로 그가 범상치 않은 신기한 일을 만들어 냈으니

오늘밤 바람이 불어와, 하노이는 쌀쌀하고
거리는 부딪치는 잎새로 바스락 바스락
그의 가슴은 따뜻해지겠지
팬들의 가슴에 박항서가 있다는 걸 안다면



부 종 타이(*Nhà thơ Vũ Trọng Thái*)

하이퐁 문인협회 회원, 출판작품: 국내외 시집 14권, 산문집 4권, 수상: 국내 7개

한국어 번역: 최하나(CHOI HANA)

By Nhà thơ Sơn Thủy

선 투이(Nhà thơ Sơn Thủy)

Đảo Na Mi hình thành từ cồn cát

Giữa đôi bờ hai dòng nước trong xanh

"Bản tình ca mùa Đông" đã nổi danh

Đưa em đến gặp anh ngày đầu hạ..

*

Na Mi ơi ngỡ ngàng màu hoa lá

Hàng Thủy Sam thảng thompson song song

nhuộm vàng óng Thu sang thỏa nỗi lòng

Hoa Anh Đào trắng trong còn sót lại.

*

Ôi Na Mi vị tướng tài vĩ đại

Mang tên Người đảo ngọc bỗng lừng danh

Một Hàn Quốc sáng lên bởi đất lành

Em có biết niềm tự hào châu Á.

*

Trên đảo ngọc bên em là tất cả

Bản tình ca còn mãi với mùa Đông

Bóng Thủy Sam nghiêng về phía cánh đồng

Nơi ướm mầm tiếng lòng anh thao thiết.

맑고 푸르른 강가 양기슭 사이

퇴적된 모래가 만들어 낸 남이섬

명성 자자한 '겨울연가'가

초여름날 너를 내게 데려다 주었다

수풀색이 놀랍구나, 남이여!

쭉 뻗은 메사퀘타이어 행렬이 나란히

가을의 노란 빛으로 물들어 흡족하고

순백의 벚꽃도 아직 남아 있는

오, 위대한 명장 남이여!

그의 이름을 딴 섬은 갑작스레 유명해져

풍요로운 땅으로 한국이 빛나는구나

너는 아시아의 자부심임을 알고 있다.

너의 섬은 모든 것이다.

연가는 겨울과 영원할 것이고

By Nhà thơ Trần Trọng Toàn

메사퀘타이어 그늘은 들판쪽으로 기울어져
간절히 나의 속마음 소리가 짹트는 곳

Nghe tiếng gió réo ngoài khung cửa

Sực nhớ ra mình đang ở Tế Châu

* Bừng tỉnh giấc thấy bình minh rạng rỡ
Bầu trời cao tím biếc một màu

Giữa tiếng gió và dập dồn sóng vỗ
Đàn hải âu chao lượn phía trời xa
Vách đá đen - giấu một thời núi lửa
Trên nham thạch khô cằn vuơn nở những chùm hoa
Phụ nữ xóm chài xưa kiếm ăn trong lòng biển
Và dựng nhà giữa bão táp, nắng thiêu
Những gian khó năm xưa đã lui vào dĩ vãng
“Đảo đá-gió” bây giờ đã thành “đảo Tình yêu”…**
… Và ngàn năm sau, gió vẫn không ngừng thổi
Mây trắng vẫn bay vội vã lung tròn
Sóng vẫn xô bọt trắng tung vách đá
Trên nham thạch khô cằn cuộc sống vẫn xanh tươi…



선 투이(Nhà thơ Sơn Thủy)

하이퐁 문인협회 회원, 출판 작품: 시집 4권, 수상내역: 도시 및 전국의 시 동
아리로부터 다수의 우수상 수상(금상 2개, 은 5개)

한국어 번역: 최하나(CHOI HANA)

전 족 또안(*Nhà thơ Trần Trọng Toàn*)

창문을 때리는 세찬 바람 아-
여기가 그 삼다도三多島 제주인가 !
밝아오는 여명黎明에 드러나는
아스라이 높은 쪽빛 하늘

몰아치는 바람 거친 파도 아랑곳없이
수평선 넘나드는 흰 물수리떼
묵묵히 서있는 병풍바위만 화산의 혼적을 말하고
옹회석에서 피어나는 화사한 영산홍靈山紅
작열하는 태양 모진 태풍 속에서도
바다 물질에 나서야 했던 해녀海女들
그런 시련과 아픔은 모두 옛 이야기
탐라耽羅는 이제 달콤한 신혼여행의 섬…
…억겁億劫을 부는 제주의 바람
파아란 하늘에 하이얀 구름

바위에 부서지는 허연 파도
불모의 땅에서도 생명은 잉태되고 또 소생될지니…



전 족 또안(*Nhà thơ Trần Trọng Toàn*)

전 주한베트남 특명전권대사(2010-2013), 전 해외 베트남 국가위원회 상임
부위원장(2007-2010)

한국어 번역: 최하나(CHOI HANA)

번역작품

회원 詩

강방영 네가 불이라면

강병철 바다가 잔잔하면

양금희 봄의 여신의 꿈



네가 불이라면

번역 작품 | 회원 詩

좋아, 네가 불이라면

나는 쇠다

휙휙 달구어라

달굴수록 강해지고

나 새로워져

광채를 뿜으리니

장방영

네가 돌이라면

메마른 자갈돌이라면

바람 앞에 뿌리 내어

푸르게 잎을 펴는 풍란을 보아라

돌의 가슴에서도

나 향기를 찾아내리니.

If You Are Fire

By Kang Bang-yeong

If you are fire,

I am iron.

Heat me, flame after flame,

And I'll become stronger all the more,

And be born anew,

Effusing radiance dazzlingly.

If you are a stone,

A dry pebble stone,

Look at the wind-orchid,

Budding green leaves from the roots in the wind.

Even in the bosom of a stone, I'll find my sweet perfume.

Poem by Bang-Young Kang

English Translation by Kyoung-Jing Suk

영역: 강방영(tr. by Kang Bang yeong)

바다가 잔잔하면

번역 작품 | 회원 詩

장병철

바다가 잔잔하면 좋겠지만,
너무 오래 잔잔하다면 바다생물이 다 죽을 수도 있지
파도가 역설적일지 몰라도 삶도 역설적이네
모든 일이 순조롭다면 우리는 배울 게 없어.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동창들은 멀어져 가고,
나는 그저 삶을 허투루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좋은 시간은 함께 나누고, 어려움을 피하려 하지만,
인생은 항상 배우는 과정이지.

고통을 회피하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지만,
이겨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지.
다이아몬드가 압력 속에서 만들어지듯이,
가장 위대한 영광은 고통에서 나온다고 하지.

지나간 현인들의 가르침을 들어보고,
나 자신에게 속삭이듯 질문하네
고통에 져서 울부짖는 순한 짐승인가?
그것을 이겨내 승리하는 인간인가?
어둠 없이 별은 빛날 수 없듯이,
찬란한 흑진주는 항상 고통을 이겨내지

If the ocean were calm

By Kang Byeong-cheol

It would be nice if the ocean were calm,
but if it is still for too long, it may kill sea creatures.
Even if waves are paradoxical, life is full of paradoxes too.
If everything goes easy, we won't have anything to learn.

As we age, our classmates drifted away,
and I feel like I'm just coasting through life.
We want to share the good times,
but avoid the tough ones.
Yet, life is always a process of learning.

Avoiding pain doesn't teach us anything,
but overcoming it does make us realize something.
Diamonds are made under pressure.
The greatest glory comes from pain.

Listen to the lessons of those wise people who have gone before us,
and ask yourself in a whisper,
Are you a meek creature who succumbs to pain,
Or a victorious human who overcomes it?

Just as stars can not shine without darkness,
Brilliant black pearls always overcome pain.

영역: 강병철(tr. by Kang Byeong-cheol)

양금희

By Yang Geum-Hee

제우스와 데메테르의 딸 페르세포네,
봄의 여신의 꿈은 어떤 색깔들일까?
노란 개나리, 제비꽃 속에서,
벚꽃과 보라색 꽃들이 피어나네
하지만 나무 아래에 있는 슬픔 어린 돌 아래에서
오후는 다른 언어로 말하며, 홀로 있지

구름들이 떠돌아다니고,
하늘에서 모양을 만들며 흩어지네
천 년이 지나고, 또 천년이 흘러도,
잔디 위에 앉아 명상하며, 한 사람은 봄의 여신을 꿈꾸지

모래 알갱이들이 끊임없이 굴러가고 굴러가도,
그녀의 꿈에서는 매번 새로운 세계가 창조되지
봄 바람이 나무 등을 때리고,
조용한 오후에 봄은 막힌 언어로 말하네

Persephone, daughter of Zeus and Demeter,
What colors make up the dream of the goddess of spring?
Amidst the yellow forsythia and violet,
Cherry blossoms and purple flowers unfold.
But by the melancholy stone, under the tree,
Afternoon speaks a different language, alone.

Clouds wander and roam,
Taking shape and disappearing in the sky.
A thousand years passed, and a thousand more,
Meditating on the grass, one dreams of the goddess of spring.

Sand grains roll tirelessly, on and on,
Creating new worlds with each turn in her dreams.
Spring winds crash onto the tree's back,
In the quiet afternoon, spring speaks in a blocked language.

영역: 양금희(tr. by Yang Geum-Hee)

기획1 | 작가 조명

강방영 시인 연보

주요 작품

나의 문학을 말한다

강방영 안개마을과 어머님의 마당

강방영의 문학

허상문 생명과 사랑의 서정 시학

강방영
시인



1956년 10월 28일 출생,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창천리. 유년기 대부분을 고향에서 보냈지만, 교원이시던 아버지를 따라서 전라남도 광주시 계림동 등에서 생활, 사람을 궤짝 속에 가두던 연극, 돌담과 소나무가 높이 서 있던 유적지, 계림동 집 밖에 길옆에 흐르는 물냄새, 그 옆에 말라 죽은 개구리를 물에 던져 넣자 살아 해엄쳤던 일이 기억에 남음.

1963-1969 창천국민학교 입학 4학년 수료, 대정국민학교 전학 5학년을 수료, 위미국민학교 전학 6학년 졸업. 내천이 많은 고향 창천에서는 의사한 학우도 있었으며. 동네 앞내에서 빠진 경험. 태평에서도 의사할 뻔했으며, 중문해수욕장에서는 물에 빠져서 기절하였는데, 군인들에게 구조됨. 모슬포 시절에는 정 많으신 담임선생님의 관심이 추억이며, 시장 근처에서 엄마 없이 마차로 짐을 나르는 아버지와 사는 친구, 시장바닥에 살다가 결핵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흘어진 자매들을 알게 됨.

1969-1972 제주신성여자중학교 입학 1학년 수료, 중문중학교 전학 졸업. 제주시에서는 자취를 하면서 신문을 돌리는 씩씩한 친구는 연탄불에 보리밥을 짓고 삼치를 구워서 먹게 해줘서 오래 기억됨. 중문에서는 음악선생님께 피아노를 배우고 결스카우트 활동으로 천제연과 해수욕장 흰 모래밭, 검은 돌로 이뤄진 베릿내 바닷가 등 자연을 만끽함. 중학교와 같은 터전에 함께 있던 원예고등학교 온실과 국화는 화려의 극치였음.

1972-1975 제주 신성여자고등학교 입학 졸업. 힘에 부치던 자취시절, 고 3 2학기에는 쓰러져 한 달을 요양함.

1975-1979 제주대학 영어교육과 입학하여 졸업(학사), 암담하던 시기, 먼 세계를 꿈꾸지만 현실은 여전히 답답했던 날들

1977년 8월 14일 제대문학상 시 당선, 한국외국어대학에서 특강 오셨던 이영걸 교수님이 그 시를 읽고 대학원 진학 권유,

1980-1982 한국외국어대학 대학원 영어과 석사과정 입학, 영문학 석사, 학위 논문 : The Seasonal Cycle in Robert Frost(1982.2)

1982년 9월 〈詩文學〉 9월호(추천 완료) 등단

1984년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강사. 사람들의 비열함을 절실히 느끼던 시절.

1985년 1월 10일 결혼. 열렬결에 했던 결혼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음.

1985-1992 한국외국어대학 대학원 영어과 박사과정 영문학전공(박사), 학위 논문 Theodore Roethke : 시와 자연 (1992.2). 결혼을 하여 임신한 상태에서 비행기로 통학하며 최류탄을 맛보고, 입덧과 출

산, 육아 등으로 과중한 임무에 허덕임.

1985년 11월 5일 아들 준영 탄생, 안 먹고 안 자고 자주 앓는 아기로 가슴 아프고 지쳤지만, 생명을 지켜냄.

1989년 3월- 2019년 8월 제주간호보건전문대학 관광영어과 전임강사,
교명이 바뀐 제주한라대학교에서 관광영어과 근무

1992년 11월 24일 딸 은정 탄생

2003년 ~현재 제주일보「시론」기고

2006년 ~2010년 제주지방법원 재판 영어 통역인 활동

2013년 제주문학상 수상

2019년 ~2022년 제주PEN 회장

시선집 발간

『내 어둠의 바다』, 다총, 2013년 10월

공동시집 발간

『기억의 꽃다발(Flowers of Memory, Deep Blue Longing)』, 도서출판 황금
알, 2022년 8월

강방영 시인, 응우옌딘.DisplayMember 시인(베트남)

한국 베트남 수교 30주년 기념,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 3개국어 시집

저서

『불멸의 연인 사포』(Sapho, the Immortal Lover, 2003.07), 대학사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서: 시가 있는 산문』, 대학사, 2008.

시집 9권 발간

제1시집『집으로 가는 길』, 시문학사, 1986.

제2시집『생명의 나무』, 아름다운세상, 1993.

제3시집『달빛 푸른그곳』, 경원, 1995.

제4시집『좋은 시간』, 로드, 1997.

제5시집『은빛 목소리』, 로드 1999.(한국어, 영어, 일본어)

제6시집『인생학습』, 대학사, 2005년 9월

제7시집『내 하늘의 무지개』, 해드림출판사, 2016년 9월

제8시집『그 아침 숲에 지나갔던 그 무엇』, 시문학사, 2018년 12월

제9시집『노을과 연금술』, 시문학사, 2022년 10월

영역서

국제PEN한국본부 제주지역위원회 회원 작품집 제주펜무크 제1집,
9집, 10집, 11집, 12집, 13집 영역

『제주 섬의 바람』(The Winds of Jeju Island), 2004.

『제주, 우주를 헤엄쳐온 별빛』(Jeju Island, Starlight That Has Swum Across
the Universe), 2012.

『섬, 그 경계를 넘어선 은유』(Islands, a Metaphor beyond the Boundaries),
2013.

논문

뢰트케, 디킨슨, 사포, 미대륙 원주민 시가에 대한 논문들이 있음

“하얀 절망의 양식 : Emily Dickinson의 연시”

“Sappho의 시에 나타나는 사랑의 의미”

“Roethke 시에서 온실과 자연의 의미”

“북미연작시(North American Sequence)에 나타나는 레트케의 동경”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의 전통적 언어관”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 포니족의 의례 “하코”에 나타나는 새들과 등지

의 의미”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 시가와 신학적 배경 이해”



아버지, 상해 유학 시절



고상함과 멋을 추구하시던 어머니



남동생과 광주를 떠나며



위미 국민학교 6학년 때



의사 진전에 구조된 중문해수욕장



신성여고 시절



중문중학교와 음악 선생님



제주대학 영어교육과 친구 신옥, 희선



결혼



아들 준영 첫돌(1986.)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이영걸 지도 교수 환갑



박사 학위(1992) 동생과



1992년 11월 24일 태어난 딸 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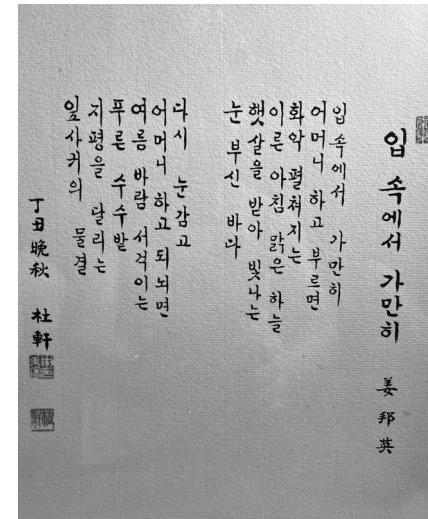
제주한라대학 교수시절 영어캠프(1992. 여름)



언니와 나. 언니 근무지 평택에서(1981.)



천제연에서 친구 현숙과(1981. 여름)



신두현 교수님께서 써주신 글씨



원어민 교수 캐빈과 캘리포니아 어학연수(1997. 7.)



석경징 선생님, 피천득 선생님, 서귀포 프린스호텔



한베 수교 30주년 기념 공동시집 출판기념회(2022. 12. 하노이) 베트남문인협회 회장, 응우옌 락 시인과 함께



피천득 선생님(1995. 산굼브리)



제주도노인복지관 장고춤 발표회(2024. 7. 문예회관)

천지연의 밤

기획1 작가조명 | 주요 작품

서걱거리는 마른 갈대꽃
계곡의 상록수 잎새에
온도금 하는 달빛 푸른 음영
바닷길로 펼쳐지는 천지연의 밤

나무들의 오솔길 갑자기 열리며
둥그런 밤하늘
둘러싸는 사방 절벽

미끄러지는 물줄기
진동하는 돌기둥
부서지며 날리는 흰 물 가루
꽃향기 섞인 밤의 대기
달빛 하늘 모두 하나 되고

남는 것은 비어서 넓어진 마음
작은 마음 모두 끌려 들어간
커다란 마음 뿐.

마음에서 뽑아내는 실

기획1 작가 조명 | 주요 작품

영롱하면서도 투명하고
구불구불 펼쳐지나
손 뻗어 잡을 수 없는
눈물처럼 따스하고 촉촉하여도
오로지 스며들 뿐
어디에도 그 흔적 없는
마음에서 뽑아내는 실
아 노래여!

숲을 지나며

기획1 작가 조명 | 주요 작품

언젠가는 나도
걸어 들어갈 수 있으리라
저 초록빛 속으로
나무가 나무속으로 녹아
산이 다시 산으로 들어가
드디어 이루는
드넓은 빛

하늘 가득한 웃음소리로
낭랑하게 햇살 울려 퍼지고

이승도 잘 모르고

기획1 작가 조명 | 주요 작품

이승도 잘 모르고
저승은 더욱 모르나
한 가지 내가 아는 것
어디에서나 당신,
기다리며 있으리라는 것
결음 더딘 나를
나무라는 일도 없이

말없이

기획1 작가 조명 | 주요 작품

말없이
나의 꿈속을
같이 거닐어
고요로써
나를 다듬어 주는
그대
산 같은 마음

아름다운 순간

기획1 작가 조명 | 주요 작품

빛이 지나갔다

투명한 듯 나를 투과하면서

초여름 초록 잎을 흔드는 나무

흔들리는 가지 사이로 비추는 햇살처럼

빛이 어둠을 밀고 비쳤다

빛나는 사랑이 날았다

작은 네가

기획1 작가 조명 | 주요 작품

작은 네가 통통통 달려와

퇴근 늦은 내 손 잡아 이끌어 간 마루 끝

가리키는 하늘에는

구름 지나간 뒤편에

빛나는 반달이 혜엄치고 있었다

정답게 작은 별도 데리고.

은빛 목소리

기획1 작가 조명 | 주요 작품

노을도 삭아 어두워지는 하늘로
망망한 바다에서 솟구쳐 오르는
작은 새를 보았습니다.
끝없는 하늘로 날아오르는
당신의 은빛 노래를 보았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

기획1 작가 조명 | 주요 작품

당신은 멀리 병상에 누워 계시고,
가까이 지키지 못하는 나는
대신 산길을 오갑니다.
새로 물 오른 낙엽수,
그 틈 틈에 가려졌던 산벚꽃나무들이
지금 화안하게 꽃을 피우고 서있습니다.
언제나 젊은 당신 웃음처럼.
저 하늘에 서려있는 빛은
어머니 마음이며
들에 깔린 잔디에 내리는 햇살,
벗종거리는 산새들 날개 짓에도
당신이 계십니다
어떤 고통에도 메이지 않던
그 자유로운 마음으로
이 봄날 일어서시어
푸른 생명을 품어 기르고 있는
어머니를 꼭 닮은
이 들을 굽어 보시어요.

안개마을과 어머님의 마당

기획1 작가조명 | 나의 문학을 말한다

장방영

고향은 안개와 나무들의 마을이었다. 해묵은 나무들 사이로 안개가 내려앉고, 그 틈새에 사람들과 초가가 있었다. 형제였던 할아버지들의 자손이 세대를 거치며 조금씩 늘어나, 제사 밥을 나누고 명절날도 집마다 돌아왔다. 대부분 식구는 적고 아주 외로운 집도 있었다. 땔 하나 데리고 사는 과부나 젊은 시절 작은 부인에게 밀려난 할머니, 풍파 후에 자신도 남편 없는 늙은이가 된 그 작은 부인, 그들의 오두막이 나란히 있었다. 귀뚜라미들이 까만 눈으로 올려다보는 축축한 부엌 훑바닥, 모두 보리밥을 먹는데 부모가 일부러 논을 사서 쌀밥을 먹었던 동백나무 아래 집 늦동이 외아들만 예외였다.

쉬쉬하는 안개의 이야기도 커커 내려앉아 있었다. 동네 가운데 길 옆에 사는 부부는 사삼 때 당한 고문으로 정신이 어정쩡해졌다, 사삼 당시 성담 쌓고 죽창 들고 마을을 지킬 때 우리 할아버지는 총신으로 가슴을 두들겨 맞아 그 후유증으로 일찍 돌아가셨다, 골목 안 집 할머

니 등불 할 때 보이는 깊은 흉터들은 식량을 내놓으라고 밤중에 달려든 폭도들이 칼로 긁어서 그렇다, 들판에서 소를 훔쳐 잡아먹으며 숨어 살던 총각은 어느 날 홀어머니를 찾아와 다투다가 어머니를 죽게 했다, 주말마다 시아버지가 도시에 사는 아들의 며느리만 불러서 일을 시켰는데 그 며느리는 농약 먹고 죽었다, 장모에게 소를 팔라고 해서 돈을 치른 사위가 이르기를 베개 밑에 돈을 놓아서 베고 그 옆에 큰 나대를 두고 주무시라고, 시킨 대로 했던 그날 저녁 집에 도둑이 침입하고, 놀란 장모가 나대를 휘둘러 쫓아낸 후 땔네 집으로 달려갔는데, 그 밤중에 불이 켜져 있고 손 다친 사위에게 땔이 약을 발라주고 있어서, 그대로 발길 돌려서 집에 왔다, 어떤 사람은 며칠이나 안 보이는 이웃 할머니 행방이 궁금해서 물어보러 그 아들 집에 갔다가 오려는데 잿막에 모아둔 잿더미 가운데로 흰 옷고름이 살짝 보였다.

그러나 아이들은 어머니의 마당에서 언제나 충만한 밤과 아늑한 낮을 살았다. 지붕은 어두운 산에 안겨서 바닷물처럼 깊은 잠속에 잠겼으며, 들에 나는 산새들처럼 아이들은 햇살과 바람 속에서 놀았다. 하늘에서 시간을 재는 푸른 별들과 가끔 짖는 검동개가 그들의 수호신이었다. 지네 잡으러 달래 캐러 고사리 꺾으러 산으로 들로 달리던 아이들, 그 중에 몇은 마을을 감아 흐르는 내에 물귀신이 흘려서 가버렸다.

며칠을 앓았던 어느 새벽 어머니 옆에서 반쯤 깨어 꿈결인 듯 들었던 노래, 여러 목소리가 어우러진 그 노래는 멀어지다가 사라졌다. 그 슬프고 간절한 가락이 너무나 궁금하였으나 어머니는 더 자라고 할 뿐 답을 주지 않으셨다. 자라서 생각해 보니 상여를 옮기던 사람들의 노래였던 것 같았다. 마을 뒷동산에 상여집이 있고 그 옆에는 알록

달록 형겼 조각을 달고 당나무도 서 있었다. 거기 땅기가 아무리 탐스럽게 붉어도 아이들은 다가가서 따는 법이 없었다. 무엇인가 신비하고 무섭고 섬뜩한 기운이 도사리고 있는 듯 오싹하여 멀찌감치 돌아서 지나갔다.

옛날 사람도 이야기도 다 사라진 지금, 허물어진 오두막과 베어진 나무들로 풍경도 길도 없어져서 갈 수 없는 곳, 이 세상에서 사라진 그 마을은 하늘 속에 구름숲이나 호수 옆으로 옮겨갔을지 모른다. 안개마을 밖은 죽음이 자주 삶을 후려치는 세상이다. 세상일은 더 빠른 물살로 바위에 부딪치며 급하게 흐르고, 그 물가에 비켜서 생명의 나무에 잎이 갈리고 꽃이 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는 어렵다. 그래도 온 우주를 다 가진 듯 어린 아이들은 충만하여서 노래 부르며 새롭게 삶을 씻는다. 예기치 않은 순간 찾아와 밀물처럼 범람하는 작별의 아픔, 칼을 갈며 우는 바람과, 가혹한 어둠에 허황된 조명만 비추는 도시, 그 속에서도 생명은 길을 찾아 나간다.

한 때 물러갔던 바다는 죽음으로 되돌아오고, 해안선을 가득 채우는 어둠이 오면 안타까운 작별을 받아들여 보내고 돌아서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안개 속에는 몇 천 년 전부터 아이들이 숨죽여 울었고, 묻힌 뼈들이 신음하는 어둠은 그 무엇으로도 밝아지지 않는다. 천개의 만개의 바다 문을 열어 흰 갈기 나부끼는 말들을 불러내는 바람처럼, 발을 구르고 하늘을 찢으며 홀로 외치는 고통의 질주 속에서도, 슬픔으로 비 내리는 회색인 날에도 어른이 된 아이는 다시 아이를 데리고 어린 시절을 찾아간다. 어디에 둉지를 틀었던 집을 찾아 날아야 한다. 흐려진 마음이 문 닫고 쓰러져 캄캄한 잠을 청할 때에도 어디에

서인지 일어나라는 속삭임이 들려온다.

나의 삶에 연결된 사람들 중에는 불이 되어 삶을 고통으로 달구거나, 돌 같은 가슴과 절벽 같은 완강함으로 뻗어나가려는 나의 의지를 저지하는 벽 같은 역할도 한다. 절망의 바다로 떨어지는 일도 있지만 반대로 자라나는 기쁨도 만난다. 이승에서도 저승에서도 나를 기다려 줄 것 같은 사람들은 다시 만나기를 갈망하게 한다. 멀고도 추운 땅, 바람 쓸쓸한 가시덤불 위에 얇은 햇살 구슬프고, 지저귀는 새 한 마리 없이 바다 소리도 없이 바위들이 영생을 되풀이하는 땅, 그곳을 지나고 나면 달빛 푸른 곳 하얀 길 위에 아이들이 놀고, 다시 갈 수 없던 끊어진 길 너머에 다다를 날이 올 것만 같다. 한 순간 드러나는 신비한 빛처럼 어느 계곡에서 건너오며 부르는 소리처럼,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는 꿈속의 마을 그 길에 집들, 어두운 밤도 아니고 환한 대낮 또한 아닌 어떤 시간에 드디어 마중 나올 사람들, 그들과 함께 부르는 노래 가락과 웃음소리로, 울려 퍼지는 햇살 속으로 들어서는 날, 나의 시는 그날을 향해 나가는 춤이며 혼자 부르는 노래이다. 되찾은 안개 마을에는 다시 까마귀와 말뚱가리와 꿩과 참새와 오소리와 개와 돼지와 닭들과 뱀과 쥐와 고양이와 삶이 달빛 속에 그림자로 스며들어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놀 것이다.

천지연 검은 돌 계곡에

자라는 나무

새 봄이면 도로 짊어져

주저 없이 부서지는 폭포

철쭉 막바지 보라색 꽃빛을 따라

한라산과 하늘로 파랗게 안겨 가고

자유로운 구름 따라 떠다녀

안으면 언제나

가슴 가득 넘치는

하늘 물결

2024년 여름 강방영

1. 들어가며

시인 강방영이 지난 20여 년 동안 출간한 다섯 권의 시집을 정리하고 결산하는 시 선집을 내게 되었다. 강방영은 1982년 『시문학』을 통해 등단한 이래 『집으로 가는 길』(시문학사, 1986), 『생명의 나무』(아름다운 세상, 1993), 『달빛 푸른 그곳』(경원, 1995), 『은빛 목소리』(로드, 1999), 『인생학습』(대학사, 2005)과 같은 시집을 연이어 발표함으로써 우리문단에서 중요한 시인의 한 사람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그는 영미시를 전공하고 대학에서 후학을 가르치면서도 한국적인 삶의 체험과 정서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서정적 시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주목된다. 그의 서정적 시 세계는 자신이 성장해온 제주도의 풍광 속에서 체득된 자연스러운 지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로인해 그는 제주가 넣은 탁월한 역량을 지닌 흔치 않은 시인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한 시인이 수십 년 동안에 걸쳐 이룬 업적을 몇 마디의 해설로 갈래 지운다는 것은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지만, 시집 전반에 흐르고 있는 일관된 흐름을 추적함으로써 그의 시적 상상력의 본질은 어느 정도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시인에게서 나타나는 시적 상상력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시적 자아에 대한 해명으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 시적 자아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원초적인 관계를 사유하고 인식하는 시인의 본질적인 정서와 상상력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시인과 시적 대상 사이에 얹힌 세상과 인간의 원초적 관계에 대한 해명이란 하이데거와 같은 철학자의 어법을 빌면 ‘존재의 은폐성’을 드러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필자가 이 글을 쓰기 위하여 강방영의 시집들을 두루 읽으면서 느낀 일차적인 소감은 도대체 이 혼탁하고 낭만적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 시인의 시가 어찌하여 이렇게 맑고 순수한 서정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의 시편들을 읽어가는 동안 내내 필자는 따뜻한 누군가의 손을 잡고 제주의 고즈넉하고 청량한 어느 시골길을 오랫동안 걷는 듯한 느낌을 가졌다. 그의 시에서 우러나오는 이 같은 순수함과 따뜻함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그것은 그의 시의 원형질에 내장해 있는 서정성에 바탕한 생명과 자연에 대한 깊은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닐까 한다.

실제 강방영의 시들은 주로 시인의 주관적인 정서를 통해 인간과 세상을 인식하는 담론 양식으로서 서정시가 지니는 본래적인 시의 문법에 충실히 기초하고 있다. 말하자면 시인이 처한 환경과 시적 자아가 서로 통전되는 일체감 속에서 미적 인식이 흘러나오고, 그것이

세상과 시인의 거리를 아름답게 결합시킨다. 따라서 그의 시는 현실적 삶과 인간의 모습에 대하여 구체적인 시적 감정이나 의도를 드러내기 보다는 시인의 내적 정서의 세계를 충실히 표현하고 있다. 그의 시에서 나타나는 ‘생명과 사랑’의 주제는 인간 삶에 있어서의 가장 본질적이고 원초적인 내용들이지만, 이를 통하여 시인은 인간과 삶의 의미를 새롭게 일구어낸다. 그의 시집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생명과 사랑을 위한 시인의 상상력과 정서는 오염되고 혼탁한 현대적 삶과 인간에게 밝고 맑은 생기와 활력을 제공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2. 생명의 나무, 나무의 생명

강방영은 쳐녀 시집이었던『집으로 가는 길』에서부터 생명에 대한 관심을 짙게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 그의 두 번째 시집의 제목은『생명의 나무』일 정도로 시인의 생명에 대한 관심과 인식은 일관되게 나타난다.

생명의 기원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이 질문은 세상과 우주에 대한 인식과 사유의 궁극적이고 근원적인 물음이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철학자들과 시인들이 이에 대한 탐색을 거듭해 왔다. 어떤 이들은 우주 만물을 존재케 하는 생명의 근원이 ‘물’이라고 하기도 했고, ‘불’이라고 하기도 했고, ‘원자’라고 하기도 했다. 강방영 시인의 경우, 그의 시 전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시적 제재는 어린아이와 그들의 생명에 대한 것이며, 이들을 생명력의 근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

하다.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움직이는 어린 생명이나 이미 태어나서 세상에 존재하는 어린 생명들에 대하여 시인의 관심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찰랑찰랑

어둠의 바다를

일렁이는

반달에 기대어 누운

너

심장 박동 따라

파닥이며

고개를 젓고

손발을 흔들며

너는 너의 노래에

취해 있다

어느 날

너는 어떻게

내게 왔지?

－「우주와 아이」 일부

위의 시에서 시인은 ‘아이’로 상징되는 새로운 생명의 모습과 탄생에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준다. 「우주와 아이」는 제목대로 어머니의 뱃속이라는 ‘우주’에서 유영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그려낸다.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어린 생명은 오염되지 않은 원초적 우주의 생명력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어린 생명은 “심장 박동 따라/ 파닥이며/ 고개를 젓고/ 손발을 흔들며” 노래에 취해 있다. 이제 생명은 무한한 축복을 자신의 온몸으로 받아들이려는 신생의 몸짓으로 활기차게 움직인다. 시인은 찰랑대는 어둠의 바다에 누워있는 ‘태아’의 모습을 통하여 생명과 사랑에 입각한 진정한 모성(母性)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여기서 우리는 시인의 생명에 대한 사랑의 형태를 짐작할 수 있다. “어느 날/ 너는 어떻게/ 내게 왔지?”라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과 나누는 대화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시인은 어리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작은 생명체에 주목하고 그것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구현해야 할 ‘참 사랑’ 임을 일러준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어린이들에 대해서도 시인의 눈길은 잠시도 멈추지 않는다. 세상이 어둠 속에 잠기고 이제 아이와 시적 화자만이 남은 시간에 “감은 네 눈꺼풀/ 네 이마 위에/ 숨결 위에” (『비 오는 날의 자장가』) 모든 상념은 다 담기게 되며, 부서지는 오후의 햇살 속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시인의 발걸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산으로 꿈 속에서도/ 산으로 달리는 아이들” (『집으로 가는 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강방영에게 어린 생명은 세속의 때가 묻지 않은 영혼과 정신의 순결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생명은 우주의 원천이며 삶의 본질이다. 「작은 네가」와 같은 작품에서 이 같은 시인의 정신은 더욱 잘 드러난다.

작은 네가 통통통 달려와
손 잡아 나를 이끌어 간 마루 끝
가리키는 하늘
구름 지나간 뒤편에는
빛나는 반달이 헤엄치고 있었다
정답게 작은 별도 함께 데리고

—「작은 네가」 전문

영국시인 W. 워즈워드는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했지만, 세파에 찌들어 오염되고 타락한 어른들과 달리 어린이는 자연 상태와 같이 순수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어른들의 마음과 달리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시내가 흐르고 달빛과 별빛도 그대로 반짝인다. 삶에 찌든 어른들의 눈은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살펴볼 겨를도 여유도 없는 것이지만, 아이들은 저무는 해와 새로이 뜨는 달의 모습이 모두 신기하기만 하다. 그리하여 힘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어른이 집으로 돌아오면, 작은 아이는 ‘통통통’ 어른에게 달려와 구름 뒤편에서 헤엄치고 있는 반달과 정답게 떠있는 작은 별이 있는 마루 끝으로 어른을 데리고 간다. 이제 어른이 아이에게 ‘별 하나 별 둘’을 일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가 어른에게 달과 별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시에서 어른에게 다가오는 아이의 ‘통통통’이라는 의성어는 세상을 향한 아이의 ‘열린 가슴’과 어른의 ‘닫힌 가슴’을 잊고자 하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강방영의 시가 호소하는 생명가치의 존귀함은 단순히 자신의 아이

에 대한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우주와 같은 보다 넓은 지평에 대한 서정적 울림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자연으로부터 시인은 더욱 깊은 생명의 원천을 발견한다. 우리의 생명이 피어 나온 곳이 자연이고 우리의 육신이 돌아갈 곳도 자연이라고 시인은 생각하기 때문이다. 시인은 그의 시 전편에서 자연의 만물인 ‘여새’ ‘나무’ ‘숲’ ‘바람’ ‘돌하루방’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부여하고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인식의 세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그는 ‘생명의 나무’를 사랑하는 시인이지만, 동시에 ‘나무의 생명’도 사랑하는 시인이 된다.

은하를 바라보며
동트는 새벽하늘
여명을 바라보며,
해 진 길을 걸으며
조용한 시간
닫힌 창을 보며
가꾸어낸 나의 나무를.

—「나의 나무」 일부

언젠가는 나도
걸어 들어갈 수 있으리라
저 초록빛 속으로
나무가 나무속으로 녹아
산이 다시 산으로 들어가

드디어 이루는
드넓은 빛
하늘 가득한 웃음소리로
낭랑하게 햇살 울려 퍼지고

『숲을 지나며』 전문

이제 그의 시는 자연의 내밀함을 사물로 육화시킴으로써 그 존재론적 의미를 새롭게 일구어 낸다. 시인이 숲을 지나면서 “언젠가는 나도/ 걸어 들어갈 수 있으리라/ 저 초록빛 속으로”라고 말하는 것은, 자연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자연 속에서 거처할 피난처를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연과 동화되어 함께 거주하고자 하는 시인의 소망은 현실과의 대립에서 한걸음 물러서서 자신의 모든 헛된 욕망을 다 내려버리고자 하는 무욕의 공간 속에서 형성된다. 이것은 바로 온갖 헛된 인간의 욕망을 거두어들이고 정적인 자연의 상태로 가까이 다가서고자 하는 소망의 표현이다. 시인이 나무와 숲과 같은 자연을 대상으로 새로운 삶을 꿈꾸는 것은 인위적이고 가공적인 세상의 위선과 추악에서 벗어나서 우주의 원초적 순수함과 순결성의 세계로 귀의하고자 하는 바람이라 할 것이다.

강방영의 시 전편에 나타나는 ‘바다’의 이미지도 이와 다를 바 없다. 그의 시에서 허다하게 나타나는 바다의 이미지는 물론 시인이 제주바다를 일상적으로 마주보며 살아온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인이 생동하는 바다의 모습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과 순환의 의미를 찾고자

하기 때문이다. M. 엘리아데의 해석대로 “물에 들어가는 것은 형태 이전으로 되돌아감, 완전한 재생, 새로운 탄생을 상징한다.” 그리하여 바다는 새롭게 태어나는 신생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으며, 죽음과 생명의 순환적 상징이다. 시인은 바다를 이렇게 노래한다.

어둠을 깔아
기름처럼 매끄러운 바다여,
너의 가슴을 열어
지친 나를 받아다오.

나도 너를 따라
밝아오는 아침 하늘을 노래하고
흰 모래밭 차르르 밀어보고,

나도 너처럼
깔깔거리며 뛴박질하고
포부에 넘쳐 당당한 배를 띠우고
아기자기 고깃배도 쓰다듬고,

또 너처럼 때로는
폭풍에 머리 풀어헤치고
분노에 넘친 밤
하늘을 때리고

벌판을 휘몰아쳤었다.

「나의 바다에게」 일부

시인은 바다에 자신을 맡기고자 하고 바다와 함께 있고자 한다. 바다는 모든 것을 포용해준다. “어둠을 깔아/ 기름처럼 매끄러운 바다여,/ 너의 가슴을 열어/ 지친 나를 받아다오.”고 하면서, 자신을 향하여 모든 것을 무한히 열어 받아들이는 바다와 한 몸이 되고자 한다. 강방영의 시 전편에서 바다의 이미지가 모성의 이미지와 빈번하게 함께 등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바다는 어머니의 품과 같이 평화와 안락의 대상이다. 시인에게 바다와 어머니는 동이반복이며 어머니와 바다는 언제나 함께 있다.

입속에서 가만히

어머니 하고 부르면

화악 펼쳐지는

이른 아침 맑은 하늘

햇살을 받아 빛나는

눈부신 바다

다시 눈감고

어머니 하고 되뇌면

여름 바람 서걱이는

푸른 수수밭

지평을 달리는

잎사귀의 물결

- 「입 속에서 가만히」 전문

그의 시에서 어머니는 ‘깊은 바닷물’이며, ‘맑은 하늘’이며, ‘푸른 생명’이다. 원초적인 바다의 모습과 여름 수수밭 같은 푸른 물결은 모두 시를 풍요롭고 윤택하게 해주는 상징적 기제들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바로 생명력과 포용력으로 가득한 어머니의 모습이다. 실제로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며 많은 것을 베풀어주고 많은 것을 앗아간다. 생명과 세상에 대한 사랑은 자연으로부터의 가르침에서 생겨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시인은 간과치 않는다. 그래서 ‘제주 오름’으로부터도 시인은 세월과 인생의 의미를 찾는다.

그래서 꽃 떨어지듯

우리가 사라져도

산과 들의 저 빛이

부채 살 접었다 펴듯이

영원한 계절을 반복하는 동안

아득한 시간의 파도에 실려

다른 해안에서 너 다시 살아

언젠가는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것이라고.

오늘처럼 돌 위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오름의 시간』 일부

제주의 오름은 “산과 들의 저 빛이/ 부채 살 접었다 펴듯이/ 영원한 계절을 반복”하는 수많은 세월의 흐름 끝에 지금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 시인은 알고 있다. 오름이 현재의 모습과 같이 있는 것은 “수 세기 시간을 건너/ 너는 이 곳에 온 것이고/ 시간은 우리 삶 안에서도/ 그 씨앗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꽃 떨어지듯/ 우리가 사라져도” 이 세상은 영원하리라는 사실을.

3. 사랑의 세상을 꿈꾸며

강방영 시의 바탕에 흐르는 기본적 인식이 생명과 사랑을 위한 것임은 앞서 살펴 본대로이지만, 이 때 사랑의 개념이 단순히 남녀 간에 이루어지는 사랑이라기보다는 그 내연에는 생명체, 이웃, 자연에 대한 넓은 사랑의 의미가 담긴다. 그리하여 그의 시는 인간과 자연과 공동체적 삶에 대하여 더 깊은 사랑을 꿈꾸기 시작한다.

예컨대 강방영의 시 도처에서 나타나는 상실된 고향과 시골 마을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과 추억은 우리들 주변에서 흩어진 삶의 잔해들처럼 남아있다. 그의 시편들, 특히 『달빛 푸른 그곳』에 실린 시들에서 이런 모습은 잘 드러나고 있다. 한편의 서사극을 보듯 고향의 옛

모습과 동무들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달빛 푸른 그곳」, 고향마을의 풍요로움과 너그러움을 기억케 하는 「서홍리 새 길」, 「산촌」 등이 바로 그런 작품이다. 사라진 혹은 사라져가는 고향에 대한 향수와 기억을 통하여 시인은 과거가 아닌 현재의 시간 속에서 우리들이 기댈 수 있는 존재의 집이 찾아질 수는 없을 것인가를 묻고 있다. 사라진 고향의 아름다운 풍경과 이웃을 기억하면서 문명화된 현실을 비판하거나 새로운 삶을 위한 상상력을 이끌어내는 것은 많은 시인들이 흔히 기대는 상투적인 기법인지 모른다. 그러나 다른 시인들과 같이 고향과 자연이라는 소재를 이용하고 있으면서도 강방영의 시에서 드러나는 시골과 자연에 대한 태도와 인식은 완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골마을의 서정적인 모습을 통하여 고향의 정서를 그려내고 있는 「산촌」을 살펴보자.

석유등잔이 밝히는 밤

노르스름하게 물드는 흰 종이

빛과 어둠이 섞여

(중략)

화악 드러내어

잘 잘못 가리는

예리한 섬광은

어디에도 없던 동네

그늘에는

몽롱한 꿈이 졸고

포근하게 숨쉬는

나무들 아래에서

아이들은

영원을 살았다.

「산촌」 일부

「산촌」은 존재의 의식 뒤에 은폐되어 있던 부재의 추억들 속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석유등잔이 밝히는 밤/노르스름하게 물드는 흰 종이/빛과 어둠이 섞여” 있는 일몰의 시간은 한낮에 긴박하던 일상의 현실들을 되돌려 우리를 고즈넉한 정적과 아련한 회憶의 순간으로 이끌어간다. 강방영의 시에서 고향에의 추억이나 자연에의 이끌림은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터전이다. 이미 사라져버렸거나 변방으로 밀려버린 고향의 시골 마을에서 시인은 자신이 기댈 수 있는 또 다른 존재의 집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몽롱한 꿈이 졸고// 포근하게 숨쉬는/ 나무들 아래에서/ 아이들은/ 영원을 살았다.”고 표현되고 있듯이, 시인에게 고향에의 추억이나 자연에의 이끌림은 역동적인 자기투여의 공간이 된다.

강방영의 시에서 과거를 추억하는 힘은 과거의 기억 속에 매몰되었거나 사라져버린 사물들을 현실의 삶 속에서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오랜 망각의 그늘 아래 잠겨있던 수많은 삶의 파편들은 과거의 일로 숨어 있지만, 그에 대한 발굴은 현재적 삶의 의미를 새롭게 재생시

킨다는 사실을 그의 서정시는 잘 보여준다. 과거로부터 삶을 불러내어 현재와 연결시키고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그의 시가 삶과 인간에 대한 견고한 전망에 기초해 있다는 평가를 가능케 한다.

그러나, 그의 시가 언제나 희망과 낙관의 분위기에만 젖어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 그의 시도 슬픔과 어둠을 동반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슬픔이 사사로운 감정의 토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래적인 선이나 믿음의 상실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이 시대와 삶을 향한 일종의 구원의 메시지와 같은 것이다. 실제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의 사랑부재의 현실에 대해 얼마나 절망하고 있는가. 삶의 현실이 암울한 것이듯이, 시인도 ‘안개’와 ‘어둠’에 쌓인 삶의 현실을 슬퍼한다.

하늘을 가리고

바다를 가리고

나무를 지우고

돌을 지우고

창문을

눈을

가리는 안개

(중략)

울음소리는

핏빛처럼

안개를 뚫고 가지만

캄캄한 결음에

부딪치는

어둠

어둠으로만

어둠은

열려있다.

「靄 笛」 일부

우리시대의 삶과 역사에는 ‘어둠’과 ‘안개’가 자욱하다. 등대에서 배에서 아무리 안개를 피하기 위해서 ‘무적(霧笛)’을 울려도 어둠과 안개는 질게 드리워져 있다. 제주의 아픈 역사인 4·3에 대한 기억도 미해결인 상태로 “어둠으로만/ 어둠은/ 열려있다.” 이 시대가 인간을 인간답게 존재하지 못하게 하고, 인간과 세상 사이의 고유한 관계를 파괴하는 ‘궁핍한 시대’라고 할 때, 시는 인간과 세상 사이의 진정한 관계를 복원해야 하는 역할에 직면하게 된다. 그래서 자크 데리다는 진정한 시인이란 더러운 것 앞에서 숨지 않고 더러운 것에 대항하며 더러운 것에 대해서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했다. 시인에 의해서만이 사물이 사물일 수 있고 언어가 언어일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시인은 가장 최근의 시집『인생학습』에서부터 자신을 근본적으로 되돌아 보기 위한 실존적 주체 찾기의 노력을 하게 된다. 이 시집에서부터 갑자기 ‘어둠’과 ‘안개’의 이미지가 더욱 자주 나타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를테면 「폭포에서」와 같은 시에서 시인은 폭포를 바라보면서 그동안 자신의 일그러진 욕심과 고통을 “쏟아져 내려 거칠게 흐르는 물속에/던져 버리고” 싶어 한다.

무엇이 보이니?

장대한 물줄기

내뿜는 흰 물보라 속에,

보이는 것은 오직

보고 싶지 않은 네 모습,

쏟아져 내려 거칠게 흐르는 물속에

던져 버리고 싶은

일그러진 욕심과 고통,

아니면 그에 따르는 부끄러움?

나를 위해 안개를,

이제 무엇도 바라볼 수 없으니

부끄러움 덮어줄 안개를,

초라한 마음 묻어 줄 안개를.

「폭포에서」 일부

여기서 시인이 “장대한 물줄기/ 내뿜는 흰 물보라 속에” 자신을 내던지고자 하는 것은 바깥세상을 향한 역동적인 욕망의 표출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내성적인 사색과 관조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힘을 얻고자 함이다. 말하자면 시인은 일상적 욕망을 비워냄으로써 자신에게 지워진 세상의 무게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그가 꿈꾸는 것은 욕망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벗어남으로써 의식의 가벼움을 얻고자 하며, 더 나아가 부정적인 세상을 긍정의 힘으로 끌어안음으로써 절망에서 희망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강방영의 세계인식은 언제나 긍정적이다. 부정을 긍정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환유하고 환치하는데 그의 시의 특징이 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시인에게 긍정의 미학, 사랑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시인이 이 세상 만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그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도 이 세상에 대한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노래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희망에 대한 시인의 감정은 때로 결연하기도 하고 때로 간절하기조차 한데, 이는 따뜻한 사랑의 감정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구원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시적 전망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어둠과 슬픔과 절망에 맞설 빛과 희망과 낙관적 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의 시는 서정의 폭과 깊이를 더하게 된다.

4. 저기, 다시 피어나는 한 송이 꽂이 되어

강방영의 시는 언제나 다정하고 따뜻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는

격렬하거나 고조된 언어 없이도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봄날에 다시 피어나는 한 송이 꽂처럼 보여주는 시인이다. 저 혼돈과 환멸의 시기였던 80년대와 90년대를 관통해 오면서 우리들에게 칠혹같이 엄습했던 어둠과 슬픔 속에서도 그는 놀라울 정도로 따뜻하고 명징한 영혼으로 생명과 자연에 대한 사랑과 희망을 꿈꾸며 노래해왔다. 그리하여 그는 이 고통의 시대를 견뎌낼 수 있는 친란한 ‘서정의 시학’을 구축하였다.

무릇 시인은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찾기 위해 생명과 자연을 찬미해야 하며 인생과 세상에 대한 근원적인 믿음과 사랑을 노래해야 하는 창조적 정신을 가진 자들이다. 오늘날과 같은 과학기술시대에 갈수록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시인이란 그래서 위대하고 소중한 존재이다. 어느 글에서 강방영이 “시인은 고립, 슬픔, 믿음 등 현실의 포괄적인 관심사를 시로 표현한다. 그래서 시는 인류의 정신적 질환을 치유하고 삶을 해명하는 예지를 전달한다.”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서』, iv쪽)고 말했듯이, 그의 시는 이 암울한 시대에 생명과 사랑의 정신이 왜 필요한지를 일관되게 물으면서 그 실현을 노래하고 있다. 그가 창조적 시 정신을 가진 훌륭한 시인으로 평가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하늘에서 흘러가는 구름과 바람에 흔들리는 잎새를 바라보면서도 영혼의 멀림을 느꼈듯이, 오늘도 그는 제주 푸른 바다의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보며, 흘로 적요한 제주의 오름에 올라, 해맑은 영혼으로 생명과 사랑을 노래할 것이다. 속진에 찌든 채 잠든 우리들의 머리맡에 앉아서 눈물겨운 서정의 노래를 속삭여 줄 것이다. 저기, 다시 피어나는 한 송이 꽂이 되어.

회원 작품

시°

시조°

동시°

수필°

동화°

소설°



시.	강병철	시조.	오영호
	강중훈		
	김광춘		
	김병택	동시.	김섬
	김성수		김정희
	김승범		양순진
	김용길		장승련
	김원욱		
	김종호		
	김창화	수필.	고길지
	나기철		고연숙
	문무병		김순신
	문상금		정영자
	서정문		조옥순
	양금희		
	양문정		
	양전형	동화.	김란
	윤봉태		박재형
	이명혜		
	이소영		
	한천민		소설.
	홍창국		박미윤

숲이 사라지네

회원 작품 | 시

기온이 상승하고 있어.

숲이 사라지고 있어

농업을 위해 숲을 개간하고 있지!

목재와 종이를 얻으려 숲을 황폐화하고 있어.

도시가 확장되며 광물을 캐면서 숲은 망가지네

산림이 줄어들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고,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면서 만년설이 감소하지

늦기 전에

이미 늦었지만, 산림을 보호하고 복원해야 해

만년설을 유지하여 온실가스 농도를 줄여야만

기후 변화를 완화하고 지구생명체가 살 수 있네

우리가 지켜야 할 빙하

장병철

오랜 시간 눈이 쌓이고 다져져서 빙하가 되었지

긴 시간 지구의 기후와 환경을 수호하였네.

지금 검은 탄소가 빙하에 스며들어

더 빨리 빙하를 녹이고 있어.

숲이 줄어들고 빙하가 녹고 있어

인류가 위험하듯이 모든 동식물이 위험하지,

모든 생물은 섭이 아니야.

한 생명이 죽으면, 그것은 나의 생명이 소실되는 것이고

지구 생태가 손실되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의 지구 생태계의 구성원이지.

빙하는 우리를 지키고 울창한 숲은 빙하를 지켜내지.

우리는 숲을 지켜야 하네

강중훈

위대한 현인이 말하였지.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해.

숲이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지구 환경과 생태계를 지켜낸다는 것을.

과거라고

들과 산을 푸르게 푸르게 품어 살다
들숨*으로 벨어낸 진실을 말하자면
먼 산 마주한 대천바당

못다 한 사랑인 거라고

물가로 찾아들어
물숨먹고 잠든 내 누이 목숨인 거라고

미움은 믿음이라고

뿔소라 함께 낙지 오징어 맑은 눈망울
사랑은 미움이라고

숨을 쉬던 바다
쏟아지는 작달비



강병철

2016년 『시문학』 등단. 시집 『대나무 숲의 소리』, 소설집 『지배자』, 번역 『야생비둘기』 외 .

분재 益裁(1)

지금이라고

앞서간 이야기는

작달비 맞고 떠나간 영혼

진실과 거짓도 그쯤에서 분칠하면

집새, 들새, 들짐승 목숨이란 목숨은 모조리

아직도 그곳을 바라만 보고 있는데

총계를 오르려다 낙화한 꿈인 거라고

내 친구의 모습에선 단내가 나서 좋다

꼭 다문 입

도드라진 눈동자

상처 입은 미소에서 풍기는

그는 에스프레소였어

나는 진실만을 이야기 했을 뿐인데

그는 보다 진한 원두의 생존가치를 논했던 거야

나는 되도록 창 가까이 앉으려 애를 썼으며 그도 나를 배려했지

창밖 정원엔 상처입은 나무가 있었으며

가지에선 진한 송진냄새가 흐르고 있었지

우린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지

진한 향이 번지는 에스프레소,

상처난 나뭇가지의 아픔도 잊은체

오로지 번져나는 우리들 우정에 취해 있었던 거야

라떼 아메리카노, 로스팅 잘된 원두커피가 아니어도

정원의 파란 하늘은 순수했어

*들숨: 해녀가 자맥질 하기 직전 들이키는 숨

관계의 추억

회원 작품 | 시

김광춘

입술에선 빨간 선지피 같은 와인 향도 물어났거든

그런데 그건 거짓말이었어

거짓말이면 무엇이든 좋다던 그가

잘못 자란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게 보여

방금 바리스타가 지나갔어

에스프레소 머신을 전문적으로 다룰줄 아는

썩었거나 잘못자란 마뭇가지가 잘려나갔어

분재가 되어버린 카페 라떼

형식은 다르지만 단내나는 예술이 좋다던

늘 함께하자 해 놓고

아무

변명도 없이 떠나는

네개

무슨 말을 하겠니

무를 수 없는 신뢰를 허문

마음의 상처

크지만.

이보다 더 큰 고통은

너와 함께

했던,

지난날의 지울 수 없는

관계의 추억



강중훈

1993년 『한겨레문학』 등단. 시집 『가장 눈부시고도 아름다운 자유의지의 실 천』 외.

검은 얼굴의 하얀 미소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형 아우 하며 지내는
중년 농부가 앞집에 산다
그는 매일 동트기 전에 집을 나서
해가 저문 뒤에 돌아온다
감귤농장 일을 하며 밀짚모자로
얼굴을 가려도
파고드는 뼈약볕은 막을 수 없는지
검게 그을렸다
거무죽죽한 얼굴의 눈꼬리 위로
부챗살 주름을 펴며
환하게 웃을 때는 어린아이 같다
오늘처럼 삼십사오 도를 오르내리는
불볕더위에도 손을 놓지 않는
우직한 부지런함이 배었다
질박한 말투에 순박함이 뱜

까맨 얼굴은 흙을 닮았다
검게 그을린 얼굴의 허연 이를
드러내 웃는 모습이
어머니 품처럼 따뜻하고 푸근하다



김광춘
『대한문학』으로 시·수필 등단.

도브 코티지

-윌리엄 워즈워스

회원 작품 | 시

김병택

코발트색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가랑비가 이끄는 대로 걷다가
Dove Cottage^{*}라고 쓰인 표지판
뒤쪽의 작은 문으로 들어섰다

다소 정제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비상한 감수성을 지닌 사람이
깊고 오랜 사색의 과정을 거치면
가슴에 품은 강력한 감정은
마침내 자발적으로 흘러넘친다
조금이라도 가치를 지닌 모든 시는
그런 과정을 거쳐 탄생한다”**

도브 코티지 넓은 정원에는
워즈워스의 생각을 키운 수많은 꽃들이
조용히 숨 쉬고 있는 게 보였다
수선화를 바라보는 우리 입에서는

짧은 탄성들이 연이어 튀어 나왔다
우리는 빠짐없이 모두 간절하게
한 송이의 수선화가 되고 싶어 했다

*도브 코티지(Dove Cottage): 영국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가 살았던 집이다. 잉글랜드 컴브리아 그래스미어에 있다. 내셔널 트러스트에서 관리한다.

**워즈워스의 'Preface to the Lyrical Ballads'에 있는 내용이다

소통을 거친 뒤

먼지 쌓인 서랍에서,
책 더미 속에서 찾은 편지를
얼핏 볼 때마다 곤혹이 뒤따랐다

칡넝쿨 무늬가 즐비한 편지지에다
봉투에 노란색 띠까지 두른 이유를
이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편지 글자들이 그냥 누워 있지 않고
왁자하게 거친 물결소리를 내던
젊은 시절이 떠오르는 날 오후엔
마당 구석에 외롭게 편 야생화
한 그루가 얼른 내게 다가와
흐린 시야를 더 흐리게 만들었다

풀을 뜯던 마구간의 수말들이
갑자기 소리 지르는 광경을
부지기수로 많이 보았던 터였다

일부러 만든 침묵이 계속되면
사방으로 마음을 이동하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아 해가 질 때까지
바닷가에 앉아 있는 일이 다반사였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전달하려면
며칠 이상을 온통 삭여야 했다

가파른 세월이 흐른 뒤에야 만났다
소통하는 시간마다 입은 머리의 상처들을



김병택

1978년 『현대문학(평론)』, 2016년 『심상』으로 등단. 시집 『꿈의 내력』, 『초원을 지나며』, 『서투른 곡예사』 외.

김성수

잘가,
가서 잘 대학 가서 잘

— 저 훌로 손 햇살이 만든 대명사

오늘,
온다 55년 전 녀석이

— 저 훌로 눈 시각이 만든 관형사

밥먹자,
먼저 아니 먹자 밥

— 저 훌로 맛 밥집이 만든 조사

할머니,
자리물회 둘 그 육수 많아,

뭘 더?
— 나는 그날그날이 오늘이라는 것
더 뭘?
— 미여지뱅뒤 마중 끝자락 공허

어마 넋들라,

김성수
1996년 『심상』으로 등단. 시집『동그란 삼각』 외.



김승범

이쪽도 저쪽도
온차것은 아니주
이제 짹 아시난 손심엉
고닥고닥 걸어가사주
널모리 동동
널모리 동동
동심일체되엉 걸어가사주
아방은 엄친嚴親
어명은 자친慈親
영원한 가시버시 되사주

홀로였던 인생이었으나
지금부터는 하나의 인생만이 있으리니
서로가 서로에게 영혼의 동반자
하늘끝까지 반려자가 되리니
축복하노라
오직 그대이기에
이제 두사람은 춥지 않으리
더 이상 외롭지 않으리
이제 그대들의 집으로 들어가라
함께 하는 날들속에 웃음꽃을 피우라
그대 둘이 손잡고 걷는 길에
온 몸 온 마음으로 사랑의 꽃등피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보듬는
황금꽃 길동무가 되어라



김승범

2005년 『해동문학』으로 등단. 시집 『바람난 고양이』 외. 수필집 『무수천 바람소리』 외.

김용길

눈곱 끼인 아침
겨울을 본다
간 밤 잘 주무셨는가
겨울 속 들여다보며
나와 아침 인사를 나눈다

하얗게 비듬처럼 떨어지는
세월의 찌꺼기
허망한 사념들
콸콸 흐르는 수돗물에 씻어버린다.

또 하루 시작하는 시간
겨울 안의 나와
겨울 밖의 나를
견주어 보며
나잇살 빗는다

오름길에 서서

길을 간다
오름 갈래길에 서서 망서리는 동안
발등 하얗게 시려온다

바다같은 억새밭 사잇길
무지개 뜨는 산마루 너머
손짓하며 부르던 그리움이 있어
유년시절 되돌아보면
지금도 가슴 떨려온다

그때는 단숨에 뛰어넘던 고갯길
이제는 먼 숲으로 달아난 길
가다말고 되돌아와서
풀어진 신발끈 다시 조여매며
구름발 날리는 바윗등에 앉아
올라왔던 길 내려다 본다

어디로 갈까
굴곡진 내 생애의 갈림길

서로 엉켜지고 매듭진 세월 풀어내며
마음 안
새로운 길을 만든다.



김용길

1966년 『문학춘추』 등단. 시집 『비바리 연가』, 『바다와 섬의 이중주』, 『빛과 바람의 올래』 외.

김원욱

불발, 소리 들을 때 나는 내가 아니었다
 알 수 없는 산자락과 도량을 건너
 꾸불꾸불 골짜 길을 얼마나 달려왔던가
 많아서 지워질 것 같은 먼 길,
 검푸른 바이칼호를 지나 고비사막 깊이 묻힌
 무색의 하늘
 구름 몇 점 거느린 할머니 궤적을 따라가다
 거친 회오리바람통에 갇혀 구르고 또 구르다가
 무디어진 살점이 오돌토돌한 이슬로 맷힌 채
 쪼개진 산하山河
 날 선 철조망에 기대어 불발, 불발이라고
 목청껏 외치던 짧은 날
 무엇이 내 몸을 키우고 나를 돋아나게 했을까
 뒤돌아보면
 모호한 삶의 언저리
 인식할 수 없는 능선에서 파닥거리던
 내다 버린 무 토막 같은 육신뿐
 언제 제자리로 돌아가 나를 찾을 수 있을지
 미지의 등고선을 떠돌다가

근원을 잃어버린 나에게 고운 할머니는
 무작정 혼적을 따라가라 하고
 문명은 불발, 이라고 허망한 소리 내지르네

만약에 말야 우리가 설렘을 알았던 그날처럼 눈발이 펑펑 쏟아지면
 말야 맑은 시냇가 총총한 별들이 선경 선녀인 듯 내려올 때 눈꺼풀도
 떼지 못한 나무꾼처럼 말야 동정을 시궁창에 처박던 날 어디선가 펑
 텅 솟아오르는 밀둥치, 꿈일 거라고 비워서 가벼워지는 거라고

몰입의 저쪽 빼딱하게 서 있는 너를 바라볼 때 말야 거친 몸이 눈송이
 속으로 슬며시 들어서서 실핏줄처럼 엉켜 있는 후미진 골목길 빈둥대
 는 하루살이, 내 놀이터에는 별이 많아 바삭거리는 별밭을 건너온 가
 랑잎 사이 빌붙어 숨 쉬는 축산이 같은 아웃사이더 말야 가벼움도 쓸
 모 있는 거라고 한때는 다 울렁이게 했던 거라고 그렇게

천계의 거품 속으로 용이 진 들판이 속절없이 스며들 때 말야



김원욱

1993년 『예술세계』로 작품활동 시작. 시집 『그리움의 나라로 가는 새』, 『누군가의 누군가는』, 『푸른 밭이 사라졌네』 외.

네가
 세상에 나올 때
 햇살처럼 환하였을까
 구름처럼 무거웠을까?

조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세상은 축복이었다고 하는데,
 하늘 땅 나무 꽃 새 나비
 세상은 모두 사랑이었다는데,

네가 뒤통뒤통 걸어가서
 뜰의 패랭이를 뚝, 꺾었을 때
 그 때였을 거야, 슬픔이
 슬며시 네게로 스민 것은

어느 양곳은 미소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할 때
 멈칫하였는데
 “엄마아빠 다 좋아!” 라며 웃을 때

그 때였을 거야
미움의 박쥐가 네 어둠속으로 스민 것은

그 때였을 거야
내가 너를
바라보기 시작한 것도
고아처럼 떠돌 때
들소처럼 부딪치며 피를 흘릴 때
뼈꾹 뼈꾹 뼈꾹
네 외로움으로 혁혁대며
얼마나 산 속을 헤집고 다녔는지

어쩔 수 없이 너와 나
너는 늘 세상을 쫓아다니고
나는 늘 너를 쫓아다니고
슬픈 일이지만 너를 떠나지 않고
네게로 가는 길을 나는 알지 못한다.

한없이 네게로 가면서
기도를 배웠고
한없이 기다리므로
노래를 배웠다
이제는 네께서 돌아와
한없이 기다리는 자세로
나무처럼 하늘로 향하여 있다

나무여, 바위여, 낙엽이여!

나무여! 그대는 무엇이 간절하여
종일 하늘 우리리 기도하고 있는가?

바위여! 그대는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아서
문을 꼭 닫아걸고 천만년 침묵을 견디고 있는가?

고드름이여! 그대는 무슨 한이 많아서
마음을 풍풍 열리고 허공에서 칼을 갈고 있는가?

낙엽이여! 그대는 무슨 슬픔이 그리 많아서
정처 없이 바람의 길을 떠돌고 있는가?

별이여! 잊지 못할 사연이 무엇이기에
밤이 새도록 말도 없이 깜박이고만 있는가?

산이여! 그대는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꿩끙대는가?

강물이여! 그대는 무슨 고민이 그리 많아서

생각의 끝을 끌고 끝없이 흐르고만 있는가?

바다여! 그대는 무슨 후회가 그렇게 많아서
부서져라, 부서져라! 가슴을 치며 울부짖는가?

세상을 품은 하늘은 하늘을 다 풀어놓는데
너는 웬 그리움으로 노을 앞에서 하염없는가?



김종호

2007년 『문예사조』 등단. 시집 『빼꾸기 울고 있다』 외

모슬포 들판 길을 가며

회원 작품 | 시

운진항에서 송악산까지 해안 길

섬의 서쪽 귀퉁이 국토 최남단의

국도

초여름 햇살이 하얗게 내리붓는

청무우밭 저 너머

청춘의 설렘처럼

남실남실 밀려드는 남색의 바다

벌써 해변 둔치에서 납량의

청춘을 즐기는 푸르기만 한 저들

이는 햇살의 주는 축복이다

내 안에도 어느덧

여름이 다가들었고

마음은 수채화와도 같은 저 풍요로운

풍경 위를 흐르는 산들바람이 되어

진 녹의 무밭과 남색의 여름 바다 위를

가없이 출렁이고픈.

김창화

망종을 보내며

이제 햇살도 꽈나 뜨거워졌다.

그다지도 넘기가 가팔랐던

보릿고개 그 옛날

지난 시간들이 아른아른 마치

엊그제 일마냥 꿈길처럼 여울지고

쓸쓸한 계절을 숨이 차도록 고생스레 넘기고 봄 내내 줄기차게 성장
해온 진녹색 무성한 초목들을 흔들며 간간이 불어 드는 산들바람은
살가운 연인과도 같아 늘 곁에 두고 싶다.

여름으로 치닫는 계절의 여울목

방실방실 앗된 연인이 애정처럼

살갑게 다가오는 해바라기 미소.



김창화

2007년 『시와 창작』으로 등단. 시집 『바다와 어머니』, 『바람의 섬』, 『섬의 노래』 외.

만나다

회원 작품 | 시

방

나기철

여중생 김일지 시「노을」

김현승 시「마지막 지상에서」

김종삼 시집『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다 우연히 왔다

교실에서 온 게 아니라

축복이나 은총은

슬며시

온다고

국립제주박물관 이건희 컬렉션

어두운 방 불빛 아래서

강선희와

50년만에

처음 마주한 것처럼

회원 작품 | 시

눈만

남더라도

이 두 뼘 소파에서

사그라질 때까지

읽게

해 주십시오

구십 넘은

오래 전

사진 속

아일랜드

공노마 신부처럼

나기철

1987년 『시문학』으로 등단. 시집『젤라의 꽃』, 『지금도 낭낭히』, 『담록빛 물방울』 외.



문무병

하나

여름밤 반짝이는 별을 세며
어머니가 아이에게 가르치는 별 공부는
칠석날 이루어지주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쌍칠일雙七日
1년 내내 떨어져 있던 두 별이
슬픔이 복반쳐
비새悲鳥처럼 호느껴 울기 때문, 자락자락
비가 오는 거주
동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가
두 별이 만나는 시간
천지가 왁왁해서 별을 볼 수 없는 거주

둘

칠석七夕날은
임금님이 가신 날
험한 유배流配 섬에서
비참하게 돌아간 광해
제주로 끌려왔다가 섬을 떠나지 못하고
외롭게 죽은 군주,
칠석비는 원혼의 비주
제주섬을 휘청, 휘청, 혼들어 놓는
피눈물이주

둘이 살면, 모두 산다고,

부끄러운 사람 둘이 잘 살면,
모두가 잘 산다는
단재 선생을 추모하는 상생굿이 열린다는 얘길
충청도 망나니 시인 하돈이에게서 들었다.
이승의 끝은 저승의 시작
삶과 죽음, 과거와 현재를 나누지 못하는 중간쯤에
'미여지벵뒤'라는 광활한 들판이 있다.
거기, 돌밭 가시나무에 걸쳐두고 간
단재 선생의 의로운 죽음, 꽃꽂한 지조가 남긴
이승의 진 것들, 슬픔의 기록들을 거두어,
저승 혼적삼 마련하고 상생굿을 준비하고 있으니,
저승길을 열며,
여기 팔도의 도적들은 한 마디씩 미래의 청년들을 위해
더불어 살아갈 상생의 의미를 풀어보라 하였다.
나는 청주를 흐르는 무심천 물소리를
계사년 새벽 백두대간의 당당한 동자승,
천진난만한 충청도 시인 취객 하돈이를 통해 들었다.
살아 있었구나. 하돈이가 살아 있으니 인연 기막혀
그대와 나, 북도의 땅초와 절도의 신소미(小巫)

단재 선생의 영전 말석에 같이 설 수 있구나.
상생일세. 그게 상생의 맞이굿이야.
제주 개천 복구가 잘못돼 땅위에 떠서 흐르는
청계천 뚫물 같은 산지천 산책길에 만난 관광객,
육지 북도로 떠나는 이승의 사람과
바람에 실려 바다 끝의 저승 이여도로 떠나는 즘녀(潛女),
현실의 사람과 저승 가는 영혼들에게
오늘도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이름 없이 살다 간 사람들의
세상을 사랑한 이야기라 적을 수 있었다.



문무병

1990년 『문학과비평』으로 등단. 시집 『영경퀴꽃』, 『날랑 죽건 닥발에 문엉』, 『11월엔 그냥 젖고 싶어』 외.

목월과 자장면

- 아윤 한기팔 시인 가시고

회원 작품 | 시

문상금

짙푸른 바다가 눈이 시린

소남머리 근처

두서넛

자장면을 비볐다

“시퍼런 이십 대초에, 가난한 서울생활에 뭐 수중에 돈이 있었겠나?,
늘 배가 고팠었지, 그래도 시는 꼭 쓰고 싶어서, 시 한 두 편 꼬깃꼬깃
적어서 원효로 박목월 시인 자택으로 들어서면,”

“한 군, 밥은 먹었는가, 자장면이나 한 그릇 할까?”하시며 늘 자장면
을 사주셨다는 한기팔 원로시인의 말씀

두서넛 비빈 자장면을 목월시인이 맛있게 드시고 계셨다, 서귀포로
흘연히 오셔서, 늘 자장면 먹을 때마다

흰 도라지꽃 바라보며

- 아윤 한기팔 시인 가시고

멀리 언덕 위에 흰 것들이 흔들린다

짙푸른 바다 흰 파도들은

손수건처럼

순비기꽃처럼

흰 것은

그 순간 가슴이 풍클해진다

이 세상에 온

최초로 입었던

배냇저고리 같은 것

아니면

흰 모시 적삼 같은 것

저리 서늘한 몸짓으로

평생을 감싸주고 품어주었던

흰 속살을 지닌 꽃들이

하논

서정문

한가득한

남녘 끝동 보목 마을

산발하고 섬을 떠난 여자

우묵배기에서 그녀를 만난다

깨금발을 하고서야 보이는 구름

여기 내리고 있다

검은 돌틈 사이로 질편하게 판을 벌린

바람처럼 일어나는 물길

단단한 뼈를 연신 닦아내고

한라산의 정수리가 녹아 내리는 자리

나무는 푸석한 육질까지 벨어내며

물길을 헤적이고 있다

아무것도 이름이 되지 않아도 좋은

낮꿩 소리지르며 날아오르는 논둑 길

일찍이 그 자리여서

우묵한 가슴처럼 넉넉한 자리



문상금

1992년 『심상』으로 등단. 시집 『겨울나무』, 『꽃에 미친女子』, 『첫사랑』 외.

개구리

꿈을 꾼 자리에 각주를 단다
설명이 필요할 때마다 다시 꺼내어
요긴하게 자맥질용으로 비축한다
아직도 선명하다 지난 밤 꿈
보호색의 떡개구리 한 마리
똬리를 튼 갈색 뱀 앞에서 뻔히 쳐다본다
내가 나를 잘못 건드렸나
한적한 평화가 일순 사리지고
종일 꿈 해몽사이트를 검색한다
답은 아직 오리무중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개구리
서서히 어둠속으로 사라지고
내 안의 나를 찾는 일은

당신의 가슴을 읽는 일보다 어려운 것 같다
냉혈처럼 보이던 겨울도
지금은 참 부드럽다



서정문

1990년 『우리문학』으로 등단. 시집 『화랑대』, 『푸른날개』, 『지도에도 없는 길』 외.

양금희

모든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하늘에서 내린 눈이 세상을 덮듯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평화가 덮어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왜 어떤 이는 총을 들고
분노를 표출하는가
평화가 세상을 덮기를
내리는 눈처럼
평화는 온누리에 있네
하늘과 땅에
꽃과 나무에
우리의 가슴에도 있네

그리움이 잡들지 않는
제주바다
고개 들어 바라보면
저 멀리 이어도가 있다

어머니들의
가슴 속의 별이 된
영원한 이어도
섬!
섬!
섬!
그리움에 젖어
물속에 가라앉았는가!
마라도에서 149키로
해녀가 물질하는 바다
비창에 찔렸나
눈시울 붉어지는 저녁놀

그리운 섬에 닿고 싶은

어머니들의 메아리

이, 어, 도!

이, 어, 도!

이, 어, 도!

입술 깨무는

이어도를 향한 그리움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사랑하는 이들 멀리 두고

예까지 쫓겨왔다.

가난의

절해고도를 향하여

일렁이는 목숨은 초가의 탱자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고

나의 피와 살을 먹고

가시는 더욱 더

단단한 생각의 뼈대를 이루었다.



양금희

2021년 『월간 시문학』 시 등단. 영한 및 대만어 번역 시집 『鳥巢 Nests of Birds(새들의 둥지)』 외.

몇 해인가 손가락이 또 곱아드는

겨울이 찾아와

춥고도 외로운 날들이 지나간다.

버려지고 밀려난 삶이 나를

단련시켰다.

황량荒涼

가난한 이들의 식량이 되지 못하므로
살림의 문짝 안에 들지 못하고
마소의 발굽에 밟히고 차이며
흙위에 뭉굴던 수선의 등근 뿌리들
갓길에서 조랑조랑 피워낸 꽃송이

가릉거리다
가쁜 숨 몰아쉬는 기억
끄트머리를 물고 늘어지는
기억의 수명도 다하고 있을 것이다.
낡아오는 목숨의 끝자락이 가닿은 곳

벼려진 사람
벼려진 뿌리

호흡의 바깥 쪽에 하늘 조각이 끌려 온다.
식어가는 아비의 굳은 살을 만지다.

불들어가요
어서 나오세요
쟁여 놓은 물거품

불들어 가요
어서 나오세요
사그러드는 호박잎처럼 서걱거리고

행원리의 봄

회원 작품 | 시

양전형

불들어 가요
어서 나오세요
하늘 끝자락에 이리저리 떠다니는 구름
발걸음이 허천거렸다.
신 벗어 손에 들고 찾아가는
뗏장이 엉성한



양전형

2002년 『심상』으로 등단. 시집 『모로 누운 바다』, 『불안 주택에 거하다』

먼 길 달려와
섬을 넘보는 바람 있다면
풍차가 얼른 낚아채는 바람받이 행원리
풍경 몇은 겨울처럼 옹크려 있어도
작은 백사장엔 벌써 그리움이 반짝인다
누군가, 다시 온다는 약속을 했었나
수줍게 웃는 조개가 앙증맞다

가만가만 마을 지키는 등대봉
모두 봄잠에 든 날 나들이 간다
고향에 있는 것들 일일이
꿈 한 사발씩 뿌려준 후 얼른 돌아와
기지개 켜는 척 일출을 크게 안는다

행원리의 봄은 행원리에서 나고
행원리에서 죽고 행원리에서 돌아온다
마을에 봄 가득 쌓이면
바다로 들어선 공원 육각정
덩실덩실 포구로 들어오는 만선을 반긴다

우리집 줄장미

외길 몇 미터 기어가더니

허공에다 대고

외로움도 긴 길이군

하고 붉은 입 하나 열더니

점점 말 많아지는

우리집 줄장미

무덕무덕

인생이, 사랑이,

세월이 어찌구 저찌구

울안에 돌아온 나는

자물통으로 단단히

입 잡았는데

우리집 줄장미,

울 밖을 향해

뭔가 고풀 듯

불쑥불쑥 말하는 입

올봄엔 더 많은 입



양천형

1994년 『한라산문학동인』으로 작품활동 시작. 시집 『나는 둘이다』 『도두봉
달꽃』 등. 장편소설 『목심』.

눈 쌓이는 저녁

회원 작품 | 시

졸참나무 아래로 겨울 잎이 지면
선달 하순
불 꺼진 골목 새이로
그믐달 그림자가 정낭 위에 주저앉는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풍경 속으로 사라지는
희미한 기억을 낡은 시간으로 엮으며
고분데기* 돌아가는
설운 즘네의* 터진 물구덕

하늘 별들이 내려와 떡을 감는
머정* 좋은 날
흔 망사리 그득* 숨비소리로
하얀 깃을 세운다.

*고분데기: 급하게 휘어진 길의 제주어

*즈네: 잠녀潛女, 해녀의 제주어

*머정: 재수가 좋음을 상징하는 제주어

*그득: 가득의 제주어

윤봉택

눈 내리는 모슬

흘레구름 내려앉은 대한에
산꼬대하더니
도둑눈이 다녀가셨구나
섬에서,

바람의 섬에서,
부름을 등진다는 것은,
아끈 조기에 숨비질하며
난바당을 휘몰이 하는
질곡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윤봉택

1991년 『한라일보』 신춘문예, 1991년 『월간문예사조』 신인상. 시집 『농부에게도 그리움이 있다』 외.



이명혜

바람을 향한

나의 노래는 한결같았다

일생 한 번만

휘둘리고 싶다

스치고 가면 스치고 가버리면

충분히 붉고 아프다, 내 안의 상처

옹이로 앓은 푸르덩덩한 고백

달콤한 사랑을 한다는 건

쓰디쓴 외로움을 견디는 일

그러다 그러다가 내가 죽을 일

생사를 건 이번만이야

꾸울꺽 삼켜버린 오늘

또 혼들리는

아침은

가장 먼저 깨어난

바람을 타고 왔다

햇살이

꽃을

사랑을

내일을

섬섬 뜨개질 하고

나 그대 그리고

여린 초록 그물로

몰래

가두고 있다



이명혜

1999년 『한국아동문학연구(동시)』, 2022년 『스토리코스모스(시)』등단. 동시집 『햇살이 놀려 온 마루』, 『이사 온 수선화』, 시집 『나의 동굴에 반가사유상 하나 놓고 싶다』 외.

이소영

별살에 몸을 말리는
돌멩이를 간직한 풍경 하나
곤한 것들에서 버팅기던 아득함을 데려온
해녀의 삶, 어촌의 모습들
잠시 내 삶의 기억들을 흔들어 깨운다

방파제 끝 빨간 등대 속
미지의 세계를 그리는 소녀상,
어부들 안전한 항해를 바라는 소년의 꿈도
정맥이 꿈틀대는 파도와의 교감은 왜 그리 힘든지
집 나간 배들 기다리며 생각이 많아진 고요

늘 아스라한 수평선에 갇혀
습관처럼 기다림이 일상인 삶이어도
예측 불가인 갈림길에서 돌아와 꿈을 하역하는
저 바다에 가 닿던 또 다른 세상 이야기
포근히 안고 들어주는 작은 포구여!

가뭄, 몇 년을 빌어도 온 삶이 타들어가
강물이 바사삭 질러대는 비명을 밟고
몇 시간을 무표정으로 걷고 또 걷는
배앓이도 병마도 어쩔 수 없이
흙탕물도 마셔야 살아남을 수 있는
고통 받는 땅도 소중한 삶의 터전인 것을

겨울장마 같은 이 비가 한번쯤
그 땅에 뿌려질 꿈을 꿀 수 있다면
부질없는 상상으로 가슴 메이는데
물이 세상과 세상을 이어주는 통로이듯
방송을 통한 작은 도움들이 마중물 되어
저 공감의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을까



이소영

1988년 『아동문예』에 동시, 1993년 『한국시』에 시로 등단. 시집 『바다, 그 휙파람 소리』, 『기억의 숲으로 들어가다』, 『소금꽃』 외.

봄의 새잎이 반짝이면 무엇하랴?
 봄의 꽃들이 화사하면 무엇하랴?
 꽃이 시들고 잎이 마르면
 아무도 쳐다봐 주지 않는걸
 꽃이 피는 건
 그 뒤의 열매를 바라봄이니
 화사하지 않은들 어떠랴?

인생은
 짚은 시절의 화려함도 빛이 나지만
 황혼의 고요한 아름다움이
 더 고웁게 보인다고
 말오줌때,
 진홍빛 입술을 열어 말한다
 지나온 짚은 날은 그리 화려하지 않고
 꽃의 영광처럼 주목받지 못했어도
 고운 열매를 바라며 그렇게 살아왔다

가을, 하늘빛이 더 푸르러질수록

진홍빛 열매가 점점 벌어진다
 그 속에 숨어있던 까만 진주알들이
 알알이 드러난다
 세월의 아픔에 꺾인 가지들이
 살짝 코를 쥐는 냄새를 내기도 했지만
 거센 비바람, 목마른 가뭄을 견디고
 힘들고 아픈 것들을 이겨내며 지나온
 인고의 세월 끝 그 고운 열매
 가을 하늘 아래 더붉게 피어난다
 지나온 아픔과 삶의 찌꺼기를 잊게 한다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
 황혼에 더 고웁다.

하례 내창 음려수

물그림자 아른거리는
하례 내창 음려수
물그림자 위에 내가 앉아있다
서어나무 자잘한 잎들이 햇살을 받아
잔잔한 물 위에 드리운 그림자
그림자가 나인 듯
내가 그림자인 듯
그 속에 앉은 난 노래 부른다
곡조를 잊은 노래
가사를 잊은 노래
그러나
부르는 그 노래에 맞춰
말오줌때 열매 쪼아먹던 새들 함께 노래하고
치렁치렁 늘어뜨린 마사줄 결줄기 춤을 춘다
노랫가락이 춤을 추고
춤사위가 노래를 부르며
잔잔한 물그림자 위에
그림을 그리면
만년 긴 세월

묵묵히 앉아있던 돌하르방이
그제야 입가에 미소 짓는다.



한천민

1991년 『아동문예』 동화, 2020년 『한반도문학』 시 등단. 동화집 『놀부 동생 놀쇠』 외. 시집 『형재섬 쑥부쟁이』.

새벽 하늘에

회원 작품 | 시

밤 새 찌들은 상념을

지우려

다시 일어나는

절절한

소망의 기도소리가

새벽 하늘에 합장하여

간절히

바라는 염원이다

지워도

지워지지 않던

상념들을

이제는

푸른 하늘에 실어

풍선처럼

영원히

영원히 날려보내리

저

신성한

새벽 하늘에

새벽 달을 보며

홍창국

초승달이 아주 저 멀리

저만치서

살포시 눈을 감고

안기어오려 하니

이내

첫사랑 꿈속처럼

그리움을 엮던

황홀해지는 마음

아- 저런

여명黎明의 빛을 받아

더욱 아름다운

연분홍 두볼 사이로

그 옛날

연모戀慕하던 그 모습

칠십 세월이 흘러가버린

지금도

능소화

회원 작품 | 시조

청춘은 살아 숨 쉬는데
두 가슴 벌려 달려가
살며시
달려가 안기고 싶어라.

삼성혈
담벼락을
끈질기게 기어올라

그 무슨 억하심정 나를 향해 토하듯

주황색
물감을 풀어
그리는 돌담 벽화

7월의 찰진 햇살이 꽃술에 침을 놓자

바람도
힘을 빼고
울타릴 넘나들고

신생의
혈穴을 깨우는
나발 소리 새소리



홍창국

1998년 『한국순수문학』으로 등단. 시집 『山房의 달밤』, 소설 『설운 憎傷錄』
외.

오영호

나는 새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노을 진 아침 바다 날아가는 새를 보라

바람을 맞받아칠 뿐 뒤돌아보지 않은 의지

오로지 오늘만을 위하여 날아가는 새를 보라

벨레기똥

회원 작품 | 동시

김섬

으망진 거끄지는 좋다마는

뒈망지지는 말아사주게

두루 으망질 줄 알아사

춤말로 으망진 거주게

벨라진 건 봄줄만 흐다마는

뒈벨라지젠흐여가난 눈끌해겹신게



오영호

1986년 『시조문학』으로 등단. 시집 『농막일기』 외.

춤생이 두갓

동새벽이부터

이례 화륵 저래 화륵

새끼털은 집지슬에서

아굴특 쳐들엉 보체는디

비는 좌락좌락

눈앞은 부히영



김성

2002년 『동시와 동화나라』 신인문학상을 받으며 등단. 제주어 시집 『흔디
지킬락』, 동시집 『하찮은 앞발』, 장편동화 『숨비소리』 외.

꽃자왈

회원 작품 | 동시

김정희

꽃자왈 오민

속솜흐라

우리가 온 줄 알민

숲이 흐던 일 못 혼다게

움찌락움찌락

보시락 보시락

족은 일생기 올리멍 나오주기

아무것도 안 훌 것 굽아도

낳에 귀 자울영 들어보라

물 질엉 올리는 소리도 들릴거여

손으로 낳 등뎅이도 썰어보라

거친 등도 썰어보민 펜안한 메

거친 거렌 몯 안 좋은 건 아니여

이신 자리서 둠 이녁홀일 흐명 알양 큰다

페령흔 바당서
수에기 뛰어뎅기멍 놀없저
할망바당서 숨빌락 흐는 아이덜
모을에 아이덜이 뛰엉뎅기고
물케기팅 노는 아이덜
폭낭에 굴추륵 둘령 노는 아이덜
숨 쉬는 곶자왈은 바당더레 가지

돌담은 의자
바람도 앉다 가고
꽃잎도 앉다 가고
잎사귀도 앉다 가는
포근한 의자

돌담은 정거장
구름도 멈추다 가고
직박구리도 쉬다 가고
하얀 눈도 머물다 간다

돌담은 고양이의 집
하루종일 떠돌다가
지친 고양이 돌아와
포근히 잡드는 집



김성진

2008년 『아동문예』 동시, 2014년 『시인정신』 시 등단. 동시집 『오줌폭탄』
외, 시집 『물고기비늘을 세다』 외.

돌담은 경로당
외로운 할머니
심심한 할아버지

제주 굴들의 장기자랑

모여들어 이야기 나누는
웃음꽃 쉼터

왜 하필 굴은
꽃 피는 봄도 아니고
뜨거운 여름도 아니고
가을 날 한꺼번에 모여
마을 장기자랑 할까

봉개 굴이 맛있다고
모슬포 굴이 알차다고
조천 굴이 굵다고
서로서로 난리다

조용히 듣고만 있던
위미리 굴이 하는 말
뭐니뭐니 해도 돌담 안에서
가장 따듯한 햇살 먹고
바람 소리꾼 노래 들으며
가을 기다려온 나만 할까

장승련

눈부신 주황색 껍질
탱글탱글한 반달 알맹이
입안에서 바람맛 바다맛 숯맛
번진다니까요
듣고 있던 굴들
그 고고한 자태에
그만 오메 기죽어
가을의 굴 여왕으로
뿔한 위미 굴
노란 미소 방긋방긋

처음 너를 봤을 때
이?
조그맣고 까만 게
파리니?
아니구나.
등껍질이 반짝이는 게
퐁뎅이니?
아니구나.
더 가까이 가보니
줄무늬도 있고 뿐이 있네
아, 애기뿔소똥구리!



양순진

『제주문학』 동시 신인상, 2012년 『아동문예(동시)』 등단. 동시집 『학교가 좋아졌어요』, 제주어 동시집 『해녀랑 바다랑』, 제주설화동화집 『그리스로마 신화보다 더 신비한 제주설화』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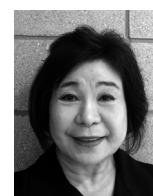
애기뿔소똥구리 알아가는 일 2

옛날 목장엔
많이 살았다던데
네 친구들은 다 어디로 갔니?

동물들의 똥을 분해하여
깨끗이 처리해 다시 땅으로 보내는
환경지킴이였는데…

우리 사람들 잘못일까?
동물을 들판에서 보다는 가두어 기르고
살충제 항생제 많이 써서 겠지.

점점 이 지구상에는
네가 꼭 필요하다는 걸
아제야 깨닫는구나.



장승현

1988년 『아동문예』로 등단. 동시집 『민들레 피는 길은』, 『우산 속 둘이서』,
『연이는 꼬마해녀』 외.

어머니란 말을 들으면 참 좋습니다.

눈물이 나올 정도로 좋습니다.

어머니란 말 속에는 애듯한 어머니의 사랑이 감로수처럼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라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쩌다가 간혹 예외도 있겠으나 그것은 그만한 피치 못할 어쩔 수 없는 사정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못생기고 부족하고 불구가 된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낳은 생명은 그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를 낳고 길러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도 세상에 없습니다. 부족하고 못생긴 어머니일지라도 자기를 낳고 길러 준 자기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배운 것이 많고 덕망이 있고 예쁘고 멋있는 남의 어머니가 못 배우

고 부족한 나의 어머니를 대신할 수 없듯이 똑똑하고 잘생긴 남의 아들이 덜떨어진 나의 아들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식을 사랑하고 자기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인지 도 모릅니다.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자기의 자식을 사랑함에 있어 무슨 조건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본능적인 사랑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본능적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고 그 자식이 자기의 어머니를 사랑하는데 이성만 앞세우고 감성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머니의 존재가치는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언제나 일방적인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에게는 무조건 좋은 음식으로 배불리 먹이고 싶고 예쁘고 좋은 옷을 입히고 싶은 것이 이 세상 어머니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개의 아들이나 딸이 이쁘고 착하고 훌륭하다고 하면 당신의 이쁘고 착하고 훌륭하다는 것보다 더 좋아서 사뭇 입이 벌어집니다.

자식의 마음이 기쁘고 편안하면 그 어머니의 마음도 편안하고 자식의 마음이 괴롭거나 편안치 못하면 그 어머니의 마음은 백배 천배 더 아프고 괴로워합니다.

자식이 집을 떠나 먼 곳에 가 있는 동안은 잠시도 마음을 못 놓이고 걱정을 합니다. 추운 계절에 따뜻한 시온돌방도 더운 한 여름에 시

원한 에어컨도 어머니는 마다합니다.

자식이 어쩌다가 잘못이라도 되어 감옥에라도 가는 날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자식에게 돌멩이를 던질지라도 그 자식을 낳은 그 어머니만큼은 자식이 감옥에서 나오는 그날까지 감옥을 맴돕니다.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어머니 한 분뿐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바보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바보처럼 속에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의 샘이 흐르고 그 바보처럼 속에 막강한 힘이 숨어있습니다.

때문에 그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가장 강한 여자가 된 것입니다.

그 힘은 높은 산을 금방 무너뜨릴 수 있고 깊은 바닷물도 모두 퍼울릴 수 있는 막강한 힘, 오직 어머니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위대한 것입니다.

그냥 위대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대함 속에는 그만한 대가를 치를 각오와 한량없는 희생이 뒤따를 것입니다.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희생 말입니다.

오직 어머니 말고는 이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희생입니다.

그냥 쉽게 어머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자식과 어머니는 그런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관계를 가지고 치사랑 없이 내리사랑으로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다 갑니다.

이것이 이 세상 어머니들의 공통적인 숙명의 길이라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리워집니다.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고길지

2001년 『서울문학』 봄호 수필, 2005년 『한국문인』 소설 등단. 수필집 『그대의 이름은?』, 『어머니』, 장편소설 『태양의 눈물』.

어스름한 새벽이다. 번갯불이 번쩍이며 천둥소리 요란하고 비까지 쏟아지고 있다. 잠시 망설이다가 다섯 시에 집을 나섰다. 봄비가 어찌나 세찬지 와이퍼가 휙휙 돌아가는데도 앞이 부옇다. 물에 약하다는 전기차인이라 여간 조심스러운 게 아니다. 오늘따라 요가원 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진다. 와흘리로 이사 와서 오년이 되어가지만, 내 생활환경은 여전히 아라동에 머물러 있다.

요가원이다. 요가 동작이 버겁다. 몸속으로도 물이 스며들었는지 축 늘어졌다. 한시바삐 눕고 싶은 마음뿐이다. 일명 시체 자세라고 불리는 ‘사바아사나’는 언제 들어가려나. 힘에 부쳐 나 몰라라 눕고 싶지만, 그룹 수련이라 어찌어찌 벼텨낸다. 보이지 않는 과장이 함께 수련할 때는 띠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벽시계가 여섯 시 오십 분을 가리키고 있다. 이제야 오매불망 기다리던 사바아사나에 들어간다. 모포를 얼른 덮고 눕는데 악! 소리가 나

고연숙

왔다. 도무지 바로 눕지 못하겠기에 조심조심 모로 눕는데 옆구리도 만만찮게 아프다.

어디서 오는 통증이지? 손가락으로 등줄기와 갈비뼈 끝자락, 주위 근육을 차근차근 눌러본다. 아무래도 뼈 쪽 같다. 골수암으로 돌아가신 고모님이 떠오른다. 설마 말기 암 증상은 아니겠지? 전조증상은 딱히 없었으니 말이다.

가만히 헤아려보니 증상이 여러 차례 오긴 했었다. 작년 연말, 체 중계 인바디에 올라섰는데 뼈 무게가 2.0 킬로그램으로 뜨지 않는가. 울상인 이모티콘에 곁들여 적색경보까지 떠서 겁이 덜컥 났다. 줄곧 2.2였고 앓아누웠을 때조차도 2.1 아래로는 내려간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여름 건강검진 때도 내 기를 재던 간호사가 고개를 갸웃했다. “재작년보다 무려 삼 센티나 줄어들어 이상해요. 허리를 똑바로 곧추 세워보세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나는 속으로 혼자 잘난 체하고 있었다. ‘참 내, 십 년 주기로 아홉수 마디에서 꽉 꺾인다는 걸 아직 모르나 보네.’

또 있다. 고교졸업 오십 주년 기념행사장에서다. 해외에서 온 동창이 의아한 듯 물었다. “너, 많이 작아진 것 같아. 혹시 허리디스크?” 가능해보니 육 센티나 줄어들지 않았겠는가. 세월이 나한테 유독 빨리 찾아온 것 같아 씁쓸했다.

올렛길에서도 마찬가지다. 내 걸음이 꿀찌에서 맴돌자 기다리던 걸짜가 여걸답게 깔깔 웃으며 말했다. “하느님은 공평도 하시지. 짊었을 땐 개미허리가 최고지만 나이 들면 통허리가 최~고!”

내가 또래들보다 많이 처진다는 사실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은 기력이 없어도 ‘내 나이에 찾아오는 현상이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체력이 떨어지는 건 선천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건강관리를 소홀히 해 온 탓이 더 클 것 같다. 몸을 좀 더 아껴야 할 건데 그러지 못했다. 열흘 전에도 일주일 내내 호미를 잡고 잡풀과의 전쟁에 나서지 않았던가. 지금도 오른손 검지는 잘 펴지지 않는다.

올해는 잡풀이 하도 유별나서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다. 내 나름 예쁜 정원인데 요놈들이 다 가려버렸으니 말이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잡풀들은 본의 아니게 내가 자초한 결과였다.

지난 이월 말, 레몬과 하귤夏橘나무가 대형트럭에 실려 오면서 오랑캐 씨앗들도 떨려왔던 것이다. 요놈들은 흙 속에 죽은 듯이 숨어있다가 사월이 되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리곤 하루가 다르게 세를 불리면서 꽃들이 움짝달싹 못 하도록 장악하지 않았겠는가. 아무리 잡풀이라도 꽃들과 공존하기 마련인데 요놈들은 막무가내로 달려들어 숨통부터 막아놨다. 후안무치에다 염치라곤 눈곱만큼도 없는 족속들이었다.

그놈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진이 다 빠져나가자 뒤를 돌아보게 된다. 그리고 손을 아예 놓아버렸다.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주위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았는가.

동생이 제주에 놀러 왔다가 반색을 한다. 혈색이 좋아졌다나. 개 등쌀에 떠밀려 인바디 체중계에 올라섰다. 이게 뭐지? 뼈 무게가 2.2 킬로그램으로 올라와 있지 않은가. 그동안 병원에 들른 적 없고 보약을

먹은 적도 없다.

비결이 뭘까.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쥐어짜는 글쓰기에서 벗어나 읽고 싶은 책부터 손에 든다는 정도다. 또 나만의 숲에서 날마다 한 시간가량 느슨하게 맨발로 걷는다. 새소리와 내 발걸음 소리만 들리는 곳에서는 소소한 풍경도 특별하게 다가온다. 원초적인 폐쇄 욕구가 남보다 강해서 혼자 있는 게 편한지도 모르겠다.

오월 중순, 지금 사바아사나를 하면서 요가원에 누워있다. 옆 과수원에서 흘러드는 감귤꽃 향기가 더없이 좋다. 우리 집에도 한라봉도 품한 꽃이 하얗게 올라왔다. 레몬 나무에도 새순이 소복하게 올라오고 나뭇가지마다 초록빛이 돈다.

죽어가던 하귤나무에도 여린 쌩이 나뭇가지 일부에는 올라와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덩치가 커다란 하귤나무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누르죽죽 죽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옆 동네 임 목수가 들렀다가 눈살을 찌푸리지 않는가. 나뭇가지를 뚁텅뭉텅 자르면서 뿌리를 흔들어놓으니까 소생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파리든 나뭇가지든 누렇게 뜨면 봐주지 못하는 성미가 거대한 나무를 죽일 뻔했다. 새로운 터전에 적응하느라 애쓰던 나무에 �om을 무지막지하게 들이댔으니 견딜 재간이 있었겠는가. 그 후로는 나뭇가지가 죽어있어도 함부로 자르지 않았다. 다만 지은 죄가 있기에 저녁마다 물을 주면서 정성을 다했을 뿐이다.

요즘은 조그만 일에도 웃음이 지어진다. 마음이 느슨해져서일까,

요가 매트에 이렇듯 누워있으면 태곳적 내 집처럼 얼마나 아늑한지 모른다. 숨도 전처럼 깊고 얕은 숨이 아니라 길고 깊은 숨이 자리 잡았다. 지금도 들숨 날숨이 고르게 오르내린다. 몸통이 부풀려지면서 산소가 들어오고, 내쳐지면서 독소가 빠져나가고 있다.

오르내림이 기분 좋게 바람을 탄다. 그네를 타고 오르내리던 어린 시절이 눈앞에 있다. 아, 그래서 헤르타 뮐러가 들숨 날숨을 ‘숨그네’로 형상화했구나. 노벨문학상을 탄 그녀의 작품을 느슨한 마음으로 다시 읽어봐야겠다.

보라색의 시간

회원 작품 | 수필

김순신

“무슨 색을 좋아하세요?”

갑작스런 질문에 순간 당황했다. 생각할 틈도 없이 “보라색”이라고 말해버렸다. 현수막에 쓰인 보라색 글자가 순간 나를 보며 웃었고, 주일 날 신부님이 입은 보라색 제의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믿거나 말거나지만, 요즘 관계를 맷을 때 조심해야겠어요.”

색체 심리학 강의도 아니고 색체와 대인관계의 연관성을 말하는 자리도 아닌데, 그 말이 콕 들어와 움찔했다.

성격에 따라 사람 대하는 태도와 행동이 다르다. 다정다감한 사람은 못되니, 남에게 쉽게 다가갈 수가 없다. 일단 안면을 튼 다음부터는 스스럼없이 대하는 편이다. 대학원에서 상담을 공부하며 애니어그램, MBTI라는 성격유형검사를 처음 해봤다. 내면의 탐색을 통해 자신의 성격유형을 알고 성격에 맞는 직업과 대인관계에서의 성장전략을 찾아내어 보다 행복하고 통합적인 삶을 살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고연숙

2003년 『한국문인』, 2015년 『수필과 비평』으로 수필 등단. 수필집 『노루의 눈물』 외.

검사이다.

에니어그램은 사람을 가슴유형, 머리유형, 장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그 안에 각각 세 가지 유형이 있어서 모두 9개의 유형으로 분류한다. MBTI는 외향과 내향, 감각과 직관, 사고와 감정, 판단과 인식 가운데 우세한 특성들끼리의 조합으로 총 16가지의 유형으로 나눈다. 자신의 성격유형을 이해하면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

각 성격유형마다 특징과 장단점이 있다. 여러 가지 색깔이 어울려 알록달록 아름다운 꽃밭이 되듯이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조직을 이끌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든다.

검사결과 ‘지도자형’으로 나왔다. 지도자형의 특징은 자신감이 넘치고 자기주장이 강하며 리더십이 있다. 약자 편에 서서 그들을 보호하려 한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력을 다해 소신껏 행동한다. 빙 둘러대지 않고 직선적으로 표현하며 결단성이 있고 적극적이다. 그러나 주변 환경, 특히 사람들을 통제하려 하고 남들과 대결을 하며 협박하기도 한다. 자신에게 약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워한다. 일반적으로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욕망을 보이기도 한다. 장점이라면 현실적이고 활발하며 자신감이 강해서 겁이 없고 도전적이다.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공격적이고 강압적이거나 반항적, 자기중심적이고 오만하고 가혹할 수도 있다. 내가 이런 성향을 가졌다는 것이 좋아할 일도 싫어할 일도 아니지만, 대인관계에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성격유형을 모르고 천성대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한 번쯤

검사를 해 보는 것도 자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성격과 인격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그 사람의 품격으로 완성된다. 자신의 성격특성을 이해하고 꾸준히 모난 부분을 다듬다 보면 옥석이 되는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솔직함이 위선보다 낫다는 이유로 직설적으로 상대에게 편치를 날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의’라고 우격다짐도 많이 했다.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 상처를 입기도 했다. 대인관계의 걸림돌을 하나씩 치우기로 했다. ‘남의 말을 잘 듣고 공감하기, 권위보다는 배려 우선하기, 주장에 앞서 설득과 대화로 풀어나가기.’ 이렇게 생활하니 관리자가 되어서도 큰 탈 없이 공동체가 잘 돌아갔다.

언제부터인가 부부사이의 대화가 현무암처럼 투박하고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세우는 일이 잦아졌다.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순간 빠딱한 어투가 튀어나온다. 잘 지내다가도 남편의 일머리를 보면 성에 안 차서 꼭 한마디 한다. 쇼펜하우어의 말대로 고슴도치 딜레마에 빠진 것처럼 가까워지나 싶으면 특 쏘아붙이며 밀어낸다.

보라색 재의와 그녀의 멘트가 어쩌면 이 사순시기에 나와 남편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라는 메시지 같다. 사순시기의 보라색 재의는 참회와 단식, 희생 봉사, 절제를 의미한다. 사순시기가 되면 신자들이 참회의 강을 건너 부활의 땅에 다다르고 싶어 한다. 굳이 신앙인이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이 새로워진 자신을 만나기 위해 걸림돌을 치우는 힘든 과정을 가고 있으리라.

보다 성숙한 태도와 정감어린 어투로 감정을 전달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부부사이가 되려면 보라색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지도자형 유형의 인자가 내 안에서 꿈틀대고 있을지라도 배려하고 정감어린 대

화를 선봉으로 끊임없이 노를 저어 보리라. 어느 지점에 다다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감어린 대화가 무르익지 않을까. 그때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부활의 땅에 이르는 날이다. 그때까지 보라색 재의를 생각하며 보라색의 시간을 가질 것이다.

돌아오지 않는 강

회원 작품 | 수필

정영자

그에게로 가는 길은 멀었다.

비 내리는 오후. 촉촉이 젖은 나무계단을 헐떡이며 오르고 다시 오르막길을 걸었다. 처음 가는 길은 가늠할 수 없어 더 멀게만 느껴졌다. 초로의 여인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내딛는 걸음걸음에 속도가 붙는다.

서귀포에서 ‘작가의 산책길해설사’ 단체연수를 떠나올 때 꼭 들려야 할 곳으로 점지한 곳이 망우리 묘역이었다. 서귀포에서 살았던 한 예술가의 생애에 대한 존경과 연민은 굳이 이유를 말하지 않아도 모두 공감하고 있던 터였다.

사월의 빗방울이 조용히 둥근 묘지 위를 적시고 소나무 한 그루가 묘지를 지키며 서 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끝내 품어보지 못하고 저세상으로 간 이중섭을 알려주는 비석이 옆에 있다. 두 아이의



김순신

2001년 『지구문학』으로 등단. 수필집 『길 위에 서다』, 『길에서 길을 찾다』, 『채비』 외.

얼굴을 새겨넣은 후배 조각가 차근호의 작품으로 이중섭 1주기 때 친구들이 각출해 만들었다. 반침돌엔 화가 한복이 쓴 글 '대향이중섭화 백묘비'를 읊자했다. 묘지 번호 '103535'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온다. 살아서 떠돌이로 살다 망자들의 거처인 망우리에 가셔야 비로소 받은 지상의 주소가 아닌가, 가슴팍에 아픈 빗금이 그어진다.

준비해 간 제물을 인솔자가 상석(床石)에 올리고, 생전에 망인이 즐기던 담배 한 개비에 불을 붙여 올렸다. 술을 따라 경배하고 축문을 읽어 예를 표했다. 이중섭과 혈연관계도, 그 시대를 함께 한 벗도 아니지만, 그를 추모하는 마음은 하나였다.

이중섭을 묻고 친구들은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술로 달래며 망인과 자신들을 위로했다. “울 밑에선 봉선화야 네 모양이 처량하다. 길고 긴 날 여름철에 아름답게 꽂필 적에 어여쁘신 아가씨들 너를 반겨 놀았도다” 소프라노 ‘김천애’ 선창으로 친구들이 부른 처연한 노래는 진혼가가 되어 계곡에 메아리쳤으리라.

십여 년 전, 이중섭미술관에서 해설사로 처음 섰을 때다. 관람객 앞에서 이중섭 자화상에 관해 이야기하다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목이 멘 적이 있었다.

이중섭은 1956년 초 서울 첫 개인전에 이어 대구에서 전시하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보려 했지만 잘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이중섭은 자포자기애 빠져서 그림도 그리지 않고 밥도 먹지 않겠다 하며 이상증세를 보였다. 그러자 이중섭이 정신 이상이라는 수군거림이 들려왔고, 이때 이중섭은 친구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거

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그렸다. 이 자화상이다. 그는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와 가족이 주로 주제가 된 은지화에는 자신의 얼굴을 많이 그려 넣었다. 자신의 얼굴만 그런 작품으로는 세상을 뜨기 일 년 전에 생지에 연필로 그린 이 자화상이 유일하다.

이 그림 앞에서 감정의 동요 없이 해설하기란 쉽지 않았다. 미술관을 방문한 이남덕여사가 자화상 앞에서 눈길을 피했다는 데서 그녀의 심중이 짐작되는 까닭에서다. 육십여 년 세월이 비껴간 남편 얼굴이 거기에 있었으나 차마 바라보지 못한 아내. 그 애듯한 마음이 나의 감정선을 끝내 건드리고 만다.

아내를 끔찍이도 사랑한 남편 이중섭. “이 세상 연인들의 사랑을 다 합해도 나의 사랑에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했던 남자.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 테두리에 ‘뽀뽀’라는 글자로 섬세하게 메꾸었던 남자. 남편이 저세상으로 떠난 후 그 실체도 없는 사랑을 옆에 두고 칠십여 년을 살다 작년(2022년 8월/101세)에 생을 마감한 ‘남덕’. 그녀에게 사랑은 무한한 기다림이 아니었을까.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는 간절함은 이중섭 작품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그가 붓을 놓으며 그런 작품으로 알려진 「돌아오지 않는 강」은 1956년 서울 정릉 콜짜기에서 생의 마지막 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 그렸다.

이중섭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회에서 이 그림을 처음 접했다. 무채색의 그림은 한 소년이 창틀에 기대어 내리는 함박눈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저 멀리서 머리에 광주리를 이고 오는 한 여인을 그렸다. 얼핏 보면 그저 평범한 정경이다.

그림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던 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창틀에 기댄 소년에게서 마지막이라는 걸 예전한 작가의 간절한 바람을 읽었다면 누군들 울지 않을 수 있었을까. 피난 올 때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 바다 건너 고운 아내와 두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생의 끄트머리에 선 한 남자를 떠올렸다면….

해설할 때마다 나의 목소리는 젖어오겠지만 어찌겠는가, 이 특별한 사랑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이 누가 있을까.

상석(床石)에 올려놓은 담배 한 개비가 하얀 재만 남았다. 우리 여기에서 아름다운 넋을 기리는 일이 다시 오지 않더라도 행복한 만남이었음을 잊지 않으리.

어느덧 9월. 풀벌레 울음소리 내려앉는 창틀에 기대어 먼 하늘 별빛을 바라본다. 아름다운 이여, 그대는 저 별 어디에서 못다 한 사랑을 나누고 계시는가.



정영자

2012년 『수필과비평』으로 등단, 작품집 『안단테 칸타빌레』, 『풍경을 짓다』

무소유의 기쁨

회원 작품 | 수필

조옥순

나는 벌써 오래전, 병원이라는 쉼터에서 뜻밖의 친구를 만났다. 평생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될 친구를 말이다. 전혀 느낌도 예고도 없이 찾아든 친구의 이름은 바로 유방암. 친구를 가슴에 품는 심정은 ‘너는 내 운명이다.’였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마음을 스스로 부추겨 세우며 다스려 나간다.

유방암 수술에 앞서 병원 앞에 있는 성당을 찾았다. 염치없이 한참이나 외면하여 찾지 않던 내가 말이다. 성당에서 나는 신께 간절히 도움을 청했다.

신은 따뜻한 가슴으로 나를 끌어안아 주셨다. 나와 스치고 머무는 모든 것에 사랑을 보내면 평화가 마음에 항상 머물게 될 것이라 하셨다. 포근한 신의 음성은 내게 사랑과 용기와 믿음과 희망의 노래를 들려주고 있었다.

새롭게 태어난 기분으로 병원을 나섰다.

세상이 무척 달라 보인다. 실은 변한 것 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도 말이다. 아주 까다롭고 예민한 친구를 동행하고 나서서 그런 것일까? 병실을 나서는 마음이 긴장의 연속이다.

그러나 지금 이 친구를 만날 수 있었던 게 얼마나 고맙고도 감사한 일인가. 초조하고 불안하고 슬프고 괴롭고 허무해서 아쉬운 마음들을 떠나보낸다.

신은 나에게 사랑의 위기를 가혹하리만치 주고 계셨다.

16년 동안 네 번의 유방암 수술과 두 번의 척추관 협착증 수술을 받게 했다. 그러면서 4급 장애인이 되고 말았는데 그 와중에 폐암 수술 두 번에다 위암과 골반암 시술까지 받게 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한다. 암과 장애인 친구와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있다.

항암치료로 머리털이 전부 빠지고 말았다. 처음엔 겨울 앞에 스님 모습을 닮은 내가 있음이 몹시 어색했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그 모습에 익숙해지면서부터는 오히려 여유로움이 배어났다. 내 얼굴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다고나 할까. 아마도 ‘무소유’의 기쁨을 느끼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어쩌면 깨달음의 시작이었을까.

잠시 명상여행을 떠나고 싶었다.

어느새 마음에도 평화의 빛이 스며들고 있다. 이제 노을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무르익은 작품을 만들어 갈 때가 되었음인가? 참 여유를 누리며 천천히 느낌의 미학을 터득하며 사는 삶을 생각하게 되었다.

나들이할 때면 머리에 옷을 입히고 나선다. 사람들이 달라진 내 머리 스타일에 관심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 그 와의 아름다운 동행을 오랫동안 하고 싶어서다. 함께하여 좋은 것들을 귀히 여기는 마음 그릇, 무소유의 기쁨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다.

살아있음에 감사한다.

그래야만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는 절대자의 눈길도, 먼저 그곳으로 가 있는 부모 형제도, 칭찬과 격려의 박수를 아낌없이 보내 줄 것이기에….



조옥순

2001년 『공무원 문학(수필)』, 2006년 『현대문예(시)』으로 등단. 수필집 『장미 한 송이』, 『버리고 빙두는 삶』.

“소미야! 온 세상이 하얘! 빨리 나와봐!”

소미는 이불 속에서 엄마가 아이처럼 좋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 정말이야?”

소미는 발딱 일어나서 커튼을 확 열어젖혔습니다. 하얀빛에 눈이 부셨습니다. 온 세상이 겨울왕국이 됐습니다. 소미는 잠옷을 입은 채로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엄마, 나 밖에 나갈래!”

“소미야! 잠깐, 기다려! 그냥 나가면 감기 걸려!”

엄마가 급히 방으로 들어가서 점퍼랑 목도리랑 장갑이랑 모자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땀이 춥지 않게 옷을 단단히 얹어주었습니다.

소미는 단숨에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눈이다!”

소미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두 팔을 벌려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함

박눈이 하얀 나비처럼 팔랑팔랑 내려와 소미의 머리 위에, 코 위에 살며시 내려앉았지요.

“엄마! 빨리 와, 같이 놀자!”

소미가 엄마를 불렀습니다.

“소미야, 엄마는 출근해야 해. 그만 놀고 어서 들어와. 밥 먹자.”

소미가 오리 입을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오늘 출근 안 하면 안 돼?”

엄마는 잠시 소미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눈에 눈물이 맺혀있습니다.

“엄마도 우리 소미랑 놀고 싶지. 그런데 엄마가 다음 달에 승진 시험이 있어. 그래서 엄마가 요즘 소미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잖아. 소미야, 미안해.”

“아참! 그렇지. 엄마, 나 혼자 잘 놀 수 있어. 엄마 힘내!”

소미는 엄마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와, 우리 소미는 꼭 엄마 친구 같아. 소미야, 그 대신 모래가 크리스마스잖아. 그날은 쉬는 날이니까, 엄마랑 재미있는데 놀러 가자.”

“정말? 와, 신난다!”

거실에 있는 가족사진에서 아빠도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그럼, 오늘은 심심하면 혜나랑 놀고,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전화해. 알았지?”

현관문이 닫힐 때까지 소미와 엄마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소미는 초등학교 2학년인데 지금은 겨울 방학입니다. 돌봄 학교에 다니지만, 이번 일주일은 돌봄 학교도 방학했지요. 그래서 일주일 동

안 소미 혼자서 놀아야 합니다.

소미는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집 건너에 사는 친구 집으로 향했습니다. 일부러 하얀 눈 위를 뾰드득뾰드득 소리 내며 걸었습니다. 소미의 뺨간 장화 위에 하얀 눈이 소복이 묻었습니다. 돌담 올타리 너머로 혜나의 노란 텔모자가 왔다 갔다가 하는 게 보였습니다.

“혜나야!”

소미가 반갑게 혜나를 불렀습니다.

“소미야!”

불이 빨개진 혜나가 얼른 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혜나네 마당에는 벌써 눈사람이 당근 코를 꽂고 서 있었습니다.

“와, 겨울왕국에 나오는 울라프와 똑같다!”

“소미야, 너도 눈사람 만들었어?”

“아직…….”

그러자 혜나가 기대감에 한껏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좀 있다가 엄마랑 아빠랑 이모네 가족이랑 눈썰매 타러 갈 거다!”

“정말? 좋겠다…….”

소미는 혜나가 부러웠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혜나가 먼저 함께 가지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모네 가족이랑 같이 갈 거라서 그런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미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장화 앞 코로 눈을 툭툭 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얀 마당에는 참새들이 발자국 찍기 놀이가 한창이었습니다.

“같이 놀자!”

소미가 소리를 지르며 뛰어가자, 참새들이 포르륵 포르륵 나무 위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같이 놀자고 한 건데…….”

소미는 작은 돌멩이를 눈 위에 올려놓고 파랑 장갑을 낀 손으로 살살 굴렸습니다. 돌멩이가 점점 커져서 하얀 축구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소미가 두 팔로 안을 만큼 커다래졌습니다.

“와! 크다!”

소미는 눈덩이를 영차영차 굴리며 거실 창 앞까지 갔습니다.

“이번엔 얼굴을 만들어야지.”

소미는 작은 돌멩이를 찾아서 떼구루루 떼구루루 굴렸습니다. 얼굴만 한 눈덩이가 만들어졌습니다.

“꽁차!”

소미는 작은 눈덩이를 큰 눈덩이 위에 올려놨습니다. 눈사람은 거의 소미 키만 했습니다.

“나는 어떤 눈사람을 만들까? 겨울왕국 공주님? 백설 공주? 엄마 눈사람?”

고개를 갸웃거리던 소미는 집 안으로 후다닥 뛰어 들어갔습니다. 마음이 급했는지 장화 한 짹이 눈 위에 나뒹굴었습니다.

“어디 있지?”

소미는 안방에서 한참 동안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그러더니 합박 웃으며 초록색 야구모자와 주황색 넥타이, 그리고 까만 장갑을 갖고 나왔지요. 다행히 엄마가 아빠의 물건을 전부 치우지 않고 몇 개는 남

겨둔 게 서랍장에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소미가 멋지게 만들어 줄게요.”

소미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소미는 눈사람에게 아빠 모자를 써우고, 넥타이를 목에 걸고, 꺾어진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두 팔을 만들어 꽂고 장갑을 끼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뛰어가서 현관 구석에 놓여있는 아빠 신발을 갖고 왔습니다.

“와! 아빠랑 똑같아! 우리 아빠 멋지다!”

소미는 아빠가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좋아서 펄쩍 펄쩍 뛰던 소미가 멍하니 눈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미의 두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소미는 천천히 눈사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빠…….”

소미는 두 팔로 눈사람을 살며시 안았습니다. 소미는 자기도 모르게 두 눈을 감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빨갛게 얌 볼 위에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소미는 아빠 품에 안긴 것 같았습니다. 동그런 눈사람이 아빠 품처럼 포근했습니다.

“소미야, 아빠야. 잘 있었어?”

아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미는 깜짝 놀라 눈사람에게서 떨어지며 눈을 번쩍 떴습니다. 놀랍게도 아빠가 소미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소미는 와락 아빠 품에 안겼습니다.

“소미야, 아빠도 우리 소미가 너무 보고 싶었어.”

“아빠, 소미는 아빠가 보고 싶어도 꾹 참고 안 울었어요. 엄마가 슬퍼할까 봐서요.”

“그럼, 아빠는 우리 딸이 착한 걸 알고 있지. 그리고 소미는 언제나 씩씩했잖아.”

“정말요?”

“그럼. 소미는 아빠 딸이잖아.”

아빠는 소미의 두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소미야, 우리 그전처럼 마당에 동물 농장 만들까?”

“좋아요! 강아지 민트도 만들고 고양이도 만들어요. 그리고 오리도 만들고, 병아리랑 다람쥐도 만들어요!”

“소미야, 민트는 어디 잣니?”

“민트는 외할머니가 외롭다고 하셔서 엄마가 데려갔어요. 아기 강아지를 데려온다고 했는데…… 바빠서 아직 못 데려왔어요…….”

“저런, 그랬구나. 그럼, 우리 동물 친구들을 많이 만들자.”

소미와 아빠는 강아지와 고양이와 오리랑 다람쥐, 그리고 아기 상어와 아기 공룡도 만들었습니다. 아빠는 전부터 늘 갖고 싶었던 하얀 말도 만들어서 감나무 밑에 놓았습니다. 말에는 두 날개가 달렸습니다.

“와! 동물 농장이다!”

소미가 좋아서 소리를 지르자, 아빠가 소미를 번쩍 안고 맹글맹글 돌았습니다. 소미는 아빠가 웃는 모습을 정말 오랜만에 보았습니다.

소미는 아빠가 병실에서 아파하거나 슬퍼하던 모습을 더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미도 아빠를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소미야, 우리 눈썰매 타러 갈까?”

아빠는 소미의 마음을 아는 듯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아빠,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어요? 혜나는 별씨 눈썰매장에 갔을 걸요.”

“그래! 소미야, 어서 말 위에 앉거라.”

소미는 조금 전에 아빠랑 만든 하얀 말 위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작은 말이 진짜 말만큼 커졌습니다. 말이 두 날개를 펴되었습니다. 아빠가 펄쩍 뛰어올라 소미 뒤에 앉았습니다.

순간 하얀 말이 힘차게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하얀 말은 소미네 동네 위를 지나서 하얀 숲을 지나 곧바로 운동장만큼 넓은 한라산 눈썰매장에 도착했습니다.

“아빠! 눈썰매장 저기 있어요!”

소미는 아기였을 때 아빠랑 와 본 적이 있는 눈썰매장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말이 날개를 접으며 사뿐히 눈썰매장에 내려앉았습니다.

하얀 눈 위로 밝은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함께 눈사람을 만드는 가족들과 엄마 아빠가 끌어주는 눈썰매에 앉아 까르르 까르르 웃는 아이들. 행복한 웃음소리가 눈썰매장에 가득했습니다.

“소미야, 아빠가 눈썰매 빌려올게.”

소미는 아빠를 기다리는 동안 혜나를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찾기 힘들었습니다.

“소미야! 아빠 왔다.”

아빠가 주황색 눈썰매를 빌려왔습니다. 아빠는 소미가 탄 눈썰매

를 끌어주기도 하고, 뒤에서 밀어주기도 했습니다. 소미 혼자서 타기도 하고, 아빠랑 같이 타기도 했습니다.

“아빠, 너무 재밌어요!”

소미의 웃음소리가 다른 아이들이 웃는 소리와 뒤섞여 노래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하얀 말이 날개를 펴덕거리자, 아이들이 깜짝 놀라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이내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하얀 말을 보려고 가까이 다가왔지요.

소미와 아빠는 어둑해질 때까지 놀다가 하얀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도착하자 하얀 말은 다시 작아져서 감나무 앞에 암전히 서 있었습니다.

소미는 언제까지나 아빠랑 놀고 싶었습니다. 아빠가 소미를 안아주며 말했지요.

“소미야, 아빠는 언제나 네 곁에 있어. 알지?”

소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엄마가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소미야!”

“엄마, 아빠 왔어!”

소미가 엄마와 아빠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어?”

아빠가 없습니다. 대신 눈사람 아빠만 있었습니다.

“아빠!”

소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미야, 왜 울어?”

엄마는 눈사람을 보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소미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소미, 아빠가 많이 보고 싶었구나.”

“나, 진짜 아빠랑 놀았단 말이야!”

“응, 알았어. 어휴, 이 손 차가운 것 좀 봐.어서 들어가자!”

소미는 할 수 없이 엄마를 따라가면서 자꾸만 눈사람 아빠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날, 소미는 잠자리에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거실 창가로 가서 눈 사람을 쳐다보곤 했습니다.

‘눈사람 아빠가 춥지 않을까?’

소미는 걱정이 되어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웠다가 일어나서 커튼을 살짝 열고 눈사람 아빠를 바라보곤 하였습니다. 소미는 또다시 커튼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눈사람 아빠 앞에 눈사람 엄마가 되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소미는 명하니 두 눈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뭐라고 말하면서 눈사람 아빠 넥타이를 고쳐 매주었습니다. 소미는 엄마를 부르려다가 다시 누웠습니다. 엄마도 자기처럼 아빠랑 마음껏 만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김란

2022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동화 당선. 동화집 『마녀 미용실』, 어린이 제주신화『이토록 신비로운 제주신화』, 그림책 『외계인 해녀』 외.

눈 내리는 날

회원 작품 | 동화

박재형

눈이 내렸어. 하얀 눈이 평평 내렸어. 민들레 씨앗 솜털 같은 눈이 하늬바람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왔어. 낮게 내려온 회색 구름 속에 눈이 가득 쌓인 창고가 있나봐. 내린 눈이 녹기도 전에 그 위에 다시 눈이 내렸어. 눈이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가늠할 수는 없지만 한참 동안 두 다리로 눈을 헤쳐서 내 머리가 다 파묻혀야 작년 가을에 말라버린 누런 잎을 만날 수 있었어. 눈밭에 숨어 있던 그 마른 잎을 헤겁지 겁이 빨로 물어 뜯어내고 어금니로 천천히 갈았어. 그리고 삼켰지. 내 침과 섞인 풀잎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며칠 동안 힘들게 했던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내 옆에서 풀잎을 씹어 넘기고 있는 아빠랑 엄마, 친구들도 정신없이 눈밭에 머리를 들이밀고 풀잎을 먹고 있었거든.

“살맛난다.”

나는 배가 불러오자 눈 속에 들이 밀었던 머리를 들어 하늘을 보며

말했어.

“더 먹어. 눈 내리는 날이 길어지면 더 짊어야 할지도 몰라. 배고픈 건 힘들어.”

엄마가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어.

“한심스런 녀석. 배가 조금 불렀다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말하네.”

나는 아빠의 말에 대꾸도 못하고 이내 고개를 숙였어. 아빠의 말은 틀린 게 아니었거든. 다시 눈이 내려 우리가 애써 헤쳐 놓은 눈밭을 메워 버리면 우린 다시 짊게 될지도 몰라. 마른 잎을 먹으며 나는 봄 풀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 봄이 되어 새 풀이 돋아나면 그 즐거움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지. 깔깔한 마른 풀을 썹으며 나는 부드러운 봄 풀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 그러자 풀 맛이 좋아졌어. 향기로운 풀냄새가 나는 것 같고, 꽃냄새도 밀려온다고 생각하기로 했어. 새소리도 들려오는 것 같았어.

그 때였어. 갑자기 아빠 목소리가 날아왔어.

“오름아, 사라야! 빨리 도망가자!”

얼핏 보니 아빠랑 엄마가 급히 몸을 돌리고 있었어. 그래서 나도 얼른 따라 나섰지. 동생 사라도 재빨리 따라 붙었어. 아빠의 명령은 무조건 들어야 해.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다리가 푹푹 빠져서 달릴 수가 없었지만 부지런히 달렸어.

멀리 사나운 개 두 마리가 보였어. 눈이 내려 먹이를 찾지 못한 들개가 우릴 발견하고 눈밭을 헤치며 달려오는 거야. 개들도 눈에 빠져 빨리 다가오진 못했어. 눈이 세차게 내려서 눈조차 제대로 뜰 수가 없

었거든.

“쉬지 말고 뛰어!”

아빠가 다급하게 말했어. 나랑 사라의 걸음이 더뎠거든. 그러다가 눈 속에 파묻힌 돌을 밟았나봐. 발굽이 아팠어.

“아빠! 살려줘요! 발굽이.”

나는 어쩔 줄 몰라 소리쳤어. 발굽이 아파 걷지 못하면 꼼짝없이 들개에게 붙잡히는 거지.

“꾸물거릴 시간이 없어.”

아빠는 곁으로 다가와 내 머리를 혀로 훑으면서 말했어. 아빠의 말을 들으니까 아픈 게 조금은 낫는 것 같았어.

“알았어요. 따라갈게요.”

나는 죽을힘을 다해 걸었어. 다행히 몇 걸음을 걷자 아픔이 물리쳤어. 멀리서 쫓아오던 들개들이 우리를 쫓는 걸 포기했나 봐. 내가 돌 아서서 쳐다보니 제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우리를 쳐다보다 방향을 돌렸어. 다리가 푹푹 빠지니까 포기한 거지. 눈이 우릴 구해준 거야.

“날이 어두워진다. 빨리 숲으로 돌아가자.”

아빠의 말에 고개를 들었더니 정말이었어. 눈이 내려 깜깜하진 않았지만 어느 새 사방이 어두워지고 있었어. 밤이 되면 추위가 밀려올 테고. 차가운 눈밭에서 밤을 지새울 수는 없는 일이니까. 아빠가 앞장을 서고 그 다음에는 나와 동생 사라가 따라갔어. 엄마가 가장 뒤에 서 따라오고. 아빠는 푹푹 빠지는 눈을 밟으며 걸어갔어. 아빠가 디딘 발자국을 따라가니까 힘들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지.

사람들이 곶자왈이라고 부르는 숲을 향했어. 바위들이 켜켜이 쌓

여 있고 그 위에 나무들이 자라는 곳이야. 나무들이 바위틈으로 뿌리를 뻗어 땅 속 깊은 곳에서 물을 빨아올려. 비가 내리면 바위틈으로 금방 스며들거든. 그곳에 작은 바위굴이 있어서 추운 밤을 지내기엔 그만이야. 눈밭에서 잘 수는 없는 일이니까.

마침내 곶자왈에 닿았어.

‘이젠 안심이다. 따뜻하게 잘 수 있겠다.’

나는 안심이 되었어. 바람이 불고 눈이 내려도 바위굴 속은 안전해. 아빠가 가장 바깥쪽에 자리를 잡고 나랑 동생 사라는 안쪽으로 들어갔어. 굴이 작아 우린 따닥따닥 몸을 붙이고 누웠지. 눈이 아빠의 어깨에도 내렸지만 아빠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눈을 감고 있었어. 아마도 우리를 지키느라 그런 걸 거야.

“빨리 봄이 되어야 한라산으로 올라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

“맞아, 빨리 겨울이 지나 봄이 왔으면 좋겠다.”

내 곁에 누워 있던 동생 사라가 말했어. 사라는 늘 출렁거리고, 입을 가만 두지 않아.

“그만 자라. 빨리 잤다가 일찍 일어나야지.”

엄마가 조용히 하라고 말했어.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 나들이도 못할 텐데 엄마 말은 들어야 해. 어른들 말 들어 손해날 게 없어. 아빠나 엄마는 맛있는 풀이 어디 있는지. 안전한 잠자리가 있는지 잘 알아.

밤이 깊어갔어. 별은 보이지 않았어. 참 눈이 내리는 날은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떠올린다는 게 웃기지 않아? 그래서 가끔은 엄마가 나에게 철딱서니가 없다고 통을 주는

거지. 아무튼 별도 달도 보이지 않고 검은 구름은 쉴 새 없이 눈을 내려 보냈어. 어둠 속에서도 눈이 내리는 건 알 수 있어. 사락사락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으니까. 눈은 그쳤다가 내리다가 다시 그치고. 한밤중이 되도록 쉬지 않고 내렸어.

“사각 사각.”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 귀 밝은 아빠가 얼른 머리를 들어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귀를 돌렸어. 아니 우리들 모두 소리 나는 쪽으로 귀를 돌렸지.

“움직이지 마. 떠돌이 들개가 오는지 몰라.”

아빠가 겁먹은 목소리로 말했어. 아빠의 말을 듣는 순간 온 몸이 떨렸어. 떠돌이 들개라면 생각하기도 두려워. 몇 마리씩 몰려다니며 우리 노루든 어린 소든 공격해서 뼈를 따고 잡아먹거든. 겨울이 되어 먹을 게 없으니까 닥치는 대로 공격을 한다니까. 내 친구 다랑쉬도 하늘나라로 갔어. 그러니 내가 얼마나 무서웠겠니? 오늘오들 멀기만 했어. 머지않아 돌아날 새 풀 맛도 못 보고 죽을 것 같았어. 참 들개가 쳐들어온다는 데 새 풀 맛이라니 나도 참 한심하지.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어. 모두들 놀란 얼굴로 숨소리도 크게 내지 않았어. 밝은 날이었다면 굳어버린 얼굴도 볼 수 있었겠지.

“사각 사각.”

“저벅 저벅.”

발자국 소리의 임자는 두 마리였어. 한 마리도 두려운 데 두 마리씩이나 쳐들어온다면 우린 어떻게 되는 거지. 아빠는, 엄마는, 그리고 나는. 사라가 벌벌 떠는 게 전해왔어. 생각만으로도 끔찍해서 눈을 뜰

수가 없었어. 그런데 발자국 소리가 작아졌어. 공격을 하려고 살그머니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아니었지.

‘이상하네? 누구지?’

나는 궁금했어. 나뿐만 아니라 다른 노루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누, 누구세요?”

아빠가 멀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저희들도 같이 잘 수 없을까요? 날이 너무 추워서.”

“누구신대요?”

엄마가 안심이 되어 물었어.

들려오는 목소리는 들개의 목소리가 아니었어. 순간 나는 사슴이라는 걸 알았어. 풀밭에서 놀고 있는데, 우리랑 비슷한 동물이 풀을 뜯는 걸 봤어.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등에 얼룩무늬가 있었어. 나는 그 동물이 할아버지가 얘기해 준 한라산에 살았다는 전설의 동물 사슴이라는 걸 알았거든. 한라산에 살던 사슴들이 사람들 손에 잡혀 모두 사라졌다가 최근에 사람들이 기르던 사슴들이 우리를 뛰쳐나와 한라산으로 올라와 살게 되었다는 걸. 그런데 사슴이 갑자기 찾아오다니. 그래서 우리는 모두 놀란 거지. 사나운 들개가 왔나 하고. 한라산에는 집에서 기르던 들개들이 뛰쳐나와 무리를 지어 다니며 동물들을 해치는 일이 자주 일어났거든.

“우리들은 사슴이에요. 들개를 만나 도망을 다니다 거우 따돌렸어요, 눈은 내리는데 날은 어두워지고. 안전한 잠자리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들판을 헤매다가 발자국을 발견하곤 따라왔어요.”

“들개를 만났다고요? 들개가 쫓아온 건 아니지요?”

엄마가 화들짝 놀라 소리쳤어. 왜 안 그렸겠어요? 개들이 뒤따라왔다면 우리 가족도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들개를 따돌렸어요. 하마터면 죽을 뻔 했지요.”

사슴은 아직도 무서운지 큰 눈에서 두려움이 똑똑 떨어졌어.

“이 숲엔 큰 바위가 많아 찾아보면 잘 곳이 있을 텐데. 여긴 우리가 지내기에도 비좁아서.”

아빠는 들개가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어.

“깜깜한데 바위가 많아 걷기가 힘들어 서요.”

“여긴 우리 식구만 머물기에도 비좁아요.”

“나랑 우리 아기는 몸이 작아요. 조금만 틈을 내어주면 오늘밤만 같이 잘게요. 눈이 너무 많이 내려요. 또 사나운 들개를 만날지도 모르고.”

사슴은 몹시 추운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아빠가 바위굴 안을 둘러보았어. 매정하게 돌려보낼 수 없었던 거지. 아빠는 원래 마음이 착해. 그렇지만 바위굴이 좁아 선뜻 대답을 못했어.

“아빠, 들어오라고 해요. 조금만 참으면 같이 잘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얼른 말했어. 지난겨울 멀리 떨어진 풀밭에 갔다가 갑자기 비가 내려 잘 곳을 찾지 못했을 때, 친절한 조랑말 덕분에 비를 피할 수 있었거든.

“그럼, 들어오세요. 비좁지만 오늘밤만 넘기면 내일은 같이 잘만한 곳을 찾아봅시다.”

아빠의 말에 사슴 두 마리가 바위굴 안으로 들어왔어. 모두들 비켜주었지. 엄마와 아기 사슴은 조심스레 들어오더니 바위굴 한쪽에 앉았어. 밤이면 산은 더 춥거든. 그러니까 많이 추웠나 봐. 몸을 심하게 떨고 있었어.

엄마가 엄마 사슴 곁에 몸을 붙여 앉았어. 나도 얼른 아기 사슴의 등에 내 등을 댔지. 처음에는 많이 추웠지만 얼마 후에는 아기 사슴의 몸도 따뜻해졌어.

밤은 깊어가고, 눈은 사락사락 내리고 바위굴 안에서는 코코는 소리가 들려왔어. 누구 코고는 소리냐고? 그야 물론 아빠가 이빨까지 갈면서 코를 고는 소리지.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을 걸. 모두들 곤하게 잠이 들었으니까.



박재형

1983년 『아동문예』로 동화, 2022년 『월간문학』으로 시 등단. 동화집 『까마귀오서방』, 『내 친구 삼례』, 『이여도를 찾는 아이들』 외.

가까운 나무들

회원 작품 | 소설

박미윤

워리가 성진을 보고 미친 듯이 짖고 있었다. 아까부터 앞집의 워리가 왕왕 짖었는데 성진이를 봤기 때문이었나보다. 워리는 아는 사람이 지나갈 때는 자기 눈 뚝을 쳐다보듯 했지만, 모르는 사람이 걸어갈 때나 낮선 차가 올레를 지나갈 땐 줄이 팽팽해지도록 덤벼들었다. 한번은 그 기세에 줄이 풀어졌는데 워리는 발사된 총알처럼 튀어 나간 게 아니라 제풀에 놀라 나동그라졌다. 워리는 뚱개였다.

복자삼춘이 아들에 대해서 만날 때마다 얘기했지만 그를 본 것은 이번이 두 번째였다. 명절이나 제사 때 복자삼춘이 성진이 사는 서울로 갔고 사업 때문에 바쁘다던 성진은 좀처럼 제주에 내려오지 않았다.

성진이 올레에 뒹구는 돌을 집어 워리에게 던졌다. 돌에 맞은 워리는 처질하게 깨갱거렸다.

복자삼춘이 매번 성진에게는 어릴 때부터 새 밥을 해 먹였는데 그런 정성에도 성진은 불쌍한 개한테 돌멩이나 던지는 인간이 됐단

말인가.

나도 모르게 쪼꼬꼬리를 쳤다. 깨갱거리던 워리는 나를 보더니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다.

“워리에게 뼈다귀 하나라도 줘 봐. 개는 한 번이라도 얻어먹으면 안 짖거든.”

나는 성진 앞을 지나 복자삼춘네 집으로 성큼 들어섰다. 성진이 따라 들어왔다.

“전화했더니 삼춘이 아팠다고 해서 전복죽 좀 쑤고 왔어. 삼춘은 좀 어때?”

부녀회 일로 바쁘기도 했고 복자삼춘 아들 성진이 내려와 있어서 복자삼춘과는 가끔 전화통화만 했다. 복자삼춘이 언젠가부터 몸이 아프다며 두문불출했기 때문에 나는 신경이 쓰였다. 부녀회 주관으로 노인회 회원을 모시고 가는 육지여행도 복자삼춘은 처음에는 여행자 명단에 있다가 여행 며칠 전에야 못 간다고 전화를 해왔다. 복자삼춘네 장판, 벽지 교체 날짜도 마무리 지어야 해서 나는 육지여행 전날에 전복죽을 쑤 복자삼춘 집에 오게 된 것이다.

“괜찮아졌습니다.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나에게 성진이 왜 왔냐는 식으로 눈을 부릅뜨고 집안에 들이려 하지 않았다.

“난 그냥 걱정돼서. 삼춘 얼굴이나 잠깐 보고 갈게.”

성진의 기세에 질 내가 아니므로 그를 무시하고 안방 문을 열었다.

*

누워 있던 복자삼춘이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당겼다. 복자삼춘은 자는 척했지만, 깨어있는 게 분명했다.

“삼춘, 어디 아판마씨?”

나는 손을 잡는 척하며 이불을 내렸다. 복자삼춘 눈가에 퍼렇게 멍이 들어있었다. 누군가 나를 향해 얼음이 담긴 양동이 물을 퍼부은 거 같았다.

“나 어떻 안 했져. 힘 어시난 자꾸 넘어지기나 하고. 나 괜찮으난 어여 가.”

복자삼춘이 다시 이불을 머리 위로 올렸다. 나는 장판, 벽지 교체 날짜는 잡지도 못하고 복자삼춘네 집을 나와야 했다. 나오기 전에 마당에 서서 안절부절못하는 성진에게 내 명함을 건넸다. 부녀회장이 되면서 특별히 제작한 명함이었다. 사각을 금박으로 둘렀고 가운데에는 상장리 부녀회장 박희경이라고 쓰여있는 명함을 건넨 건 복자삼춘 뒤에는 부녀회장인 내가 있으니 다시 복자삼춘에게 손대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협박이었다.

*

이박삼일 간의 부녀회 육지여행을 마치고 오자마자 나는 복자삼춘네 집으로 달려갔다.

“이제 이렇게 찾아올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는 요양원에 모셨습니

다.”

나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거 같았다. 믿기지 않아 안방 쪽을 기웃거렸다.

“아니, 아무 연락 없이 이게 무슨 일이래. 복자삼춘, 복자삼춘!”

나는 후다닥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문을 열었다. 복자삼춘이 자던 안방에는 이부자리가 그대로 깔려있었다. 나는 범죄의 기운을 느끼고 가슴이 쿵쾅거렸다.

진정해, 진정하고 차분히 생각해보자, 상강리 부녀회장 박희경!

“그럼 복자삼춘이 어느 요양원에 갔는지 말해줘. 복자삼춘 핸드폰으로 전화했더니 없는 번호라고 나오던데 … 아니다, 요양원에 전화해서 복자삼춘이랑 통화시켜주면 되겠네.”

“어머니가 절대로 어느 요양원에 갔는지 가르쳐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게 말이야. 좀 알긋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성진이도 알다시피 내가 바로 여행 가기 전날에 전복죽 들고 여기 들렸잖아. 그때 복자삼춘이 요양원에 간다는 말 뻬怙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말이지, 내가 동네 비운 사이에 복자삼춘이 요양원에 갔다고 하니 그게 정말이지, 믿기지 않는다 말이야.”

성진은 할 말이 막혔는지 대꾸하지 않았다. 나는 목소리를 더 높였다.

“정말 이상하네. 원래는 복자삼춘도 여행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못간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섭섭했다고.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여행 못가는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없는 사이에 복자삼춘이 요양원 갔다니까 내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긴 뭐가 안 됩니까? 내가 일일이 어머니 일을 허락받아야 합니까? 어머니가 요양원만 가겠다고 해서 내가 요양원에 모셨는데 도대체 뭐가 문젭니까?”

성진이 고자세로 나오자 나는 어떤 사태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내가 곤란해서 그러지. 오늘 온 건 복자삼춘도 알고 있는 일인데 복자삼춘이 거주지 개선 사업에 지원대상이 됐단 말이야. 낡은 벽지하고 장판 새로 짹 갈아주는 사업인데 경쟁이 이거 치열해. 내가 전적으로 추천해서 우리 복자삼춘이 지정된 거야. 이번 달 말일까지 이 사업 마무리해야 해서 내가 날짜를 잡으러 온 거란 말이야.”

“어머니도 안 계시고 하니 그 사업 다른 사람 주세요. 난 필요 없습니다.”

“그게 그런 게 아니야. 이미 복자삼춘 이름 다 올라가고 우리 동네 부녀회 사업으로 도에 다 올라갔는데 그게 다른 사람 넘겨주고 그럴 상황이 아닌 거야…… 편하게 이름 불러도 되지? 내가 성진이한테는 삼춘뻘이잖아. 이제 아예 사업 접고 귀향한 거라던데 성진이도 깨끗한 집에서 살면 좋지 않겠어?”

나는 ‘깨끗한 집에서’라는 말끝에는 빗물에 시커멓게 이끼가 낀 집 외벽을 쳐다보았다.

“필요 없다니까요,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데 그게 그렇게 강행해도 되는 겁니까?”

“강행이라니? 복자삼춘이 성진이한테 이 사업 얘기 안 했구나. 복자삼춘이 듣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아?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하다. 내가 부녀회 여행 중이라 해도 복자삼춘이 요양원 간다면 전화라도 했을 텐데. 복자삼춘이 나한테 말도 하지 않고 요양원에 가거나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의심의 눈초리로 성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성진은 내 눈길에 확연히 의기소침해지는 거 같았다.

“알았습니다. 그 사업 지정자를 바꿀 수 없다니 그럼 진행하시죠. 그 대신 언제 할 건지 미리 연락 주세요.”

성진이 꼬리를 내렸다.

“처음부터 그렇게 나올 일이지. 팬찮으면 내일 당장 시작하지 뭐. 지금 다른 부녀회 일도 겹쳐서 시간이 없어서 그래. 그나저나 복자삼춘 요양원이 어디야? 나 그렇게 몰상식한 사람 아니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요양원 갔겠지.”

나는 일부러 더 성진을 자극했다. 성진은 말해 줄 수 없다며 한 마디 내뱉고는 문을 쟁 닫았다.

*

성진은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하다. 그는 나에게 복자삼춘이 요양원에 갔다고 거짓말하고 있다. 복자삼춘과 내가 어떤 사이인 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거짓말이 나에게 통할 거라 착각하고 있다. 복자삼춘과 나는 각별한 사이이다.

내가 전원생활을 꿈꾸며 조그만 시골에 집을 마련한 것은 십오 년 전이다. 잘 나가는 회사원이었던 나는 건강이 나빠져 죽을 고비를 한

번 넘겼다. 그 후에 나를 지배했던 생활의 리듬을 전면적으로 바꿀 필요성을 느꼈고 프리랜서를 자청하고 시골로 향했다. 도시에서 나고 자란 나에게 시골 생활에 필요한 미덕을 하나하나 친절하게 가르쳐 준 것이 같은 올레 옆집에 사는 복자삼춘이다.

“저기, 이거 밭에서 딴 건데……”

복자삼춘이 커다란 호박 하나를 나에게 안겼다. 혼자 먹기에 벅찬 호박을 억지로 맡겨진 숙제 바라보듯 뚱하게 바라보았다.

“저기, 마당의 풀은 무사 안 맴신고. 여기서는 마당에 저렇게 풀이 자라도록 놔두는 건 큰 죄야, 큰 죄.”

그제야 왜 내가 인사를 해도 동네 사람들이 인사를 받는 등 마는 등 하고 집 앞을 지나다니며 혀를 끌끌 쳤는지 알 것 같았다.

그때만 해도 나는 동네일에 아예 신경 쓰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외지인답게 관망만 했다. 그러던 것이 결혼하고 나서 크게 바뀌었다. 내가 사는 시골집으로 들어온 남편이 위낙 사교적인 성격이라 동네 선주민처럼 동네일을 보기 시작하면서 나는 동네 부녀회에도 가입하고 행사가 있으면 거들기 시작했다.

*

마을 경로잔치가 있는 날이었다.

“저기, 감기 기운인가, 몸살도 나고 집에 그냥 누워 있겠.”

부녀회 임원이라 준비 때문에 일찍 마을회관으로 나서는 나에게 찾아와 복자삼춘이 말했다. 복자삼춘은 아들 이름이 쓰여있는 돈 봉투

를 내밀었다. 부녀회에 희사해 달라는 뜻이었다. 나는 멀쩡해 보이는 복자삼춘에게 그냥 나오시라고 말하려다 그만두었다. 언제인가부터 복자삼춘은 우리 집에만 잠깐씩 다녔고 동네 행사에도 보이지 않았고 경로당에도 전혀 다니지 않는 눈치였기 때문이다.

나는 동네 어르신들께 드리는 선물을 복자삼춘 봇으로 챙기고 복자삼춘 집으로 가져갈 요량으로 국수도 따로 그릇에 담았다.

“성진이 어명 갖다 줄 거라?”

평소에도 참견 잘하는 미자삼춘이 말했다.

“복자삼춘이 오늘 몸살 나서 못 왔수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모여있던 동네삼춘들에게 복자삼춘이라는 만만하게 잘 타는 화제가 나타나자 이야기가 불꽃처럼 터졌다.

“나라도 부끄러웡 여기 못 오주. 성진이가 사업한댄허멍 설치다가 그 좋은 밭들 전부 넘어가고 이젠 사는 집허고 가족 공동묘지밖에 없주게.”

“난 성진이어멍 하나도 불쌍 안 허여. 지는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서방이 공무원이랜 우리하고 말도 안 섞었잖아.”

“성진이는 어멍. 잘 나갈 때도 동네일 한 번 보지도 안 허고. 명절 때도 안 내려오는 거 닳안게.”

내가 복자삼춘과 친하다는 걸 아는 동네삼춘들은 내 눈치를 살살 보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아니우다. 명절하고 제사는 서울에서 햄댄허고예, 복자삼춘 아들이 부녀회에 오늘도 희사금 냈수다.”

나는 당장 부녀회 총무에게 말해서라도 성진의 이름이 쓰여있는 부

조 봉투를 동네삼춘들 눈앞에 들이밀 기세로 말했다.

“그게 성진이 돈이라? 성진이 어명이 자기 돈 담은 걸 테주.”

복자삼춘의 방패막이가 되는 것에 실패한 나는 무리에서 밀려난 힘 없는 짐승처럼 등을 돌렸다. 그 어렵던 시절에 친정이 잘살아 고등학교까지 나왔다는 복자삼춘은 동네 다른 삼춘들과 달랐다. 그래서 더 따돌림을 받는지도 모른다. 뜨끈한 국물에 말아놓은 복자삼춘 국수는 면발이 통통 불어있었다. 나는 음식물쓰레기통에 복자삼춘 국수를 쏟아버렸다.

*

나는 부녀회장이 되고 나서 너무 바빴기 때문에 복자삼춘네 집에 들르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다. 그러나 그건 평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촌에서는 어느 무리에 속하느냐가 중요한 일이었다. 오래된 마을일수록 집성촌인 경우가 있는데 상강리가 그랬다. 양씨 집성촌인 상강리에선 마을의 큰일이나 작은 일이나 양 씨들이 좌지우지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복자삼춘은 더욱 그 무리에 들지 못했고 곁돌았다. 그래도 마을 행사에 꼬박꼬박 참석하던 복자삼춘은 성진의 사업이 망하고 이혼까지 했다는 소식이 들린 후에 경로당에도 나오지 않았고 마을 행사에서도 볼 수가 없었다.

부녀회장으로서 온갖 행사에 참석 후 늦은 밤 올레로 들어서면 불켜진 복자삼춘네 집이 보였다. 복자삼춘은 잘 때도 집안의 미등을 끄지 않고 남겨놓았다. 전에는 그 등을 볼 때면 안도의 숨이 쉬어졌지

만, 부녀회장이 된 후로는 그 등이 조난신호처럼 보였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조난신호를 무시하며 나는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다.

복자삼춘을 멀리할수록 복자삼춘에 대한 미안함이 한구석에 자리 잡았다. 나는 도배, 장판 교체사업이 나왔을 때 부녀회 임원 몇 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녀회장의 권한으로 복자삼춘 이름을 올림으로써 마음의 빚을 정리하기로 했다.

*

내 온 신경은 복자삼춘집을 향했다.

성진이 때려서 얼굴에 명이 생겼다면 아들이 때렸다는 사실을 알리기 싫은 복자삼춘이 그동안 두문불출했을까. 계속 성진에게 맞다가 죽었을까. 그래서 성진이 요양원에 갔다고 거짓말하고 그 사실을 숨기는 게 아닐까.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난 세차게 고개를 흔들었다. 모든 게 내 짐작뿐이었다. 만일 복자삼춘이 정말로 요양원에 가 있는 거라면 내 과잉행동 때문에 사람들 입방아에 오를 게 뻔했다. 오년 전에 어느 동네 부녀회장이 어느 동네 이장의 뺨을 쳤다는 말이 살을 덧붙이고 덧붙여서 지금도 떠돌고 있는 형편이었다. 나는 그런 입방아에 오를 생각이 없었다.

가까운 지역에 있는 요양원은 부녀회장 명함을 내밀며 직접 찾아보기도 했지만, 복자삼춘은 그곳에 없었다. 집에 돌아와서 요양원을 검색하며 일일이 전화를 돌렸다. 거기에 김복자 할머니가 입소해 있느냐 물어보았다.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 되묻는 곳에서부터 개인

정보 보호법에 의해 타인에게 가르쳐줄 수 없다는 답변들이 돌아왔다. 내 의심을 없애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래서 도배, 장판 교체할 때 복자삼춘네 집에서 그 증거를 꼭 찾으리라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도배, 장판 교체일은 사업 마감 여유가 있었지만, 성진이 집 안에서 증거를 없앨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내 판단으로 앞당겼다.

*

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나와 부녀회원들은 가벼운 짐들을 나르고 바닥을 쓸었고 벽의 거미줄을 털었다. 도배와 장판 교체를 맡은 업체에서 사람들이 오기 전에 방의 가구들을 마루나 창고로 옮겨야 했다. 복자삼춘네 집은 지을 당시만 해도 세련되게 지어진 집이었다. 마루와 천장을 전부 좋은 나무로 썼고 그 당시엔 보기 힘들었던 양들리에를 마루 천정에 달았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나무 벽은 변색 됐고 양들리에는 때가 앉아서 제 빛깔을 내지 못했다. 마루는 장판이 아니라 교체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무거운 장롱은 마루로 옮겼고 방의 물건 중 가벼운 가구들과 자잘한 짐들은 콘테이너에 담아 밀감창고로 향했다. 무거운 가구를 옮기는 것은 동네 청년회장과 청년회원 몇 명이 힘써주었다.

나는 성진이 복자삼춘의 시신을 아직 집안에 숨겼다면 어디일까 생각해보았다. 내가 어제 복자삼춘네 집을 나선 후 성진의 차는 마당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내가 여행 간 사이에 이미 시신을 처리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냉장고의 냉장실과 냉동실을 다 열어보았다. 냉동실은 거의 비어있었다. 냉장실에는 맥주병과 소주병이 가득했다. 전에 복자삼춘이 있을 때 냉동실에는 배추, 당근, 대파 등이 투명 비닐봉투에 담겨서 보기 좋게 쌓여있었다. 제철채소가 많이 날 때 삶거나 토막 내서 냉동실에 보관해두면 좋다는 건 복자삼춘이 나에게 가르쳐줬다. 냉장고를 닫으며 실소가 나왔다. 집 안에 복자삼춘 시신이 있다면 성진이 도배와 장판 교체를 허락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너무 앞서서 의심을 하는 바람에 바보 같은 짓을 한 것만 같았다. 복자삼춘이 성진의 말처럼 요양원에 갔다면 이번 사업은 다른 독거노인이 혜택을 보는 게 맞았다. 부녀회 임원들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한 터에 복자삼춘 죽음의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나는 독선적이고 유통성이 없는 사람으로 낙인찍힐 게 뻔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하필 부녀회가 여행 중일 때 나에게 말하지도 않고 복자삼춘이 요양원에 갔다는 사실과 복자삼춘이 간 요양원을 절대 말하지 않은 성진에게서 비롯됐다는 것에 짜증이 밀려왔다. 그런 내 마음을 모른 채 성진은 밀감창고 뒷문 앞에 의자를 내놓고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나는 성진 쪽으로 다가갔다. 성진이 나를 흘깃 보더니 그대로 고개를 스마트폰으로 내렸다.

성진에게 음료수 한 병을 내밀었다.

“원래 이건 집주인이 사서 돌리는데 말이야. 복자삼춘 있었으면 아마 점심도 대접한다고 국수도 삶고 고기도 삶고 그랬을 거야. 삼춘은 신세 지는 걸 못 견디는 사람이잖아. 성진이는 서울 오래 살아서 이런 거 잘 모를 거 같아서 내가 복자삼춘 대신 음료수랑 떡 좀 샀어.”

내가 한마디 하자 성진이 마지못해 오만 원권 두장을 지갑에서 꺼냈다.

“지금은 어수선해도 도배 싹 하고 장판 새것으로 바꾸면 새집 같을 거야. 복자삼춘이 봤으면 좋아했을 텐데. 그나저나 복자삼춘은 요양원에서 잘 지내고 있어?

나는 얘기하면서 성진 너머 창고 안을 건너다보았다. 창고는 복자삼춘이 집에 있을 때와 변한 게 없어 보였다. 창고 벽 쪽으로 밀감을 넣었던 컨테이너들이 뒤집어 차곡차곡 쌓여있는 것도 그대로였다. 복자삼춘이 그 컨테이너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 김치전을 갖고 마실 왔던 내가 도와줬었다. 컨테이너 하나의 무게는 하찮지만 여러 개 겹쳐서 쌓아놓은 컨테이너 무게는 건장한 남성 한 사람이 옮기기에는 만만치 않았다. 그런 것이 몇 겹으로 쌓여있으니 컨테이너를 치우고 사이에 시신을 숨기는 건 성진에게 무리였다. 나는 컨테이너는 의심 장소에서 제외했다.

그 컨테이너들은 이제 쓸 일이 없었다. 복자삼춘네 감귤밭은 성진의 빚으로 넘어가 이제는 새 토지주가 그 자리에 물류창고를 지을 거라 했다. 창고 앞문 쪽으로는 청년회원들이 갖다 놓은 가구와 짐들이 여기저기 쌓여있었다. 나는 성진이 앉은 쪽으로 큰 여행 가방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소름이 돋았다. 그건 시신 하나가 들어가도 남을 만큼 컸다. 이민 가거나 몇 달 동안 해외에 체류할 사람이 공항에서 끌고 다닐듯한 크기였다. 나는 튀어나올 거 같은 비명을 누르며 밖으로 나와서 청년회장을 찾았다. 안방에서 짐을 나르다 쉬고 있는 청년회장 옆으로 가서 말했다.

“청년회장, 고생 햅신게. 창고에 캐리어 있던데 혹시 청년회원들이
옮긴 건가?”

“아니마씨. 그래도 성진이 아저씨가 양심은 이신지 우리가 오기 전
에 자기 짐은 먼저 창고로 옮겨놓아신게 마씨.”

청년회장의 말을 듣고 나서 나는 어떻게 하면 여행 가방 속을 볼 수
있을지 궁리했다. 다짜고짜 가방을 열어달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었
다. 부딪쳐보기로 했다. 맞춤한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나는 다시 밀
감창고로 향했다.

나는 문제의 그 가방을 눈여겨보았다. 어른 한 명은 넉넉히 들어가
고도 남을 만큼 큰 가방. 나는 혹시 무슨 냄새가 있나 코를 큼큼거렸
지만 오래 환기하지 않은 창고에서는 먼지 냄새와 곰팡내가 났다. 거
기에 더해 비에 젖은 동물한테서 날 듯한 냄새와 지린내도 파고들었
다. 창고 어딘가에 쥐가 썩고 있을까. 복자삼춘이라면 창고도 깨끗하
게 관리했을 것이다. 나는 성진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유념하며 성진
이 앉아 있는 의자 옆을 지나 가방 쪽으로 갔다. 성진이 내 모습을 초
조하게 바라보며 고개를 돌렸다. 나는 밀감 컨테이너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복자삼춘이 콘테나들 치우겠다고 말한 적 있어. 내가 대신 처분할
곳 알아볼까? 여기 쌓아 놔두기만 하는 것보다는 나을 거야.”

나는 컨테이너를 짚었다가 발을 헛디딘 것처럼 가방 쪽으로 쓰러
졌다. 벽 쪽에 세워져 있던 가방은 쓰러지지 않고 옆으로 밀려나기만
했다. 나는 캐리어에 무거운 것이 들어있다는 게 확실히 느껴졌다. 성
진이 벌떡 일어나 캐리어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뭐 하는 겁니까!”

“아고, 미안. 발을 헛디뎌서. 속에 뭐 깨질 거 있는 거 아니지? 확인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진짜 제발 좀!”

성진이 날카롭게 말했다. 성진의 큰소리에 물건을 나르던 청년회
장이 나와 성진 쪽을 힐끔거렸다.

나는 알았다며 창고를 나왔다. 손바닥을 성진에게로 향하여 내가
오늘은 그냥 물러간다는 뜻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작업은 오후가 다 돼서야 끝났고 나는 복자삼춘네 집을 나와서도
무거운 것이 들어있는 게 확실한 캐리어가 눈앞에 떠다녔다. 복자삼
춘에 대한 모든 의문은 그 가방을 열어봐야만 알 수 있다는 생각에 사
로잡혀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워리가 쟁쟁한 짖었다. 밖을 내다보니 성진의 차가 올레에서 큰 도
로로 나가고 있었다. 차의 뒤풍무니가 사라지자마자 나는 복자삼춘
집으로 향했다. 만약 성진의 차가 다시 들어온다면 워리가 짖을 것이
므로 그때는 재빨리 부엌문으로 나와서 복자삼춘네 덧밭을 넘으면 마
당으로 들어오는 성진의 차를 마주치지 않더라도 우리 집으로 갈 수
있었다.

먼저 캐리어가 있던 창고 문을 열었다. 거기에 캐리어가 없었다. 도
배가 끝난 후 청년회원들이 큰 가구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창고의 자잘한 짐 정리는 성진이 하겠다며 부녀회원들을 내쫓다시피
해서 그대로 나왔다. 나는 성진 옆에 붙어 있는 캐리어를 쏘아보며 그

집을 나왔다. 캐리어는 집 안에 있거나 아까 나간 성진의 차에 실려 있을 것이다.

부엌문을 열었다. 심하게 빼걱대는 소리가 나면서 반쯤 열리더니 잘 열리지 않았다. 그 소리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거 같았다. 도둑질은 못 해 먹겠네. 도로 문을 닫았다. 빼걱대는 소리가 더 심했다. 부엌문으로 들어가는 걸 포기하고 현관문으로 향했다.

신발을 손에 들고 여기저기를 뒤져보았다. 짐들은 제자리를 찾은 게 아니라 마루에 반은 그대로 쌓여있고 방안으로 들어놓은 짐들도 정리가 안 된 채 쌓여있었다. 구석구석 살펴봤지만, 문제의 그 가방은 찾을 수 없었다. 내가 자꾸 가방 주위를 열쩡거려서 성진이 그것을 한 시라도 빨리 외부로 빼돌렸다는 추측에 자신을 탓했다. 우리가 철수하자마자 얼마 없어 성진의 차가 사라진 게 그 증거였다.

*

차가 마당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당황하여 한순간 주저앉을 뻔하다가 부엌으로 피신했다.

워리가 왜 짖지 않았을까? 짖었는데 내가 못 들었나, 뚝개 같으니라고.

부엌문을 열고 나가려 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 심하게 빼걱대던 게 기억나 왜 문을 닫았을까 후회했지만 소용없었다. 차가 마당에 들어온 이상 현관문으로도 나갈 수 없었다. 부엌 옆에는 보일러실이 있었고 거기까지는 성진이 오지 않을 것이다. 살금살금 보일러실로

들어갔다.

현관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내 숨소리와 침 삼키는 소리조차도 나에게는 천둥소리만큼 컸다. 가슴이 벌렁거렸다. 나는 사지가 마비된 사람처럼 꼴깍하지 않고 성진이 내는 소음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성진의 움직임을 머릿속으로 그렸다. 성진이 집안으로 들어온 기척이 들렸다. 뭔가 끌리는 소리는 캐리어 바퀴가 구르는 소리가 분명했다. 캐리어 바퀴 소리가 팽크 소리만큼 컸다. 성진이 캐리어를 마루에 놓고 부엌으로 왔다. 성진은 냉장고를 열었다가 닫고 방으로 들어갔는지 문 닫는 소리가 들렸다. 성진이 방에 들어가고 시간이 좀 흐르자 내 가슴은 진정이 되었다. 나는 성진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캐리어가 비었는지 속을 살펴보고 몰래 빠져나가기로 했다. 갑자기 내 휴대폰이 울렸다. 황급히 폰을 끄다가 바닥에 떨어뜨렸다. 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벌벌 떠는 몸을 옹크려 보일러 옆으로 바짝 다가앉았다. 손에서 식은땀이 나오고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었다. 올레에서 누군가가 큰소리로 통화하며 지나갔다. 앞집의 고등학생인 듯했다. 성진은 도로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휴대폰을 들여다 봤다. 남편의 전화였다. 전화를 꺼버렸기 때문에 남편은 어디 가서 밥도 안 차려주냐고 문자메시지를 남겼다. ‘희의중’ 남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쥐가 난 다리를 주물렀다.

캐리어 안을 봄지 뭐하겠다는 거야. 그 안에 복자삼춘 시신이 있었다고 해도 갖고 나갔으면 분명 어딘가에 매장하고 왔을 텐데. 아니야, 이렇게 빨리 매장하고 돌아올 수 있나. 가까운 곳이라 해도 땅을 파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 땅은 미리 파 놓았을 수 있잖아.

복자삼춘네 가족 공동묘지가 동네에서 가까운 야산에 있다. 미리 구덩이를 파 놓았으면 빠듯해도 성진이 시신을 묻고 돌아올 수 있는 거리였다. 공동묘지는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야산이므로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았을 것이다. 눈에 띄더라도 의심받지 않을 곳에 구덩이를 파고 미리 나무를 갖다 놓고 묘지 주위에 나무를 심는 것처럼 하면 의심을 사지 않을 것이다. 일부러 저녁 시간을 고른 건 밤에 일을 처리하다 들킨 것보다는 의심을 덜 사기 때문일까. 캐리어를 묘지에 가져가는 게 더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나.

이것저것 추리하는 내가 탐정이 된 거 같아 으쓱하다가 이 일이 복자삼춘 시신을 묻는 상상인 것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시간이 더디 흘렀다. 올레에 있는 가로등에 불이 들어왔다. 보일러실 안을 들리보며 시간을 죽였다. 일 처리가 깔끔한 복자삼춘은 보일러실도 깨끗하게 관리했다. 여유 있는 공간에는 쓰지 않는 물건들을 상자에 넣어 한쪽으로 정리해놓았다. 상자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있게 내용물의 이름도 적어놓았다. 복자삼춘의 글씨체는 정갈했다. 구석에 하얀색 플라스틱 김치통이 보였다. 시큼한 냄새가 거기서 나는 거 같았다. 열어서 폰 플래쉬를 비춰봤다. 김치가 너무 익다 못해 위쪽에는 하얀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김치통 옆에는 비닐팩에 담겨진 야채들이 비닐 안에서 썩어 있었다.

성진이 들어간 방은 조용했다. 나는 이제라도 빨리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나가라는 마음의 소리를 무시했다. 캐리어 안에 시신이 있었다면 냄새라든가, 자국이라든가 뭔가 증거가 남았을 거라는 쪽으로 돌아섰다. 캐리어를 열어보지 않은 집에서 편히 잠을 잘 수 없을 것이

다. 물론 당장이라도 복자삼춘네 가족 공동묘지에 가볼 요량이었지만 그 전에 꼭 캐리어 안을 확인해야만 할 것 같았다.

나는 보일러실에서 나와 마루에 있는 캐리어로 향했다. 발소리를 죽이며 캐리어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발각 안방 문이 열렸다.

“대체 뭐 하는 겁니까!”

성진의 큰 소리에 나는 엉덩방아를 찧었다. 엉덩이를 들지 못한 채 뒤로 슬금슬금 물러났다. 내 등 뒤로 차가운 벽이 느껴졌다.

“내가 소리지르면 여기 올레 사람들 다 들어. 나한테 어떻게 할 생각하지 마. 솔직히 말해봐. 복자삼춘 어딨어?”

“어머니는 요양원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요양원에 간다고 그렇게 우기시다가 요양원에 있기 쉽다고 해서 내일 다시 모시려 갑니다.”

나는 성진의 모든 말이 거짓말 같았다.

“여기 사람들 그렇게 다 어리숙한 줄 알아? 금방 캐리어는 왜 들고 갔다가 온 거야?”

성진이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성진이 내 정확한 추리에 놀랐다고 생각했다. 진실을 내가 알아챘으니 성진이 나를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어서 불안했다.

“남편도 내가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정말 어이가 없네요. 내가 어머니를 죽이기라도 했다고 의심했던 겁니까?”

“물론이지. 복자삼춘이 그래도 우리 집에도 마실 오고 그랬는데 아들 오고 나서 통 나오지 않고 그때 삼춘 얼굴에 명도 있었잖아.”

“그건… 하여튼 그렇게 못 믿으면 내일 요양원에 나랑 같이 가서 어머니 모셔오면 되겠네요.”

“그러시겠다? 내가 알아채니까 요양원 간답시고 나를 어디 으슥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내일 요양원에서 어머니 모셔오면 그땐 나한테 어떻게 사과할 겁니까? 그리고 내가 정말 그런 죄를 지었다면 지금 당신을 가만 놔두겠습니다.”

너무나 당당한 성진의 말에 나는 다시 다른 이유로 불안해졌다.

정말 복자삼춘이 요양원에 간 게 아닐까?

나는 불법 주거침입자였고, 야밤에 남의 집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음에도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복자삼춘이 내일 안 오면 경찰한테 설명해야 할 거야, 각오해!”

나는 떨리는 다리를 진정하며 재빨리 그 집을 벗어났다.

*

다음날이었다.

복자삼춘이 안방에 이불을 반쯤 덮고 누워 있었다. 복자삼춘이 얼굴의 명은 희미해졌다.

“서율이어멍이나 막 찾았댄허멍. 정해도 나 안부 궁금핸 물어준 건 서율이 어멍 뿐인게. 고맙다이.”

나는 성진이 많은 것을 생략하고 복자삼춘에게 그간의 사정을 얘기한 걸 알았다.

“어떻 된거마씨?”

“나가 이젠 사람 구실 못햄서. 고약한 치매라. 밤중에 사리분별 못하고 밖으로 돌아다니젠히고. 오죽하면 밤에 내가 또 일어나면 성진이신디 나 어디 묶어 불랜 해시커냐. 더 시간 흐르면 아들신디 민폐되카부댄 나가 요양원에 보내주랜 헌거라. 경현디 요양원에 가난 정신멀쩡헐 땐 나가 견디지 못허커라. 죽어질 때 죽어지더라도 집에 이서야 사람 사는 거 닮안 집에 오肯 헌거라. 이제 어떻허코. 우리 불쌍한 성진이신디 영 짐이 돼부리신게.”

“나는 그것도 모르고예. 경현디 성진인 무사 요양원 이름도 말해주지 않아신고예.”

“나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랜해서.”

“무사마씨?”

“내 마지막 자존심이주만 다 쓸데 어서…… 나 고집대로 집에 오肯했주마는 이젠 어떻허코.”

“걱정맙씨.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오는 것도 있고예, 알아보면 지원해주는 것들도 이실 거우다. 나가 알아보쿠다. 경하고 혹시 또 성진이가……”

나는 또 아들이 때리기라도 하면 나에게 말하라고 하려다가 말을 삼켰다. 복자삼춘이 많이 피곤해 보이기도 했고 성진이 집 안에 있는데 복자삼춘이 아들이 때린다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을 것 같았다.

내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을 때 성진은 창고에서 짐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문제의 캐리어는 창고로 옮겨져 있었다. 캐리어는 활짝 펼쳐져 있었고 그 안에는 서류뭉치가 가득했다. 나는 캐리어를 오래 쳐다

보았다.

“잘 나갈 때의 부산물들입니다. 저 기획서들 다 태워버리려다가 도로 갖고 왔습니다.”

“사실은 복자삼춘이 맞아서 죽언 그 가방에 시신을 숨긴 줄 알고 캐리어를 열어보려 했던 거야.”

성진이 피식 웃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경멸이라기보다는 아이없다는 표정이었다. 오해했던 일에 대해 나는 사과하고 싶지 않았다. 복자삼춘의 명으로부터 시작된 오해였다.

“복자삼춘이 요양원 가기 전에 얼굴에 명이 든 거 봤어.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복자삼춘을 다시 때리거나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뜻으로 허리에 손을 얹은 채 성진을 노려보았다.

“내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조금씩 치매 증상을 보이셨는데 유독 밤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려 하고 물건을 여기저기 숨기셨어요. 정신이 온전할 때는 자책하셨고요. 어머니는 넘어졌다고 우기지만 아마 당신 손으로 그러지 않았나 의심됩니다.”

“아니, 왜, 복자삼춘이, 그럴 리가.”

나는 거대한 뼈발에 빠진 거 같았다. 거짓말이라고 외치고 싶은 불편한 진실이 깊은 그곳에서 내 다리를 붙잡는 거 같았다.

“어머니는 동네 마실을 못 가는 이유로 치매보다는 얼굴의 명을 선택한 겁니다.”

“이해가 안 돼. 얼굴에 명이 생기면 성진이 복자삼춘을 때린 거로 내가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신고하면 어쩌려고 그랬대?”

“어머니는 미처 거기까지는 예상하지 못한 겁니다. 명이 생긴 걸 어디서 넘어진 거라고만 당신이 생각할 줄 안 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때렸다고 생각하리란 건 전혀 예상하지 않으신 겁니다. 제 어머니는 그런 분이십니다.”

나는 복자삼춘이 누워 있는 안방으로 고개를 돌렸다. 쫓기듯이 그 집을 나와 어적어적 걸어서 집으로 향했다. 복자삼춘의 얼굴 명 같은 어스름이 내렸다. 올레의 나무들 그림자가 서로의 그늘을 덮고 더 짙어졌다.



박미윤

2009년 『제주신인문학상』, 소설집 『낙타초』, 『조용한 의출』, 4·3장편소설 『연인』.

강법선

1953년 제주에서 출생하였으며, 원광대학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원광대학교와 동국대에서 강의하였다. 1986년 인수한 『월간 난과 생활』과 2000년 창간한 『월간 다도』의 편집 발행인이다. 1987년부터 당대 사군자의 최고봉인 옥봉 스님에게 사서를 받아 전법제자가 되었으며, 1993년 ‘추사 김정희 기념 휴호대회’에서 대상(문인화)을 받았다. 2005년 이후 국내 개인전 5회, 중국 영파(2007), 무한(2007), 계림(2007), 온주(2008), 소흥(2009), 북경(2009), 무이산(2009), 중경(2010), 곤명(2011), 소흥(2024)에서 초대전시회를 열었다.

2003년 『예술세계』 신인상(시)으로 등단하였고, 2020년 장편소설 ‘난향 바람을 타다’가 서귀포시 문학작품 공모에 당선되었다. 저서로 「한국춘란 기르기」(1993. 대원사), 「난」(2001. 대원사), 박사 논문 「선어록에 나타난 차의 화두 연구」(2010)가 있다.

난(蘭)과
문화의
여정



난과 문학의 여정

기획2 | 예술의 향기

장법선

난과 문학의 만남

난(蘭)의 아름다움은 예로부터 난의 의미와 함께 이야기됐다.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 구비문학(口碑文學)이오, 그러면 미술이고, 글로 쓰면 문학이다. 같은 이야기라도 여러 번 읽을수록 감명이 새로워지고 깊어지는 것을 고전이라 하고, 많은 사람이 공감하여 더 인간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고전 명작이라 한다.

난도 가까이하여 같이 있을수록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편하게 해준다. 그래서 난을 고전 식물이라 한다. 산과 들에 자생하는 것을 캐어다 심고 기르고 길들이는 것을 원예라 하고, 난은 자생지에서 집으로 옮겨 심어 기른 역사가 무척이나 오래되었기에 고전 원예식물이라 한다. 그런 만큼 식물 중에서도 난은 우리의 심성과 문화를 가장 대표적으로 포유하고 있기에 매화, 국화, 대나무와 더불어 사군자(四

君子)로 추앙되며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게 하는 식물 이상의 의미를 부여받고 있다.

난은 중국의 공자(孔子 : BC 552~BC 479)에 의해서 엮어진, BC 12세기 ~BC 6세기까지 불리던 시(詩) 모음집인 시경(詩經)에서부터 나타난다. 여기에 난은 구애(求愛)의 물표이거나 아가씨의 아름다운 모습에 비유되는 표현 수단으로 쓰이었다. 또한 공자가이(孔子家語: 공자의 언행, 문답 및 논의를 적은 책)를 보면 난에 관한 이야기는 모두 세 번 나오는데, 이때부터 난은 별씨 군자의 격에 비유된다. 이러한 난의 이미지는 중국 전국시대의 굴원(屈原: BC 343 ?~BC 277 ?)을 거치며 여러 문인(文人)·묵객(墨客)들에게서 자연스레 군자와 함께 오르내리게 된다.

굴원은 시인이며 난을 좋아하는 충신이었다. 왕에게 충언했지만, 오히려 추방당했다. 나라는 망해가는데 나라 꽃이 엉망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강가를 떠돌며 안타까워하다가, 마침내 멱라(汨羅)에 몸을 던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난을 좋아하던 그는 난을 따서 허리에 차고 멱라강에 투신하였다. 죽음으로써 그의 한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그가 죽은 날이 5월 5일이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주민들은 시신을 찾으려고 열심히 배를 저었다. 물고기들이 시신을 훼손하지 말라고 대나무 통에 찰밥을 담아 강에 던지며 먹이를 던졌다. 그래도 시신은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가 좋아하던 난꽃은 강에 가득 떠올랐다고 시인은 노래했다.

오월 오일 단오의 유래가 중국에서는 이렇게 해서 생겼다. 굴원을 기리는 단오에는 굴원을 찾기 위해 배를 몰고 나오는 것에서 유래한 배 물이 시합인 ‘새룡선(賽龍船) 경기’를 연다. 대나무 잎으로 쌈 찰밥을

강에 뿌리기도 하고, 사람들은 찹쌀과 여러 재료를 넣어 찐 만두류의 음식을 먹는 행사를 거행한다.

난을 사랑한 굴원으로 인해 난은 여러 문인(文人)·묵객(墨客)들에게서 자연스레 군자(君子)라는 의미와 함께 자리하게 된다. 군자는 성품이 어질고 학식이 높은 지성인을 말한다. 지성인이기에 사회를 이끄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이 추앙을 받으려면 올곧아야 한다. 우리는 올곧은 사람을 선비라 한다.

난은 늘 푸르다. 늘 푸르므로 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독야청청(獨也青青)하는 절개를 지닌다. 절개는 선비의 도리다. 도리란 목에 칼이 들어도 제 뜻과 지조를 버리지 않음을 뜻한다. 뜻과 지조를 지키는 것은 사람의 살아가는 도리를 안다는 것이다. 도리를 안다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가치를 안다는 것이다. 살아가는 가치를 아는 것은 선비의 도(道)를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난의 의미를 아는 것은 사람의 살아가는 정도(正道)를 아는 것이다. 선비는 바른 뜻을 변하지 않는 사람인기에 남녀가 구별이 없다. 하여 난을 노래한 시인들은 하늘의 별처럼 셀 수가 없다.

난 재배의 역사

그렇다면 언제부터 난을 적극적으로 재배하기 시작했을까? 난이 완상(玩賞)의 대상으로 가꾸어진 것은 11세기 중엽인 북송 시대의 중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남송 시대에 이르러 활짝 꽃을 피우게 된다.

13세기에는 금장난보(金障蘭譜:趙時庚), 왕씨난보(王氏蘭譜:王貴學) 등 난에 관한 여러 책들이 저술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문인들 사이에 목란화(墨蘭画)가 유행하게 되어 명대(明代)에 이르러서는 수목사군자(水墨四君子)로 굳게 되며 확실하게 난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상하게도 난을 치는 것은 전문화가가 아닌 시인 묵객들이 했다. 화가가 아니라 글을 짓는 시인들이 난을 친 것이다.

그랬다. 난은 시인들의 차지였었다. 그러나 현대의 시인들은 난을 치는 사람이 적다. 아니, 거의 없다. 옛 문인들이 지니던 선비의 멋이 지금은 사라지고 있다. 왜 문인문객들은 난을 좋아했을까? 글을 쓰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난의 매력은 무엇일까? 이렇게 2,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말로 전하고 글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문학의 세계로 빠지게 했던 난의 마력은 과연 무엇일까?

난과의 인연

내가 다니는 직장은 고향이 아니었다. 결혼식을 마치고 타향으로 돌아가는 내게 아버지가 아끼던 제주한란 몇 분을 꺼내놓으셨다. 난을 키워보라며 진지한 얼굴로 난을 쟁겨주셨다. 고향인 제주를 떠나 그 난을 들고 키우며 나는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흡뻑 난의 매력에 묻히게 되었다. 그리고, 부모님이 그렇게나 좋아하시던 공무원직을 그만두고 어느새 난을 전문으로 한 잡지사 편집 발행인이 되어 있었다. 난을 쓰려면 난을 치는 것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했고, 당대 최고의 스승을 찾았다.

조국의 독립운동을 하던 스승은 동족끼리 죽이는 6.25를 겪으며 무상을 느껴 스님이 되셨단다. 다행히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 어느새 아버님에게 난을 받은 후 45년이란 세월이 흘러버렸다. 그런 인연으로 난을 얘기하게 되었다.

난의 아름다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난의 실체를 만나기 전에 이미 많은 문학 작품을 통하여 난의 아름다움과 그 의미를 만난다. 사람에 따라서 난이 주는 아름다움은 각자 다르게 와 달겠지만 이는 어느 것이 강하게 달느냐는 차이일 뿐, 보편적인 난의 아름다움은 누구나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추운 겨울이 되어야 비로소 제빛이 두드러지는 난, 그에 선비들은 난을 닮으려 했으며 그의 의미를 따르려 했다.

난은 사랑을 알게 한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많은 사랑을 느낀다. 그 사랑은 마음껏 나타낼 수도, 조금은 감출 수도 있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아무 말도 없이 인간의 정을 그리워하는 것이 난이다. 인간에게 길러지는 식물은 오직 인간의 사랑을 기다리며 그 사랑에 답하며 살아간다. 난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정을 쏟고 사랑을 주는 것만큼 길러진다. 난을 사랑하는 것을 배움으로 우리는 사랑을 주는 것을 알게 된다. 사람이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것, 아름다움 중의 아름다움이라 할 수 있다.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 더욱 맑게 꽃이 피고

향이 맺히는 것이다. 난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을 알게 한다.

난은 관조(觀照)의 세계를 보여준다.

난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난을 좋아하고 느끼는 것은 정신의 여유로움에서 그 실체가 가슴에 와닿는 것이다. 각박함과 어려움에서 벗어나 예(藝)의 실체를 맛보았을 때 속세의 어려움을 벗어나는 여유스러움과 그것을 느끼는 관조의 멋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난은 예(藝)를 알게 한다.

예술이란 원래 농부들이 땀을 흘리고 거두어들이는 기술을 뜻하는 말이다. 난에 있어 열심히 기르고 아름답게 자라는 것을 보며 느낄 수 있는 것, 바로 그 자체가 예라 할 수 있다. 난이 지니는 엽선(葉線)의 흐름 하나하나는 본능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선(線)의 미(美)에 매료당하게 한다. 난을 가까이하는 순간 곡선의 완만하고 힘이 있는 그침, 부드러운 공간 의미를 알게 된다. 난은 그 자체가 이미 미술품(美術品)이기 때문이다. 하여 먹을 갈고, 붓을 잡고, 난을 친다. 친다는 것은 병아리를 치듯 한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어미 닭처럼 하나의 마음이다.

난은 그리는 게 아니다. 희 하나로 난의 선을 뽑아내는 것이다. 늘 푸른 선, 난은 풀이면서도 풀이 아니다. 겨울이면 색을 바꾸고 자태를 바꾸는 풀이 아니다. 형태는 비슷해도 두터운 난잎은 7, 8년을 살고 도 선을 바꾸지 않는 의연한 자태다.

시인묵객들이 그 선을 친다.

난을 칠 때는 획 하나에 난잎의 전체를 담아내야 한다. 검정 먹색을 물과 섞어서 짙은 청녹색의 질감부터 잡아야 한다. 검정색이지만 기운은 청록색의 싱싱한 기운을 지닌 잎으로 태어나게 해야 함이다. 친다는 것은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붓질이다. 빈터에 씨를 뿌리고 키워서 올리듯 자라게 하는 힘이다. 시인묵객들은 그 난 한 잎을 위하여 수만 번의 붓질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런 붓질이라야 닮음을 담아내는 비결이 담긴다. 그러나 닮기만 해서는 안 된다. 기운 생동하는 살아 있음이 느껴져야 한다. 단 한 번의 붓질에 난의 고귀함과 협육의 두터움으로 그 무게감이 빛어내는 선의 흐름을 타야 한다.

어찌 수만 번으로 그 고아함을 담아낼 수 있는 선을 내 몸에 담아낼 수 있을까. 그렇기에 붓질은 겹손에서 출발한다. 그리하여 잎과 잎이 아울리고 어울리어 백지 위에 입체적 공간처럼 먹빛이 난잎으로 태어난다. 잎이 만들어지면 그 위에 꽃을 피우는 작업을 한다.

난꽃에는 맑은 기운이 청명하다. 화선지 위에서 그런 난꽃의 생명을 불어넣어야 하는 것이다. 그 작업이 일 년이면 될까. 이 년이면 될까. 오로지 한 마음으로 하는 일이기에 선(禪)이 된다. 선은 도를 통하여 위해서 한다. 도를 통할 때까지 연습하는 것이다. 그 연후에 작품이 우연히 된다면 도가 트인 것이다. 그렇기에 난을 치는 일은 함부로 못 한다. 난을 치는 일은 시인이 시를 토하듯 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일이다. 그러나 짧은 시인은 있어도 난을 치는 짧은 작가는 없다. 그래서 난은 아름답다.

난의 아름다움은 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도 스며있다. 난은 보

이지 않고 맛볼 수 없고 건드릴 수 없는 향(香)의 아름다움을 갖는다. 모든 물체에는 스스로 내는 방향(芳香)이 있다. 돌 부스러기, 물까지도 향을 느끼게 한다. 향은 그 물체가 내는 품위이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의 도(道)를 아는 사람일수록 향이 있음을 느끼게 된다. 서둘러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느낌만으로도 진실을 알 수 있게 한다. 향은 난에게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품격이다. 스스로 내는 향 하나만으로도 주위에 절로 모이게 하는 덕(德)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난 하면 저절로 향을 생각하게 되는, 보이지 않는 격이 아름다움을 높이게 한다.

난에는 자족(自足)의 아름다움이 있다.

많은 식물이 햇빛과 수분과 영양이 많으면 자랄 수 있을 만큼 욕심껏 자란다. 그러나 난은 알맞게 자라 필요 이상의 잎장 수를 늘리지 않으며, 길이 또한 적당한 때에 자리를 중지한다. 스스로 족함을 안다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음이고,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안다는 것이다. 자족의 아름다움은 욕심의 정화된 달관의 아름다움이다.

난의 아름다움은 조화의 미에서도 나타난다.

난은 긴 잎과 짧은 잎, 서는 잎과 숙인 잎, 그리고 서로 엉클리기도, 맞부딪쳐 있기도 한다. 그 잎들이 분 안에 뿌리를 담으면서 생명의 빛으로 존재한다. 생명의 빛으로 존재함으로써 선(線)에는 자연스러움이 있다. 자연스러움에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이다.

조화롭다는 것은 모두가 제자리에 있을 때를 말한다. 모두가 제자

리에 있다는 것은 자기 위치를 안다는 것이다. 자기 위치를 안다는 것은 다른 것의 위치도 인정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음이다. 그렇기에 난에게서 얻음 그 자체가 도(道)라 할 수 있다.

난은 기다림의 아름다움을 가르쳐 준다.

난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는다. 신아가 나오고, 그 신아가 자라서 벌브를 형성하고, 형성된 벌브에서 꽃을 피운다. 꽃을 피운 후면 다시 신아가 나오고 알게 모르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하나의 미술품으로 자란다. 난의 성정을 파악하여 난의 원하는 상태로 만들었을 때 비로소 하나의 미술품이 된다. 시간과 사람의 정성이 빚어낸 아름다운 미술품은 오랜 기다림의 결과에서 오는 것이다.

난은 중용(中庸)의 미를 알게 한다.

난의 자연 상태는 공중도 아니고 땅속 깊은 데도 아닌 곳에 겉으로 뿌리를 뻗고, 하늘도 땅도 아닌 지표면의 부드러운 부엽토(浮葉)에 자리한다. 비료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없어도 자라지 못한다. 물기가 너무 많아도 죽고, 너무 적어도 안된다. 햇빛이 너무 강해도, 너무 약해도 어렵다. 너무 습해도 안 되고, 너무 말려도 죽는다. 햇빛이 강하면 차광망을 하고, 약하면 햇빛의 역할을 할 장치가 필요하다. 배양토는 흙도 아니고 돌도 아닌 작은 알갱이를 쓴다. 모든 것이 중용이다. 풀이면서도 몇 년이 가는 나무처럼 생명이 있고, 생명이 긴 나무처럼 오래 사나 풀의 형태를 한 것도 중용의 도다. 우리는 난에게서 중용의 도를 배운다.



난은 생명의 신비로움을 알게 하는 아름다움을 갖는다.

난을 가까이하기 전에는 그다지 변하지 않는, 그저 푸르기만 한 초본식물이라고 느낀다. 그러나 가까이하게 되면서는 난의 변화에 매료되고 만다. 난은 아주 여리디여린 투명한 빛으로 각기 다른 빛을 띠고 개성 있게 신아를 내민다. 신아를 내밀 때의 환희로움을 맛보는 것은 난을 아는 사람들만의 세계이다. 난은 자라가면서 그때그때 각기 다른 위상으로서 변화를 보인다.

꽃봉오리가 나오면 꽃봉오리의 빛 또한 난마다 개성 있는 빛으로 다르게 그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투명하기도 하고 노랗기도 하고, 투명한 포의에 붉은빛이 감도는 속살이 보이듯 눈부신 꽃봉오리의 빛이 있는가 하면 먹빛처럼 짙은 자색의 빛을 보여주기도 한다. 꽃이 피면 또 어떤가. 꽃잎의 형태가 꽃마다 개성으로 나타난다. 동그란가 하면 길기도 하고 두터운가 하면 얇기도 하고 정형인가 하면 변형도 보이는, 그러면서도 그 빛이나 형태는 어김없이 그 전해진 형질을 나타내는 생명의 경이로움을 갖는다. 뿐이라. 신아가 자라 잎의 형색으로 되었을 때 그 또한 본연의 모습을 어김없이 스스로 찾는다. 잎끝이 둥글어야 될 품종은 둥글고 잎끝이 뾰족해야 할 품종은 뾰족하고, 잎에 줄이 들어가는 품종은 줄이 들고 반점(斑點)이 들어갈 것은 반점이 들어간다. 모두 생명의 빛에서 나온 본래의 모습이다.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자연이 준 모습에서 인간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난에는 희생의 아름다움이 있다.

모든 희생은 평상시의 좋은 상태에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어려운 여건하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해 어느 하나가 온 힘을 다른 것에 밀어주는 것을 말한다. 생명까지 바치면서 주는 것이다. 난이 그러하다. 어미촉과 어린촉이 같이 공존하다가 갑자기 날이 추워지는 어려운 상황이 되면, 어김없이 어미 촉은 본능적으로 어리디어린 잎으로 있는 힘을 보내 보호한다. 그러므로써 어미 촉은 희생이 되어 죽고, 새촉은 강한 생명력으로 건강하게 벼텨 나간다. 자기 종족 보존을 위해서는 자기보다도 어린잎을 보호하는 특별한 모성애를 가진 것이다. 자기는 희생이 되더라도 새촉이 살면 같이 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난의 아름다움은 효(孝)의 아름다움이기도 하다.

난은 투명하리만치 맑은 빛으로 잎을 내고, 그 잎이 자라서 구경을 살찌우고 꽃을 피우고 새끼를 쳐 번식하고, 잎의 수명이 다하면 그 잎은 흐트러진 자세를 보이지 않고 꽂꽃한 모습 그대로 떨어져 나간다. 이는 꽃을 피운 후의 젊음이 지난 다음에 오는 사그리는 아름다움이다. 그러나 잎이 떨어졌다 해도 그 구경은 사그라지지 않는다. 후손들에게서 끊임없는 영양공급을 받기 때문이다.

식물 거의가 탄소동화작용을 하지 못하면 썩어가나, 난의 구경은 오히려 생명의 빛으로 남는다. 난의 영광으로 남아 끊임없는 영양을 보급받는 효(孝)의 아름다움을 보게 한다. 그러므로 난은 대주(大株)로 있는 것을 좋아하고 세력이 더욱 불어가게 된다.

퇴촉 또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환경이 악화됐을 시 그 구경에서 싹을 내어 송고함마저 알게 한다. 잎이 다 떨어져 죽은 듯 버려진 퇴

촉에서 새싹이 부끄럽게 숨을 죽이고 올라오면 탄성을 올리며 생명의 힘이 이다지도 귀한 것임을 알게 한다. 그래서 난을 하는 사람들은 퇴촉을 선물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선물을 받은 이는 죽은 듯 버려질 것 같은 퇴촉을 받는 것만으로도 감격하며 난의 선배를 따르는 것이다.

난에는 나누는 아름다움이 있다.

난을 키우면 정성을 쏟은 만큼 번식의 보답을 받고, 번식의 보답을 받은 애란인은 그 귀한 의미를 나누어 주는 기쁨을 알게 된다. 그것은 금란지교(金蘭之交)를 넣게 하는, 그래서 정이 오감을 느끼고 서로를 더욱 가깝게 만드는 아름다움이다. 난을 선물한다는 것은 딸을 시집보냄이다. 몇 년 동안이나 키운 난을 선물하는 것은 정성 들여 키운 딸을 시집보낼 때처럼 그 받을 사람의 자세를 살핀다. 난이 그 집으로 가면 정성껏 키울 사람인지 아닌지부터 점검한다. 그럴 사람이라야 그 집으로 난을 시집 보냄이다. 난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 받은 난을 정성으로 키워야 한다. 그렇게 정성을 들여 키우면 촉수가 늘고, 그러면 그 난을 나누어서 두 분으로 만든 다음 다시 새촉이 나서 자란 분을 들고 옛 주인을 찾아간다. 내가 이만큼 정성을 쏟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랑스레 난을 들고 선물하러 가는 것이다. 그렇게 자신이 난인의 한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음을 신고하러 가는 것이다.

난에는 배움의 아름다움이 있다.

사람에게 배우는 것만큼 재미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배움은 새로

움을 가져오는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난은 자기 스스로 좋아서 선택한 길인 만큼 배우고 응용하는 일이 더욱 즐겁게 행해진다. 배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난은 배우는 아름다움과 겸손을 가르친다.

난과의 만남의 인연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연히 만났지만, 그 우연은 우연이 아니었음을 안다. 어느 분이 나에게 보내온 선물이거나, 길거리에서 주운 듯 오게 된 그 인연들 하나하나가 인생에서 중요한 사연이 된다. 이미 사물의 차원을 넘어 살아 있는 전설이 된다. 인생의 동반자가 된 배필이듯, 아니 가슴 속에 남은 그리운 여인이듯 난과의 만남은 필연이었음을 알게 된다. 아무 말도 못 하지만 내 주위에 자리를 같이하여 베란다에 있기만 한데도 어느새 주인공의 영역에 난은 자리한다.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어린아이가 주위에 있어야 마음이 놓이듯 난과 떨어져 있다고 불안하다면 벌써 난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다. 연인이 서로의 영역에 있을 때 안심하여지듯이. 하여 서둘러 퇴근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집은 더욱 즐거운 곳이 된다.

난은 말을 못 하지만 난을 하다 보면 텔레파시를 알게 한다. 난에게 주어지는 정(情)이, 사소하게 나누는 모든 것이 대화(對話)가 트임을 안다. 어제는 촉촉했던 난분의 화장토가 바짝 마른 것을 보기라도 한다면 내일 물을 주겠노라고 어느새 말을 던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한다. 말을 하지 못하는 생물과 어느새 말을 나누는 정이 많은 사람인 애란인이 되어감을 느낀다. 어디 물 주는 일뿐인가. 난이 뜨겁다 하

니 차광망을 치고, 운동이 모자르다 하니 난실을 열어 통풍을 시키고, 그래도 부족하다 하면 선풍기를 틀어준다. 목이 마르다 하면 물을 주고, 영양이 부족하다 하면 비료를 준다.

겨울이 오면 난은 쉬는 계절이다. 따듯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얼지 않을 정도까지 기온을 차게 하여 동면에 들게 한다. 그렇게 어느 새 말을 하지 않아도 나눌 수 있는 세계에 살게 되는 것이다.

난은 생각하는 그 자체로 삶의 아름다움을 알게 한다. 난을 가까이 함으로 이야기했던 모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자신이 알게 모르게 그 아름다움들은 각자의 심성에 박히어 어느덧 아름다운 성정을 닮아간다는 데에 진정한 난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하겠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애란인이 되고, 난으로 인해 그를 닮은 사람이 된다면 후인들은 그를 난인이라 부른다. 이렇듯 난의 문학성은 얘기의 연속 자체다. 그렇기에 난을 좋아하는 동호인들은 늘어나고 난에게서 배운다는 말을 많이 할 정도로 난이 주는 교훈은 많다.

우리나라의 난 역사

그러면 우리나라가 난을 한 역사는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의 문헌에서는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 : 857~?)의 문장에서 난(蘭)이란 글을 찾을 수 있다.

부인덕방난혜 예결빈번 거실소천가물간지…(夫人德芳蘭蕙 禮潔蘋繁 遽失所天加沒干地…)

부인의 덕은 난혜처럼 향그롭고 예는 빈번(개구리밥과 산흰쑥)처럼 조출한데, 갑자기 남편을 잃음에 땅에 묻히어 죽은 듯하고...

이는 왕비(王妃)의 덕을 난혜(蘭蕙)에 비유한 글로서, 발견된 것으로는 가장 오래되었다고 하겠다. 또한 고운(孤雲)의 다른 시구에서도 난(蘭)이란 글자를 찾을 수 있으며 고려시대에는 이규보(李奎報), 이곡(李穡), 정몽주(鄭夢周) 등 많은 문인의 글에서 나타나고 있다.

傲雪蘭

彈入宣尼操

紉爲大夫佩

十董當一蘭

所以復見愛

공자님이 거문고에 난조(蘭操)를 싣고

대부의 패에는 난을 새기네.

난 한 송이가 열을 당하니

이에 다시 보고 사랑하노라.

오설란(傲雪蘭)을 노래하여 충절을 나타낸 이는 사육신(死六臣)의 한 사람인 성삼문(成三問)으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난은 높은 격으로 불렸고, 매창(梅窓)이나 난설헌(蘭雪軒) 등의 여류시인들은 물론 휴정(休靜)이나 유정(惟政) 등의 고승(高僧)들의 작품에서도 난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묵란화(墨蘭画)는 고려말 옥서침(玉瑞琛)과 윤삼산(尹三山)이 그렸다

는 것이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현존하는 최고품(最古品)은 선조시대(宣祖時代)의 이중(李澄)이 그린 춘란도(春蘭圖)이다. 특히 조선말의 김정희(金正喜)와 이하옹(李暉應), 민영익(閔泳翊) 등이 유명하다. 난에 관한 설명이 들어 있는 문헌으로는 세종(世宗) 31년인 1449년에 간행된 강희안(姜希顥)의 양화소록(養花小錄)을 가장 오래된 것으로 들 수 있다.

본국난혜품류부다 이분후엽접단향역열수 실국향지의 고간화자부
심상상 연생호남연해제산자품가 상후물상수대구토의고방절분위묘
(本國蘭蕙品類不多 移盆後葉漸短香亦劣殊 失國香之義 故看花者
不甚相尚 然生湖南沿海諸山者品佳 霜後勿傷垂帶舊土依古方截盆
爲妙)

우리나라에는 난혜의 종류가 많지 않은데, 분에 옮긴 후 잎이 접차
짧아지며 향기 또한 겨우 나는 정도여서 국향의 뜻을 잃는다. 그러
므로 꽃을 본 자는 심히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호남연해의
여러 산에서 나는 것은 그 품종이 아름답다. 서리가 내린 후에 뿌리
가 상하지 않게 자생지의 흙으로 싸주고 옛 방식에 의하여 분에 심
으면 좋다.

이것으로 15세기에는 이미 중국란이 알려졌음은 물론 한국춘란도 발견되어 기르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계속해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 산림경제(山林經濟)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 등 적지 않은 문헌들에서 난에 관한 기록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아끼는 제주한란에 대한 기록은 신경준(申景濬: 1715년~1781년)의

여암유고(旅菴遺稿)에 처음 등장한다. ‘아국제주독유혜(我國濟州獨有蕙)…’란 기록으로 ‘우리나라는 제주에만 꽃 1대에 여러 개 꽃이 피는 품종이 있다’는 말로 제주한란을 지칭했다. 여기에서의 혜(蕙)란 난초 혜자지만 일경다화(一莖多花)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렇듯이 난에 관한 시문(詩文) 뮤란도(墨蘭圖) 문헌(文獻)들이 많으나 널리 가꾸어졌다고는 보기 어렵다. 일부 지식층에 한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나마 많은 수는 관념에 의한 난으로만 알고 있었다. 더욱이 한국춘란은 향(香)을 중요시하는 중국풍에 젖었던 지식층에 있어 양화소록(養花小錄)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 관심이 미미했다.

강희안은 제주한란은 몰랐던 듯싶다. 만약에 제주한란이 이 당시에 알려졌다면 지금까지 한라산의 한란이 제대로 숨을 쉬고 있었을까. 접차 난에 대한 글들이 늘면서 조금씩 난에 대한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지만, 역시 일부 부유층이나 지식층에 한한 것이었다.

일제 강점기에는 제주한란이 채집되기 시작하여 ‘계립난만회’라는 애란 단체가 결성되어 당대의 최고의 부호들이 난을 하였으며, 책자도 발행하였다. 제주한란의 품종이 이 책자에는 중요하게 등장했으며, 회원 명단에는 창씨개명을 안한 ‘장택상(대한민국 3대 국무총리)’이란 인명도 보인다.

난복과 제자복이 많은 시조시인 가람 이병기 선생이 난을 좋아해서 난을 재배한 얘기는 너무 유명하기에 그의 시조와 함께 난의 재배에 관한 얘기는 가람일지라는 일기에 기록으로 남아있다. 가람의 일기에 ‘양치종 군이 제주한란을 가져왔다’라는 부분을 읽고 필자가 당시 교육감이던 양치종 선생에게 전화를 드려 여쭤더니, 자기가 제주

한란을 가져다 드렸던 것은 기억에 없지만 가람 선생의 일기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라며 반가워했다.

필자는 가람 선생의 따님을 찾아뵌 적이 있다. 난을 많이 키우셨던 가람 선생의 삶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다. 따님은 중국란인 건란을 아버님이 키우시던 난이라며 보여주셨다. 잎에 기가 들어 있어 꺾이지 않는 품새가 멋이 있었다. 난을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향을 그리워하는 것이요, 꽃이 피면 님의 온 듯이 맞이한다.

제주한란을 하는 사람들은 그랬다. 다른 곳에서는 난을 모르지만 제주사람들은 난을 먼저 알았다. 산에서 동자묘를 구입하여 재배하기 시작하여 최소한 10여 년을 배양하여야 꽃을 볼 수 있었다. 하여 난을 기다림의 식물이라 한다. 기다리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다. 그렇기에 제주한란을 키우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자긍심을 가졌다.

필자의 난과 문학의 여회(旅懷)

난이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1970년대 후반이라고 할 수 있다. 소수 특권계층에 의해서 움직여지던 난취미계(蘭趣味界)가 1981년도의 수입자유화로 인하여 난을 마음대로 수입할 수 있게 되었다.

난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난을 쳤는데 이제는 직접 난을 볼 수 있고 키울 수 있다며 취미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난을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했다.

1983년 12월부터 월간 ‘난과 생활’이라는 난 전문잡지가 소설가 정

을병 선생을 발행인으로 창간되었다. 그렇지만 다른 잡지도 어려운데 난만을 전문으로 하는 잡지의 경영은 더 힘이 들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부도가 났다. 문학에 뜻을 두었던 필자가 1986년 6월에 그 잡지를 인수하였다. 그만큼 난의 매력에 빠져든 때였다. 공무원을 그만둔다고 부모님의 반대는 심했는데, 다행하게도 내자가 내 뜻을 받아주었다. 당시 32세의 난을 좋아하는 젊은이였던 필자는 정말 열심히 노력을 기울였다. 일본과 중국을 오가면서 해외취재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자생지 답사를 하며 60여 종 이상의 난에 대해 그 실체를 확인했다. 기록은 잡지사의 뜻이었다. 자생지에서 난을 캐어다 사람들이 쉽게 키울 수 있는 품종을 찾고 배양하는 것을 원예화라고 한다. 원예로 할 수 있는 품종이 한국춘란과 제주한란, 풍란, 나도풍란, 석곡, 새우란, 죽백란, 묵란, 타래란 따위가 규명되었다. 이외의 다른 품종은 원예화가 까다로워 채취해서 기르기가 힘이 들었다.

잡지를 통하여 하나하나 난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난과 자생란에 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으며, 우리나라의 자생란을 국제적으로 외국의 난과 비교하기 시작했다. 그중에서 한국춘란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한국을 대표할 만한 품종이었다. 일본인들이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갔고, 우리 애란인들은 그런 난을 지키려는 운동이 일어났다.

촉당 가격이 수천만 원이나 하는 난도 생겼다. 품종이 귀한 난은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었다. 외국에 없는 품종들이 우리나라에는 많이 있었다. 금수강산에는 역시 빼어난 난이 많았다. 난은 신기하게도 자기 조상을 빼다 박은 것처럼 닮았다. 그 난은 몇십 년이 지나도 조상

이 누구였는지를 그대로 알게 한다. 사진을 찍어서 복제해 놓은 것처럼 그 모습이 산에서 내려온 그 특성 그대로 전해진다.

그 귀한 품종을 찾아서 이름을 붙여주는 명명 운동을 필자가 주창하고 잡지에 명명한 난을 신기 시작하였다. 누구의 시처럼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 난은 우리에게로 와서 난이 되었다. 이제는 명명한 우리나라의 품종이 1,200여 종이 넘었다. 제주한란도 100여 종이 넘었다. 필자는 난과의 연으로 맺어진 일련의 경험을 바탕으로 난에 대한 꽁트를 잡지에 발표하였다. 당시 소설가협회 회장이던 정을병 선생이 흥분하여 잡지사로 찾아왔다. 나에게 소설가가 되어야 한다고 권유하러 오신 거였다. 필자가 웃으며 ‘저는 시인이지 소설가는 안 한다’고 하자 정을병 선생은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은 소설가가 제일이라며 계속 소설을 써야 한다고 나를 부추겼고, 그때부터 난과 연관된 소설을 쓰기 시작하였다.

제주한란을 선물 받아 잘 키우시던 현길언 선생은 나의 스승이시다. 고등학교 때 국어를 지도해주셨고 1, 2학년 담임까지 2년이나 해주셨다. 문학동인회 ‘향원’의 회원으로 추천도 해주셨다. 향원 문학동인회는 제주의 인문계 고등학교의 문학 하는 학생들의 모임이었다. 매달 네 번째 일요일이면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작품을 발표한다. 현길언 선생은 그 모임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작품을 평가해 주고 지도하여 주셨다.

향원은 매년 문학의 밤을 주최하였으며, 1년 동안 모아온 작품을 하나로 묶은 향원지를 발간했다. 문학소년이었던 나에게 폐나 깊은 감동과 발전이 있게 한, 고마운 동인회였다.

현길언 선생은 필자가 잡지사의 대표가 된 후에도 지속적인지도를 해주셨다. 한양대학교 교수로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필자가 주최하는 행사에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오셔서 축하해 주셨다. 그럼 전을 할 때도 그랬고, 난 전시회를 주최할 때도 매번 어김없이 참석해 주셨다. 이를 지켜본 정을병 선생이 현길언 선생에게 물으셨다. 필자하고는 어떤 사이냐고. 현길언 선생은 필자와 친구라고 했다. 놀란 정을병 선생이 확인차 나에게 물으셨다. 필자가 몇 살이기에 현길언 선생과 친구냐고. 가슴이 멍했다. 현길언 선생은 매사에 진실한 마음하나인 분이셨다. 현길언 선생은 난과 생활 잡지에 다달이 기고를 꾸준히 해주셨다. 그리고 그분이 기른 제자를 잡지사의 기자로 추천해 주셨다. 그들은 와서 열심히 일해주었다. 난과 생활 잡지사는 나날이 튼튼해졌다. 난에 관한 단행본도 꾸준히 발행하였다.

우리의 난을 개발하기 시작한 지 40여 년이 흘렀다. 필자도 70이 넘었다. 그동안 한국춘란의 아름다움은 확실히 규명되었다. 품종도 어마어마하게 쏟아졌고 재배하는 사람도 늘어나 난의 원예화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난도 많이 불어났다. 불어난 만큼 가격도 아주 낮아졌다. 난들의 축제인 난 전시회에는 외국인들이 난을 보러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졌다. 이제 난들이 문인들에게 돌아올 시간이 되었다. 비싸지 않아도 아름다운 난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한국춘란과 제주한란을 문인들의 세계에 가까이하고 난을 가까이 하며 노래하고 글을 쓸 시간이 된 것이다. 옛 문인들이 당연히 난을 쳤던 것처럼 현재의 문학인들은 난을 치고 화제를 지으며 난을 재배

할 수 있는 황금의 시기가 온 것이다.

시인 혜산 박두진 선생은 애란인의 한 사람임을 마다하지 않으셨다. 필자는 1986년부터 애란인이신 그분을 자주 찾아뵐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 선생은 난에 관한 얘기를 나누시는 걸 너무 좋아하셨기 때문이다.

짙은 눈썹을 가진 박두진 선생은 학처럼 곧은 자세로 앉으셔서 난 얘기를 나눌 때는 눈빛이 아이처럼 반짝거리셨다. 난 얘기뿐만 아니었다. 동란 당시 대구로 피난 갔을 때는 소년이란 잡지를 만드셨다고 했다. 돈이 없어서 청자 매병을 팔아 출판 대금을 내셨다고 했다. 이런저런 세상 얘기를 따스하고 포근하게 들려주시던 선생이셨다.

더욱 영광스러운 것은 난에 관한 단행본을 낼 때마다 새로운 축시를 육필 원고로 써주셨다는 점이다. 아무리 박두진 선생이지만 시를 짓는 시간은 길었다. 한 달을 들여도 시가 안 나오면 일주일만 더 달라고 내게 사정하셨다. 내가 갑이고 선생은 을이라도 된 것처럼. 그 글들은 모두 우리 집 가보가 되었다, 그 외에도 난에 대한 글을 많은 시인이 써주셨다. 시인 김남조 선생도 마다하지 않으셨다. 큰 사람들 은 난에 대한 사랑도 크셨다. 그중 한편을 소개한다.

韓蘭歌

혜산 박두진

너는 별이지

별이면서 꽃, 꽃이면서 별이지

하늘 총총 별이 내린

땅의 별이지

없는 듯 뿐는 향기

온 누리를 설레우고

천년을 피고 지며

겨레 마음 적셨느니

금빛 그 낮의 햇살

서늘어운 밤의 달빛

넋을 안에 달궈 다져

출렁이는 황홀

고와라 꽃 중위 꽃

꽃위의 꽃 너

너무 정한 너의 얼에

어쩔 줄이 없는,

머나 멀은 성좌 훨훨

땅에 내린 너

난이어, 겨레 함께 영원하거라

천년 만년 이 땅에 피고 지거라

박두진 선생처럼, 김남조 시인처럼, 현길언 선생처럼, 정을병 선생처럼 그대인 문학인이 난에게 가까이 가고 난은 그대를 지켜줄 시간이 되었다. 우리가 만나듯 난과의 만남을 가질 ‘시절인연’도 무르익었다. 그대가 그 인연을 찾아 나설 때가.



작품집 리뷰(Review)

나기철 시집『담록빛 물방울』

강정만 영혼 깊은 곳에서 길어올린 그리움....

김정희 동시집『할망바당 숨방귀』외

양전형 동심에 제주 무지개를 띄워주는 작가

영혼 깊은 곳에서 길어올린 그리움…

나기철 7시집『담록빛 물방울』

작품집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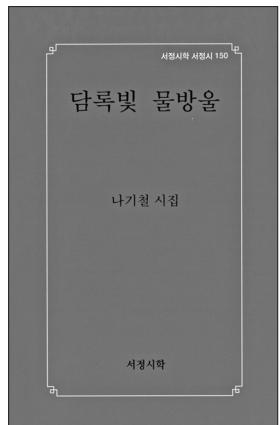
장정만

기자

나기철 시인이 <담록빛 물방울>을 발간 했다. 통산 일곱 번째의 시집이다. 시인은 짧은 시를 쓴다.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이 읽기기에 아주 좋다. 짧아서 읽기 좋고, 간결해서 시의 멋스러움에 다가설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나 시인의 시를 쉬운 시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문학평론가 유종호 선생에 따르면 쉬운 시와 어려운 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시와 좋지 않은 시가 있을 뿐이다.

나는 선생이 주장한 이 ‘시의 정의’를 출곧 인용한다. 여러번이다.

나의 오만일지 몰라도 나는 어려운 시를 좋지 않은 시라고 딱지를 붙이고 외면한다. 내 시읽기가 유치해 어려운 시를 이해할 문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간결한 시, 내가 나기철의 시집을 받아들고 한 숨



에 읽은 것은 ‘좋은 시’이기 때문이다. 나의 시 읽기의 활주로에는 나 기철의 시가 늘 ‘좋은 시’로 착륙한다. 나의 방식으로 들이대면 ‘읽기 편한 시’다.

그의 이 일곱 번째의 시집 속 시를 읽으며 나는 사유의 은하 속으로 나를 내몬다. 거기에는 무수한 별들이 떠 있다. 빛은 침묵하지만, 그것으로 말한다. 연민과 질박(質樸)과 고고함까지. 상투적이지만 할 수 없다. 이 언어의 영역을 넘어서서는 딱히 표현할 단어를 찾지 못했다. 시인은 아마도 이 숲 속에서 날마다 자신의 ‘부족’들과 시를 캐내고, 담금질하고 마침내 벼려내는 ‘대장장이’를 자처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싶다.

이번 시집 이름이 <담록빛 물방울>이다. ‘담녹색’은 얇은 녹색이다. 잎새에 인 이슬 방울은 얇은 녹색을 떨까? 시를 읽으며 상상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것은 ‘담록빛’이다. ‘색’이 아니라 ‘빛’을 이야기 한다. 물방울이 빛이다. 빛은 누군가를 위해 존재한다. 빛이 어둠을 밝힌다는 표현은 그런 의미일 거다. 어두운 데 있는 사람들을 밝혀주는 것, 빛. 나기철의 담록빛도 이와 같을 것이다. 우리들이 ‘망각의 어둠을’ 비춰 그것을 하얀 스크린에 들키내려는 시인의 의도를 나는 읽어냈다.

아마츄어의 시 읽기에 머물러 공허한 헛소리나 질러대는 나같은 독자에게는 이런 시 읽기가 대단한 비약이다. 시인은 그 ‘빛이 존재하는 세계’의 목소리를 그의 시로 절창한다. 현을 타고 흐르는 차이코프스키 ‘비창’의 ‘유려한 슬픔과 절망적인 우울’에 닿아 있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도 그렇다는 말이지 전부가 아니다. 슬픔과 절망으로 밤을

새워본 자만이 그 끝에 나타나는 사랑과 감동을 품을 것이다. 그 감동 속에 나기철의 모정(母情)이 특유하다.

“늘/건너오는/투명한 듯//사가사각/나뭇가지// 담록빛//물방울/
굴러가는”〈목소리〉

이 시에서 목소리를 내는 이는 누구일까? 시인의 첫사랑일수도, 현재의 사랑일 수도, 이제는 연락조차 없는 고우(故友)일수도, 어떤 이유나 계기로 두절된 형제자매나 친척일 수 있다. 단언컨대, 이 시는 나기철이 어머니 목소리다. 그에게 어머니는 그의 모든 것이었다. 이북에서 피난와 제주도로 이주 할 수 밖에 없었던 그 사연이 그의 시에서 사화 된다. 그가 2014년 펴낸 〈젤라의 꽃〉에는 1부에서 ‘새’ 등 6편의 시가 모두 작고한 모친을 그리워 하는 사모곡이다. 이번 시집에서 ‘평화 양로원’과 ‘그 노래’ ‘입도’ 등에서 계속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길어올리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의 노래는 아마도 계속될 듯하다.

이제 나기철의 ‘정체’를 까자. 1953년 서울에서 출생한 나기철 시인은 12살 무렵에 제주에 입도했다. 그의 부친과 모친은 모두 이북이다. 6·25 전쟁 피난민이다. “시인의 어머니는 평양간호조산전문학교 학생으로 병원에서 실습중이던 열여덟살 때 6·25가 발발하자 학업을 중단한 채 귀가 했다가, 1·4 후퇴때 월남했다.”〈젤라의 꽃/생의 감각을 되살리는 간결한 아름다움〉 현순영 문학평론가/88쪽〉 이 글로 봐 어머니는 ‘인텔리겐차’였지 싶다. 제주입도의 이야기를 귀동냥 한 것을 여기

에 덧붙인다면 피난은 아버지와 함께였다. 하지만 제주도로는 어머니와 시인과 여동생 뿐이었다. 이 가족사에서 ‘무엇인가’ 빠졌다.

나도 나기철 시인이 자란 환경을 잘 몰랐다. 서귀포의 고등학교 학생이었던 나는 당시 나의 스승인 고 김태국 선생님과 버스를 타고 제주시로 와서 한라문화제 학생 백일장에 참가했다. 며칠후 발표를 보니 나는 낙방하고 당선작 이름에 ‘나기철’이 있었다. 대체 어떤 학생일까? 당연한 의문이 나의 뇌리를 덮었다.

청소년기를 벗어나 글을 쓰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이 시인의 이름 석자가 나오면 관심을 가져 보곤했다. 과연 백일장 당선작을 냈던 나기철이라는 소년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때때로 언뜻 스쳐지나가는 그의 긴 머리카락과 바바리 코트를 보고도 말을 건네지 않았다. 정식으로 통성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고, 그런 이유는 나의 자존심을 살리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종종 그의 시와 ‘나기철’이라는 이름 석자가 지상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했고, 그가 시인으로서 한 평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를 보면서 나는 열심히 주문을 외워대며 날을 세우는 샤먼, 대장장이를 연상한다. 그 ‘주문’ 밖에 없는 것 같은 옹고집쟁이의 면모. 자신의 대장간 앞에 ‘외부인 출입금지’ 목판 팻말을 십자가 형식으로 만들어 걸어둔 채 날을 내기 위해 연신 담금질과 숫돌질에 땀을 흘리는, 우치를 뛰어넘는 우치. 그것이 고작 야공(冶工)에 머무를 대장장이를 장인(匠人)으로의 초대였다는 것을 이제야 나는 깨닫는다. 위대함은 평범한 곳에 숨어 있었다. 나기철이 그러했다. 그리하여 어느덧 초로에 접어든 나기철의 시는 이렇게 사람들의 애간장을 태우는 것이리라!

동심에 제주 무지개를 띄워주는 작가

김정희 동시집『할망바당 숨방귀』외

작품집 리뷰

양전형

시인

제주어 동시를 쓰고자 함은 전래 제주어를 이용하여 어린이들의 내면에 잠재된 사고와 정서를 밖으로 끌어내려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제주어를 많이 알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내면으로의 전달 매개인 제주어 동시가 아이들로 하여금 얼른 감성을 느끼게 해주면서 작품에 동화되도록 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건 있다. 문학의 정의를 일반적으로 정리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 글로 적어낸다는 것. 어린이들이 최소한 알고 있는, 아니면 공부하며 알아가고 있는 제주어의 어떤 단어나 문장을 알 수 있을 때에는 그 언어와 자기가 공유되는

부분을 느낄 수는 있을 것이다. 생소하고 어려운 제주어 단어 몇 개라도 뜻을 알고 나면 얼마든지 그 단어와 관련된 동시에 감상할 수 있다는 말이지만 사실, 전래 제주어도 어렵고 그 어려운 언어에다 문학을 접목시킨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도 김정희 작가의 작품 속에는 제주 바다와 제주어가 철썩철썩 살아 있다. 푸짐한 제주어와 함께 제주섬의 생태가 온몸 가득 박혀진 작가는 함덕리 바닷가 태생이고 그곳에서 자랐으므로 아이들이 동경하는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보다 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작품으로 이어가며 동심을 사로잡고 있어서 제주도 어린이들이 많이 따르는 작가이기도 하다.

김정희 작가의 작품 속에는 제주 사람과 제주어가 꿈틀꿈틀 살아간다. 제주의 정체성이 선명하다는 이야기다. 제주의 자연과 문화와 개인의 삶이 사진에 찍힌 것처럼 뚜렷한 이미지를 보여준다. 제주어로 동시를 창작하는 게 어렵지만 작가는 제주어라는 매개를 통하여 어른과 아이, 아이와 아이, 동심을 품은 어른과 어른의 교감을 느끼게 하면서 푸짐하고 맛깔스러운 제주어를 잘 살려냄과 동시에 이 제주어를 전승·보전하려고 하는 큰 의의도 두고 있다.

1.

빗방울덜

하늘서 곱을락호당

마당더레 툭 털어지민

어듸 곱으카

부글부글거리당

이녁찌레 모다들엉

응상옹상거리당

우르르 콩

술레 웨는 소리에

아고개

퐁퐁 까주명

고랑더레 곱았져

- 동시집 ‘할망네 우영팟듸 자파리’ 중 『부끌레기 동동』 전문

게 즐거움을 주며 제주어 공부를 시켜주기도 한다.

김정희 작가는 본인의 유년 시절 삶을 기초로 한 사물의 현상을 제주어 작품으로 표현하며 아이들에게 그 경험을 전달하는 제주어문학 장르에 깊이 들어서 있다. 작품 몇을 더 옮겨 본다.

우르릉 콩

울に戸 우리 무실 왕

흔 번 데끼곡

으피 무실 강 또시 우르릉 콩 (중략)

경호당 줌줌 호여지민

가불어싱가 호민 또시 돌아왕

우르릉 콩

가차이 오당 또시 면면호계

쾅쾅

(이하 생략)

- 동시집 ‘할망네 우영팟듸 자파리’ 중 『울궤(천동)』 일부

어렸을 적부터 제주의 옛날 마당을 아는 사람들은 기억이 생생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그 마당 풍경이 눈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며 마당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부끌레기(물거품)가 되어 둉둥 떠다니는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그것이 아이들에게 자기 표현능력과 창의성도 키워주고 동시 속 전래 제주어들은 다양한 품사로 아이들의 기준에 맞

천동이 치는 날 아이들은 무서워서 이불 속으로 숨곤 한다. 그런데 천동의 그 순간들을 글로 옮겨 놓고 보니 아이들은 무서워할 것이라 아니라 그 현상을 상상 속에서 즐기며 재미도 느껴지지 않겠는가.

벌이 봉봉

꽃학교에 완

이리 봉봉 저리 봉봉

봄이 온지

흔참이나 지나신다

안지도 반을 못 촬아시나

- 동시집 ‘할망네 우영팟듸 자파리’ 중 『꽃학교』 일부

꽃학교가 있다. 꽃들이 많이 피는 학교이지만 친구들도 많은 학교다. 새학기가 시작된 지도 오래 됐는데 벌들은 자기 반을 찾지 못해 이리저리 꽃만 찾으며 날아다닌다. 이 작품은 학교생활의 질서를 잘 알고 있는 아이들에게 즐거움과 창의력을 북돋아 준다.

그 외에도 동시집 ‘할망네 우영팟듸 자파리’에는 아이들의 마음을 훑겨 놓은 듯한 작품을 풀어놓으며 아이들을 위하여 어린이다운 심리와 정서로 표현한 동시들이 많다. 흄을 잡는다면, 현재 시행중인 제주 어 표기법과 다르게 쓰여진 부분들이 있다는 점이다. 지금, 그런 부분은 작가의 원작대로 인용하면서 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밝힌다.

2.

동시는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시간과 함께 서로가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주며 더불어 자기표현과 창의력을 키우는 역할을 해 준다.

그리고, 아이들의 고운 정서를 향상시켜 주기도 하고 자신감을 얻게 만들고 친구들과의 교감 능력에 크게 보탬이 된다. 또한 상호간 이해와 배려, 협동정신 등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에 있어서 다양하게 필요한 발달영역을 지원하며 차츰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동안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 매개역할을 크게 할 것이라 믿는다.

할마니가 곤는디

할마니 두릴 적인

소나인 흙교에 가고

똘덜은 흙교에 가들 못 흐엿덴

할마닌

글개비추룩 히어뎅기던

할망 바당 소곱으로 흐썰썩 들어간 물질 흐엿덴

메역도 조물곡 구쟁기영 명지영 빗도 떼멍

좁녀가 되엇덴

할마니 영 살단 보난 데맹이도 아프곡 가심도 아프곡

므음도 아판

존동인 굴갱이추룩 고부라져신개

- 제주어 동시 그림책 ‘청정거리지라 둈비둘비걸어지라’ 중 『할망 바당』 전문

해녀인 할머니가 바닷가에서 아이를 품어 안고 옛날이야기를 해 주

고 있다. 옛날이야기를 듣는 아이의 심정을 그려낸 작품이지만 실은 작가 본인이 들었던 사실을 읊겨 적은 것이다. 등 굽은 할머니가 고생 하던 옛날 해녀생활의 어려운 삶을 듣고 있는 내용으로 이를 읽는 아이들은 현실세계와 비교하면서 마음속에 새로운 용기를 품게 되며 삶의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할망네 고팽엔

밤중이민 그랑중이덜이

화륵화륵

낮인

문 꼽앙싯당

할망 좀 들민

미쭉미쭉 뻐리당

아무 그척 엇이민

푼쉬엇이 삼방으로

화륵화륵

천장에 올라간 중이덜

화륵화륵 헤갈아뎅기민

촘단촘단 용심난 할망

탕탕

문 두드리민

그랑중이덜 그만이 싯당

그척 안한민

화륵화륵

밤새낭

좀도 웃져

- 제주어 동시 그림책 '청정거러지라 둄비둠비걸어지라' 중『그랑중이』 전문

정말 옛날 제주의 풍경이다. 아이들은 신기하기만 하고 쥐들이 설마 그러랴 하면서도 이 동시와 함께 자라나면서 다가올 자신의 훗날 좋은 세상을 대비하며 꿈을 꿀 것이다.

김정희 작가의 동시 속에는 생명들이 꼬불꼬불 숨쉬고 있고 아이들의 꿈도 함께 꿈틀거린다. 어린이들은 미지에 대한 호기심이 대단 할 수밖에 없다. '바다'라 하면 잔잔하고 고요한 이미지와 함께 쉽게 다가가지 못할 꿈속의 세계가 느껴지면서 덩달아 어린이들에게는 동경심이 극치를 이루는 곳이다. 모든 물줄기들이 바다로 흘러가듯 아이들의 호기심도 거의가 바다를 향할 것임에 틀림없다.

아이들이 김정희 작가의 동시집 '청정거러지라 둄비둠비거러지라'에 들어서면 궁금했던 것들이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즘녀인 할머니와 바닷가 어부인 할아버지가 그림과 함께 보여주는 바다 이야기가 펼쳐지기 때문이다. 꿈 이야기처럼 들리고 보이며 바다와 공존하는 사실들, 생명이 있는 실제의 자연을 그려주면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이야기들은 어린이들을 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 끌어들인다. 세

상의 섭리를 보여주며 어린이들의 인성을 선하게 만들고 자연과 가깝게 해준다. 메역 구쟁기 코생이 경이 보말 멜 쿠살 뭉개들이 미지의 공간이면서 상상력의 보고인 바다를 끌고 나와 어린이들에게 조근조근 읽어주는 시인의 기법에 신기함과 신선힘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옛날 시골의 살림살이들도 보여준다. 그랑중이 가름도새 기 솟덕 범벅 등피 신땀질 오일장 자릿도새기 이야기들은 현대문명이 몸에 밴 어린이들에게 생소하지만 신기하게 전해지는 이야기들이다. 김정희 작가는 복잡한 세상살이의 어휘를 구사하면서 동시에 전달하는 게 아니고 중심 테마인 ‘바다’와 ‘옛날의 일상’을 그려주되, 몇 개의 작은 생명체들을 크게 펼쳐 보이는 기법으로 어린이들에게 꿈속처럼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3.

제주엔 할망신이 하주

그실 뛰민 마당 혼 구석 널르게

꿰눌 조찍눌 유채낭눌 감저줄눌끄장

마당 그득 그득 눌을 맹글양 놓으난

뒷마당에 눌할망이 싯고

봄인 제를 지내주

조왕할망도 잊어볼지 안하주

곡식 떨어지지 말렌

고팡할망도 싯주

- 동시 그림책 ‘폭낭알로 놀래온 곰새기’ 중『눌할망』일부

‘눌’이라 함은 표준어로 ‘노적가리’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제주의 ‘눌’은 곡식이나 땔감 따위를 등그렇게 켜켜이 쌓은 더미이다. 제주는 바람이 많은 섬이라 더 단단한 특징이 있다. ‘눌’을 쌓고 완성하려면 우선 바닥을 평평하게 고른 다음 곡식이나 땔감을 차곡차곡 쌓는다 → 눌을 쌓고 적당한 높이가 되면 방수나 방풍을 위해 띠로 길게 엮은 ‘느람지’라는 것으로 이불을 덮어주듯 쌓아 놓은 더미를 돌아가며 여러 겹 덮어준 후 → 맨 꼭대기에 모자의 역할을 하는 덮개인 ‘주쟁이’를 씌우고 나서 → 비바람에 잘 견딜 수 있도록 초집 지붕을 둑다 남은 ‘집줄’에 무거운 돌이나 나무덩어리 따위를 매달아 ‘눌’ 전체를 보호하게 해주는 것이다.

김정희 작가는 최근엔 보기가 어려운, 어렸을 적 다양한 ‘눌’들이 추억되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동화 같은 신화로 가득한 제주섬의 할망신들을 말해주고 싶은 것이다. 아마도 제주의 신들을 하나하나 말해주면 아이들은 동화 속에 들어가 있듯 혹은 꿈을 꾸듯 상상의 나래가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유사한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삶의 지혜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잇날인

보리농사 흐는 집이

하영 이시난

보리방학을 헤여서

보리철 흐루 방학

어른덜 도웨렌 주는 방학

잘도 지쁘게 집이 강

방학 흐엿된 글으민

잘 되엇된 일 손 늘었덴

서툰바치 일손도 고마워 흐곡 흐엿주

이들 고사리손까지 동원됐었을까. 요즘 아이들은 방학이라고 하면 무조건 자유롭고 재미있게 지낼 수 있다는 기대만 갖겠지만 옛날 보리방학은 생존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개념의 방학이다.

‘보리방학’이라는 상황과 그때의 어려운 생활상을 들으면서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작가는 아이들이 이 동시에 통해서 옛날 사람들 생활의 신기함을 보여주면서 순수한 마음속으로 ‘함께’라는 공동체 감정이 이입되기를 바라는 게 아닐까.

4.

밧디 가민

아레저레 물 부름씨영

보리코고리 주시레

실실 웃이명

흐루해천 튀어 뎅겼주

- 동시 그림책 ‘폭낭알로 놀레온 곰새기’ 중 『보리방학』 일부

지붕 우티

돌담 우티

장항 우티

모롱이 감낭 우티

할망 잊양 쉬어난 쉼팡 우티

이 ‘보리방학’이라는 방학이 아마도 제주도 외에는 없었을 것이다.

제주의 전통 농사 중 가장 많이 해왔던 보리농사. 제주 조상들이 어렵게 살아온 과정을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대목이다. 귀한 쌀밥은 제사나 명절 때 외에는 보기가 어려웠고 아이들에겐 꿈의 음식이기도 했다.

일 년을 먹고 살아야 할 보리농사에 일손이 얼마나 필요했으면 아

너풀너풀 험벽눈이

페뜰퍼뜰 동세백이

아이 모르게 포근포근

소리 어시 눈이 완

- 동시집 ‘이리리 저고리’ 중 『아이 모른 눈』 전문

아이는 세상 모르게 자고 있지만 함박눈은 세상을 덮으며 밤새 내렸다. 작가는 눈이 내린 공간과 모습을 잠에서 깨 아이들에게 전해주게 되며 아이들은 지붕이며 마당이며 소리 없이 눈이 내린 세상을 다 보게 될 것이며, 밤새 너풀너풀 내려와 덮은 모습이 신비감을 보이며 동심도 덮을 것이다. 작가가 가르쳐 주는 모든 공간을 보면 눈이 내릴 때의 모습까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려운 제주어를 사용했다면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겠지만 작가는 쉬운 제주어로 아이들에게 접근하며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슬은

낭입생이 텔엉

모두는 취미를 가져서

부름 부는 날

낭그늘 알

스르륵스르륵

아 있는 가을은 나뭇잎을 떨어트리고 한쪽으로 모아 햇볕에 말리는 취미를 가졌다. 무심코 가을과 낙엽의 현상만 보아 넘진다면 시도 안 되고 아이들도 그냥 지나칠 일을 작가는 세상 아이들에게 상상력을 넓혀주는 것이다.

여러 작가의 동시를 읽다 보면 가끔 동심을 넘어 어렵게 표현하는 작품도 있고 경우에 따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작품들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김정희 작가의 동시에 보면 작가의 의도와 독자의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거의 나지 않는다. 작품들이 분석과 판단과 평가의 부분이 일치되게 아이들에게 전달될 것으로 읽힌다.

▣ 슬벳

골고루 불령

물리는 취미가 이서

- 동시집 ‘이러리 저고리’ 중『▣슬의 취미』전문

대문 앞 우체통

걸상 윗 폐랑이고장

흑돌담 뒷마당

세우리고장

돌트명 비켜 세왕

나왕 크곡

얻어 온

물마농고장

심어사키여

- 동시집 ‘이러리 저고리’ 중『쑥부쟁이 정원』전문

세상의 섭리가 어린이들에게 사람의 정서로 변환하며 전해진다. 살

동시란, 어른이 어린이를 위하여 어린이다운 심리와 정서로 표현

한 시다. 어린이다운 정서로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소박한 언어와 생각을 담아야 한다. 이것이 성인시와 동시의 경계선을 구분할 수 있다는 뚜렷한 이야기이다.

작가는 쑥부쟁이 정원에서 아이의 정서를 보여주고자 우체통, 폐랭이꽃, 부추꽃, 수선화 등 사물의 위치와 현상을 가볍고 단순하게 읊겨 놓는다. 어쩌면, 눈 밖의 이 사물들이 아이의 초롱한 눈망울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지 않은가.

5.

작가는 고향인 함덕리 마을 바다 가까이서 ‘오줌폭탄’이라는 상호의 아동문학 전문서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 서점을 통하여 아이들과 동시 작가들과의 교감을 넓히기도 하고 동시 독자들과 교류도 활발하게 해가면서 궁극적으로 동시 발전을 도모한다고 본다.

작가는 제주어 동시 세계를 앞서서 개척해 왔고 부지런하고 좋은 작가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태생이 제주도이고 한평생 제주에서만 살면서 몸에 배인 제주어로 어린이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제주어 작품을 창작하면서 교육현장에서도 아이들의 시각과 눈높이를 맞춰 주고 시낭송가의 역량을 발휘해 가며 자연스러운 리듬감과 운율의 전달로 동시의 장점을 배가시켜 주기도 한다.

교실 부화기에서

태어난 빙애기

풀락풀락

숨을 쉰다

아으덜 소리에

깜짝깜짝 깬다

어미독 품에서

자사 흐는디

어미독 소리

듣지 못행 크민

말은 어떻 배울 거라

- 제주어 동시집 ‘할망바당 숨방귀’ 중 『빙애기』 전문

예쁜 병아리를 동시 속으로 끌어들인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짧은 문장으로 구사하고 있다. 과장되지도 않고 어린이들이 읽으면 바로 이해가 되는 동시이다. 쓰여진 그대로의 그림을 눈에 선명하게 보이게 하며 동시의 기본을 잘 살린 작품이다.

동시에도 이미지와 상상력이 중요하다.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그려 주어야 하며 그 속에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를 넣어주어야 한다. 작품 ‘빙애기’에서 ‘어미독 소리 / 듣지 못행 크민 / 말은 어떻 배

울 거라'라는 마지막 연이 그 중요한 요소라 본다. "맞다. 내가 말을 가르치면 이 병아리가 내 말을 잘 따를 수도 있겠네." 하는 등의 상상으로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배운다는 것의 진실을 새삼 느끼게도 될 게 아닌가.

우리 집 하늘이 15살

낮인 컹컹

심을 불끈 내당도

밤인

끄르릉 끄르릉

하르바지추룩 아픈 소리 내어

우리 집이 하르방 둘

- 제주어 동시집 '할망바당 숨방귀' 중 『강생이 하르방』 전문

동시는 쉬운 단어를 사용해서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쓰는 걸 전제 하지만 또 하나 아이들이 경험하는 일상생활과 동물이거나 꽃과 같이 주변에 친근한 자연 등을 소재로 활용하여야 공감대가 형성되리라 본다.

동시 '강생이 하르방'처럼 자연스런 현상들에 대하여 보편적인 동질감을 통한 긍정을 느끼게 되고 더 넓은 세계를 상상할 수 있는 여지도 남을 게 아닌가 한다.

제주어 동시를 오랫동안 천착하여 온 김정희 작가는 이제 '살아 움직이는 제주어 동시'가 되어 간다. 그리고 동심의 세계를 잊지 않고 꾸

준히 나아가리라 믿는다.

한가지 진언한다면,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 제주어를 구사할 때 당시의 표기법 등에 잘 맞춰나가면서 써야 그 작품이 제주어 역사와 함께 후대까지 올바르고 명확한 제주어 동시에 그 족적을 남길 게 아닌가 생각한다.

김정희 작가의 타고난 적극성과 성실함이 훌륭한 제주어 동시를 많이 탄생시킬 것으로 기대하며 작가의 동시가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주길 기원해 본다.

기획특집

교토 문인을 찾아서

오사카/ 김길호 소설가

연보

대담



1949년 12월	제주도 제주시 삼양 출생. 제주 삼양초등학교, 제주제일중학교. 제주중앙고등학교 졸업.	1996년 3월	일본중앙일간지 산케이신문 주최 <한국과 어떻게 사귈 것인가> 오피니언 1위 입상.
1970년 5월-1973년 4월	육군 입대, 단기하사 제대	2006년 2월	중·단편소설집 <이쿠노아라랑> 발간. 중편 <이쿠노아리랑>으로 제7회 해외문학상 수상(로스엔젤레스)
1973년 10월 도일	여러 직업 등을 거쳐서 (주)기쿠야도서판매, 한국민단 이쿠노복지부 사무부장, (주)무브어게인 근무(현)	2007년 1월	소설집 <이쿠노아리랑> 김시종 시인, 김창생, 김유정 작가 등의 위원으로 출판기념회 개최.(이쿠노 KCC회관)
1979년 4월-1980년 3월	오사카문학학교 1년 수료(본과52기)	2007년 8월	중편 <이쿠노아라랑>으로 제16회 해외한국문학상 수상(한국문인협회. 오사카에서 한국문협 주최로 심포지엄 개최))
1979년 11월	한국 「현대문학」 11월호 <오염지대> 초회 추천(이범선 추천)	2010년-2017년	한국 민단 이쿠노남지부 의장.
1980년 4월 1985년 3월	오사카문학학교 <매주, 한국어 자주강좌 5년간 개최>	2013년-2017년	<해외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1983년 6월	재일 동포 2세 우월희(본적, 경북 의성) 와 결혼(1남 1녀)	2018년 12월	<해외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의> 대통령 표창장 수상.
1987년 8월	한국 「문학정신」 8월호 <영가> 완료 추천(김동리 추천)	2017년-2020년	한국 민단 이쿠노남지부 지단장
1990년 5월	민족일간지 통일일보(토쿄) <일본 고교교과서 윤동주 시 소개의 의미> 3회 연재. 교토도(同志社)지사 윤동주 시비 건립(1995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침	2019년-2024년	대한노인회 일본 오사카지회 부회장 겸 사무국장(현)
1994년 2월-1995년	1월 1년간 <민족문학의 밤> 월 1회 개최(일제시대 단편 10편. 한국 KBS 문학관 작품 방영후, 토론회)	2023년 9월	<해외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의> 위원(현)
1995년 6월	<민족문학의 밤> 방영한 일제시대 문학 작품(단편소설 10편, 추가로 시 20편) <메밀꽃 필무렵> 제목으로 발간(발간 위원회 구성했음)	2024년	한국문인협회, 제주문인협회회원으로서 여러 문예지에 작품 게재(현)



교포 문인을 찾아서

-오사카/ 김길호 소설가

기획특집 교포문인을 찾아서 | 대담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70세를 훌쩍 넘은 지금도 현역으로 회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집은 오사카시 이쿠노인데, 근무처는 이웃 도시 사카이(堺)시에 있습니다. 편도 약 10km인데 날씨가 좋은 날은 자전거 출근을 합니다. 왕복 20km로 두 시간 걸립니다. 가족과 주위 사람들은 위험 하니까 자하철을 이용하라고 하지만, 헬멧을 쓰고 계속 자전거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귀가 후, 저녁 식사를 하고 뉴스와 신문 잠깐 보고 잡니다. 그리고

편집자 주

제주PEN 회장(김원욱) 등 8명의 회원은 지난 2.19(월) ~ 2.22(목) 오사카를 방문하였고, 2.21(수) 이쿠노 한인시장 내 교포가 운영하는 상점에서 김길호 선생을 만나 인터뷰를 하였다.(김길호 작가에게는 사전 질문지를 보냈음을 밝힌다.)

새벽 두, 세시에 깨어서 책을 읽고 글을 쓰기도 하고, 조간을 읽은 후 출근하고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고향(제주)에는 자주 다녀오십니까.

6년 전, 그러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해마다 갔다 왔습니다만, 최근에는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 2019년 10월에 다녀왔습니다. 그 당시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 오사카부 이쿠노남지부 지단장으로서, 대다수가 동포 2~3세인 단원 16명을 인솔하고 2박 3일 일정으로 방문했습니다. 제주시의 ‘5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서였는데, 고희법 제주시장님을 예방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고국에 생명을 심으러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방 후 새별오름 부근에 인원수대로 16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후로 제주에 가지 못했지만 지난해(2023년) 3월 서울 광화문에 있는 한글학회를 방문했습니다. 동포 2세분이 한글학회에 기부를 했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서 제가 대신 전달하러 갔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권재일 이사장님과 김주원 회장님을 뵙고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한글학회라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1908년 8월 31일 주시경 선생님을 중심으로 설립한 한글을 연구하는 민간학술단체로서 ‘한글의 성지’입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 민단 오사카본부의 본국 연수로 다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오사카 지역 동포 문인은 얼마나 됩니까.

오사카 지역 동포 문인은 아주 적은 편입니다. 시인은 김시종, 정

인, 정장, 종추월(작고), 소설가는 현월, 김길호, 김창생(귀국), 원수일, 김유정, 김마스미, 아동문학의 고정자, 논픽션 고찬유 정도입니다. 또 하나 덧붙이자면 소설가 김석범, 이희성, 양석일 씨 등은 도쿄와 그 인근에 살고 있으니까 오사카 지역과는 교류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조총련 문인들도 있습니다. 모두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글로 쓰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인데, 허옥녀, 이방세, 진승원, 채덕호, 김애미 씨 등이 있습니다. 조총련 문인 대다수는 제주 출신입니다.

문학 활동은 한국처럼 문인 조직이 없어서 모임은 물론 발간하는 동인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써 두었다가 작품집을 내기도 하는데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조총련은 다릅니다. 그들은 조총련 산하 단체인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위원회(약칭 “문예동”)'가 있는데, 그 조직이 한 달에 두 번씩 정기 합평회를 열고 작품평을 합니다. 그곳에 제출된 작품을 도쿄에서 발행하는 조총련계 계간 동인지 <종소리>에 발표합니다. 수준은 솔직히 낮은 편인데, 체험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소리>에 게재된 작품을 제가 한국에 가끔 소개했습니다.

등단 과정과 현재 문학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973년부터 일본 오사카에 살면서 1978년 현대문학에 처음 응모했습니다. 혼연일체가 아니고 <혼연이체>라는 작품이었는데, 말미에 ‘죄송하지만 심사평을 엽서로라도 보내 주시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심사를 맡은 최정희 선생님이 현대문학 9월호에 심사평을 실으면서 제 작품에 대한 평을 해주셨습니다. 타국에 살면서 우리말로 써준 데 대해 경의를 표하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간절함은 알겠지

만, 이 작품의 얘기들은 얘기로써 그칠 뿐 소설이 못된다. 소설은 얘기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소설 속에 소설이 있어야 한다“는 평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보낸 작품이었기에 평을 해주셨겠지만, 저는 가능성 이 있다고 무척 기뻤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시 써서 보냈습니다.

두 번째 쓴 작품이 <오염지대>로 1979년 ‘현대문학’ 11월호에 1회 추천(추천 이범선)을 받았습니다. 2회 추천은 8년이 지난 1987년 ‘문학정신’ 8월호에 <영가>(추천 김동리)로 한국 문단에 등단했습니다. 당시 등단은 2회 추천제로서 추천은 한 사람이 하는데, 이범선 선생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2회 추천은 김동리 선생님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범선 선생님도 김동리 선생님 추천으로 등단했는데, 저는 김동리 선생님으로부터 유복자 추천을 받은 셈입니다.

그후에 한국문인협회와 제주문인협회에 가입하여 가끔 작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국 다른 문예지에서도 작품 의뢰가 있지만, 제대로 쓸 시간이 없어서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일동포들이 발간하는 ‘항로(航)’라는 종합 잡지에서는 일본어나 일본어로 번역한 작품을 요구하지만 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끔 월간지 ‘코리아 투데이’에 수필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그동안 발표한 글 중에서 발췌하여 일본어로 출판하자는 제의가 있지만 정중히 사양하고 있습니다. 소설가이니 우선 소설집을 내고 싶어서입니다. 2006년 소설집 <이쿠노아리랑>을 발간한 후 계을러서 소설집을 못 냈지만, 올해 지금까지 쓴 단편소설을 모아서 한국에서 발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은, 1990년 5월 도쿄에서 발행하는 민족 일간지 통일일보에 3회에 걸쳐 <운동주 시, 일본교과서에 게재

된 의미>라는 제목으로 윤동주 시인을 소개하는 글을 썼습니다. 이바라키 노리코 시인이 자신의 수필집 ‘한글에의 여정’에 윤동주 시인에 대한 글이 있는데, 이 글이 4편의 시와 함께 교과서에 실린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제가 통일일보에 쓴 기사는 당시 동포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해방 후 한국에서 교육받은 동포들은 윤동주 시인을 알지만, 해방 전부터 일본에 사는 1세나 2세들은 윤동주 시인을 잘 모릅니다. 한국 문학에 관심 있는 동포들도 제대로 알지 못할 때였습니다. 이 기사를 2년 후인 1992년 한국일보 김성우 논설위원에게 보냈더니 교과서와 이바라기 시인의 주소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 자료들을 전부 보냈더니 1992년 12월 28일 한국일보에 「윤동주의 달」이라는 문화 칼럼에 자세히 소개되었습니다. 따라서 고국에도 윤동주 시인의 시가 일본 교과서에 게재된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도지사(同志社)대학 출신 동포들의 모임인 <도지사교우회 코리어클럽>이 윤동주 추모기념사업으로 <윤동주시비건립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그후 1995년 윤동주 시비가 동지사대학 교정에 건립되었습니다. 윤동주 시인 옥사 5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 제막식에는 윤동주 시인 일가와 김우종 문학평론가, 이애주 무용가, 김시종 시인, 윤동주 시를 번역한 이부키 고 시인, 오무라 마스오 와세다대학 교수 등과 저도 참석했습니다.

또한 1992년 7월 오사카문학학교에서 알고 지내던 노구치 요오코 시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었습니다. 일본 산케이신문에 박경리 작가를 소개하고 싶다면 박경리 작가에게 연락해 달라는 의뢰였습니다. 저

도 한번도 만나 뵙 적이 없었습니다만, 전화를 걸어 노구치 시인의 말씀을 전했더니 잘 알았다면서 응했습니다. 박경리 선생님이 일본어를 잘 아시니까 그 후에 노구치 시인과는 일본어로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 전화를 했을 때 쾌활한 목소리로 아주 친절하게 대해 주시면서, 인터뷰 건은 별도로 두고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선생님은 그 당시 소설 ‘토지’가 일본어로 번역되어서 4권까지 나왔는데, 그후에 나온 번역 책은 자신과 의논도 없이 나온 해석판이라면서 그해 9월부터(1992년) 문화일보에 후속편 ‘토지’가 연재된다는 말씀도 들려주셨습니다. 한국에 오면 원주에 꼭 찾아오라고 하셨습니다.

1992년 8월 9일자 산케이신문에 ‘토지’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노구치 시인과 제가 보도된 신문을 보내면서 감사 편지를 드렸더니, 선생님은 노구치 시인에게는 일본어로, 저에게는 한국어로 회답을 해주셨습니다. 원주 집에 한 번 오라고 했지만 찾아뵙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무척 후회스럽습니다.

1996년 10월 2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문학의 해 기념 한민족 문학인대회”(조직위원장 서기원)가 열렸었습니다. 17개국 살고 있는 해외동포 문인 1백여 명과 한국 문인 등 1천여 명이 참가하는 행사였습니다. 일본에서도 교포 문인 16명이 참가했는데, 김시종 시인도 저의 추천으로 48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때 김석범, 이희성 작가는 조선적이었는데 한국 대사관이 임시 여권 발급을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유인즉, 두 사람은 이전 방문 때 다음 방문 시에는 국적을 한국으로 바꾸겠다고 각서를 썼었는데, 대사관에서는 이 각서대로 국적을 한국으로 바꾸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두 작가

는 자신들 스스로가 방문하는 한국행이 아니고 초청받아 가고 있으니 그 각서와는 관계가 없다며 맞서다가 서기원 조직위원장이 한국 정부와 협의해서 임시 여권을 발급받아 빤히 참석하는 일화도 있었습니다.

2년 후인 1998년에 김시종 시인은 50년 만에 부부가 제주를 방문하는데 제가 동행했습니다. 이때 제주작가 회장은 문충성 시인이었습니다. 문 회장과 오현고 동창으로 친했던 재일동포 문병식 씨 소개로 문 회장과 연락을 해서 제주작가 회원들과 제주시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후 제주작가 창간호가 발간되었는데, 김시종 시인을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이때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김시종 시인의 이름이 활자화된 것입니다. 저는 이 특집에 “내가 본 김시종”을 썼습니다.

그후, 2006년 제주작가회의(회장 오영호 시인) 초청으로 제주 출신과 본적지가 제주인 작가들이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그때는 김시종 시인, 김창생, 원수일 작가, 김계자(필명 김유정) 작가와 제가 참가했습니다. 제주와 인연이 있는 재일동포 문인을 초청해서 개최된 심포지엄은 이 행사가 처음이었습니다.

2016년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경주에서 국제PFN한국본부(이사장 이상문) 주최로 열린 “제2회 세계한글작가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주제는 <한글로 문학하기>였습니다. 저는, “45만 명의 재일 동포 중에 1세는 10퍼센트도 없으며, 1세의 대부분은 해방 전부터 살고 있기 때문에 한글세대가 아닙니다. 이러한 재일동포 사회 구조 속에 저는 한글로 소설을 써서 고국에 알려야 하겠다는 어떤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달은 공전은 할 수 있지만 자전은 못합니다. 재일동

포 사회에 대해 한국에서는 아직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모르는 뒷 부분을 달의 자전과 비교해서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명은 아직 까지도 일본에서 한국어로 쓰는 작가가 저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일본에 한국어로 쓰는 작가가 있다는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모국어로 써야 했습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문학에 입문하게 된 동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제주 삼양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4학년 때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신 김규현 선생님이 학급 문집을 만들었을 때 처음으로 제 글이 실렸습니다. 6학년 때는 담임 선생님이 아닌 김홍립 여자 선생님의 인솔로 제주시내 백일장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입선하지 못했습니다. 이때는 소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국어 성적이 좋았고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선발되었습니다. 이날 백일장에 참석하고 나서 학교로 돌아갈 때 김홍립 선생님이 우리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밥을 차려 주셨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중학교는 제일중학교를 다녔는데 독서를 아주 좋아해서 도서관에 있는 명작들은 거의 다 읽을 정도였습니다. 해마다 한글날에 교내 백일장 대회가 열렸는데, 매년 참가했고 입상을 했습니다. 제가 사는 삼양에서 학교까지 편도 6킬로인데 걸어서 한 시간 조금 더 걸립니다. 한글날은 국경일로 학교가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왕복 두 시간을 걸어서 백일장에 참석했습니다. 교내에서는 시를 쓰는 실력을 인정 받았습니다.

그 후 문학과는 멀리하고 지내다가 1973년 5월 군대를 제대하고,

그해 10월에 일본에 와서 지내면서 재일동포 이야기를 글로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 오사카문학학교 야간부에 1년간 다니면서 수료(본과 52기)했습니다. 사실 일본어 실력 때문에 시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학교에서 처음으로 김시종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수료 후 이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여는 ‘한국어자주강좌’를 맡아 약 5년간 학생을 가르치면서 본격적으로 문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 문학과 한국 문학의 차이점, 그리고 등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오래 전에는 일본 저널리스트나 문인들로부터 한국 문인들은 문학적인 소재가 풍부해서 참 좋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군사 정권과 민주화 과정, 남북한 대치로 인한 위협과 긴장 등이 있어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만, 지금은 별로 들을 수 없습니다.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발전하였고, 그만큼 변했다는 것입니다. 극적인 변화들이 작품 소재로서는 가치가 있는데 그게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패전 후, 80년 가까이 극적인 변화 없이 지내왔습니다. 최근에는 자민당의 장기 집권으로 보수화 경향이 심해진 상태입니다만, 보편적 일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평온함을 주제를 다룬 작품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창작은 체험을 초월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 작품에는 자연재해가 많아서 그것을 소재로 한 작품들도 많습니다. 가령, 한국 작가들이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지진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주민들이 소망은 “빨리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입니다. 이러한 절박함이 주제가 되어 전개되는 일상을 그

린 작품들도 많습니다.

한일 양국에서 문인들이 등단 과정에서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춘문예 작품모집입니다. 한국에서는 신문사마다 신춘문예작품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중앙신문은 신춘문예 작품을 하지 않고, 지방신문에서는 실시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장르도 한정적이어서, 일본 전통인 단가, 하이쿠, 센류, 시 등입니다. 그 대신 중앙신문에서는 문학상, 출판상 등을 실시하고 있고, 초, 중, 고교를 대상으로 해마다 독후감을 모집하여 입선 작품을 신문에 게재하는데, 이 점은 제가 지금도 놀라고 있습니다. 문학의 저변 확대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외의 신인 등단은 문예지들이 모집하고 있지만, 한국처럼 난무하는 현상은 없습니다. 재일동포 문인들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등단하는 경우와 자비 출판으로 책 한 권 내서 평이 좋으면 소설가나 시인으로 활동하는 예도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조총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 작품 활동하는데 어려움이나 교포 문인들과의 교류는 어떻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어로 쓰는 작가는 저 혼자이기 때문에 작품을 쓴다는 의미 이전에 어쩌면 ‘우리말 지키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인 문인도 그렇지만 동포 문인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눌 때도 제가 한국어로 쓴 작품은 화제에 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한국어를 모르는 점도 있지만, 제가 일일이 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독자가 없는 황무지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 거나 다름 없습니다. 문인들과 교류할 여건도 안 되고, 문학조직도 없으니까 만

나기 어려운 것이죠.

김시종 선생님이 건강하실 때는 오사카 동포 문인, 일본 문인, 저널리스트들과 가끔 모여서 식사도 하면서 여러 이야기도 나누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기회도 없습니다. 이러한 일상에서 저는 조총련 문예동 작품 합평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말로 작품을 쓰고 있으니까 한국어 작가로서 작품평과 우리말 정체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1992년 일본어 종합잡지 <제주도>(도쿄 신간사 발행)에 <결혼행진곡>을 발표했습니다. 그 후부터 일본어로 작품을 쓰라는 권유를 많이 받고 있지만, 한국어로 쓰는 작가가 저 혼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모국어로 쓸 생각입니다. 그동안 제가 쓴 소설 몇 편은 일본어로 번역된 작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국어로 글을 쓰면서 커다란 걸림돌이 있는데, 근무처에는 일본인뿐이고 가족들도 우리 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국어를 하루에 한 마디도 않고 지내고 있어서 자칫 저 자신까지도 모국어를 잊어버릴 환경에 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도 저에게는 큰 과제입니다.

제주PEN과 제주문단에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주세요.

제가 제주PEN 회원도 아닌데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 경주에서 PEN한국본부 주최로 열린 ‘세계 한글작가대회’ 참가 때와 손해일 전 이사장으로부터 가입 권유도 받았지만,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양했습니다.

제주 문단에서도 활동을 못하고 있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제

주 문인들이 제주 해녀를 보는 시작입니다. 제가 해녀에 대한 작품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점은 비하적인 작품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각보다는 해녀들의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작품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하고 어려운 시절, 내의나 다름없는 해녀복 입고 그 추운 겨울철에도 용감하게 바다에 뛰어든 그 행동력은 제주 해녀의 진취성입니다. 현금 유통이 몹시 어려웠던 지난한 농어촌에서 해녀들의 노동은 곧 현금이 되어 농어촌 경제를 움직였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숨비소리’는 절망적인 한숨이 아니라, 이뤄냈다는 성취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발상의 전환을 가져 주시라는 바랍니다. 결코 미화시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긴 시간 진솔한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건필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PEN문학

2024년 10월 15일 초판 1쇄 발행

발행인 김원우

발행처 국제PEN한국본부 제주지역위원회

편집위원 강방영, 고연숙, 김성수, 김원우, 김정희, 문상금, 양금희

제작처 한그루

출판등록 제6510000251002008000003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로 1길 21

전화 064 723 7580 전송 064 753 7580

전자우편 onetreebook@daum.net 누리방 onetreebook.com

디자인 김영훈, 김지희, 이은아, 부건영

ISSN 2586-2391

이 책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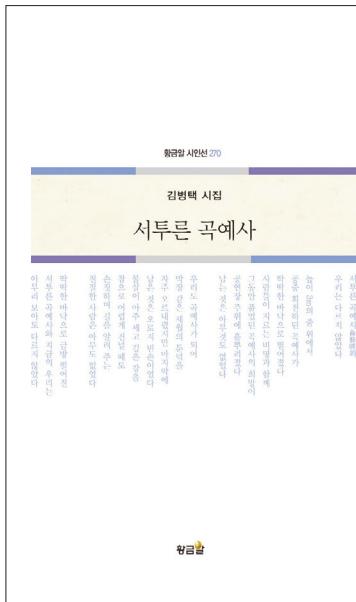
2024년도 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 후원을 받아 발간되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저자 허락과 출판사 등의 없이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곳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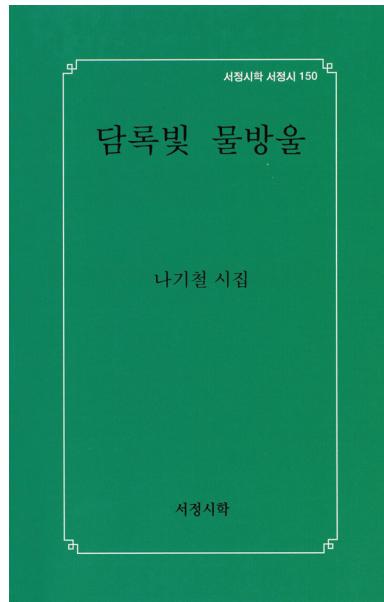
값 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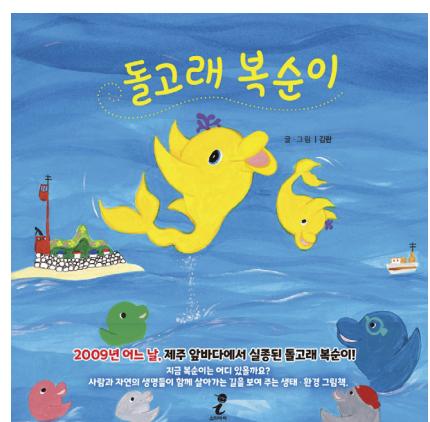
김병택 시집
『서투른 곡예사』(황금알, 2023)



이명혜 시집
『나의 동굴에 반가사유상 하나 놓고 싶다』
(천년의 시작, 2023)



나기철 시집
『담록빛 물방울』(서정시학, 2023)



김란 그림책
『돌고래 복순이』(소미아이, 2023)

ISSN 2586-2391 값 12,000원



9 772586 239006